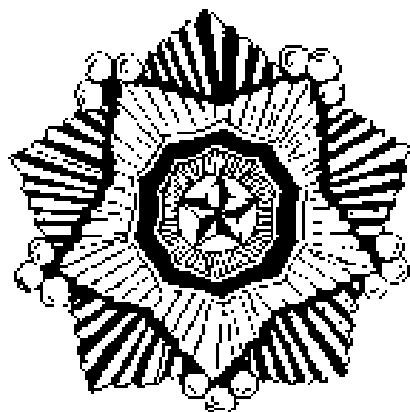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2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2호

(루계 제 676 호)

## ◆◆◆◆◆◆◆◆◆◆ 차 례 ◆◆◆◆◆◆◆◆◆◆

2 월의 아침 .....	4
눈길멀리 .....	5
결사옹위 .....	17
우리 식 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마련하시여 .....	29
2 월에 대한 생각 .....	31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 .....	32
명언해설 .....	35
아, 무포! .....	36
자랑하노라 .....	36
영원한 나의 시 .....	37
미래를 위해 그날을 있었다 .....	38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	39
소백수골엔 왜 길이 없었는가 .....	49

우리 장군님과 총 .....	50
주체소설문학의 뿌리깊은 거목 .....	51
특별렬차로 보내주신 소 .....	54
《휴양소》 .....	55
극성으로 충만된 신비의 세계, 별의 세계를 펼치며 .....	56
장군님과 병사들 .....	62
그 녀인이 바라는것 .....	63
병사시절이여 .....	64
민족의 향취, 참신한 맛 .....	65
우리 군대 .....	68
첫걸음 .....	69
지능건축물 .....	70
바다를 푸르게 하라 .....	71

## 2월의 아침

권태여

수해천리에 봄노을을 펼치며  
백두의 하늘문이 열린 날  
절세위인의 명절  
2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백설의 꽃으로  
우리 마음 단장한 이 강산  
머리위에 나뭇기는 저 기폭에  
장쾌한 선률의 노래가락에  
땡기붉은 꽃바구니마다에  
2월의 환희를 수놓은 명절이 왔습니다

모진 세월의 눈보라속에  
봄을 안고오신 우리 장군님  
아름다운 선경의 나라 봄동산을 가꾸시며  
선군길 천만리에 바쳐오신 그 자옥 새기는 마음  
이 아침 명절인사 드리웁니다

5천년 력사우에 장군님 모시여  
만복중에 장군복을 누리며 사는 인민들  
자나깨나 안고사는 생각은 하나  
삼시 더운 때식 드시기를  
옥체건강하시 읊기를

눈깊은 이 아침에도  
식전 새벽 또다시 전선길 걷지 않으시는지  
명절상에 둘러앉아 수저를 들다가도  
자책에 목메이는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명절날엔 더 먼길을 걸으시고  
명절마다 전사들을 먼저 찾으시며  
인민위해 바치시는 그 로고 더 많으신 장군님

힘한 령길 사나운 바다길에  
성에불린 야전복  
이 아침만은 벗어놓으시고  
만민의 소원어린 명절축배 드시기를  
간절한 마음담아 아뢰입니다

장군님 모시여 그늘없는 하늘땅  
강성대국 추녀밑에 웃음소리 높은 나라  
장군님 따르는 오직 한길에  
우리 다진 절대의 진리  
장군님은 조선입니다

철의 그 신념으로 백승을 펼치며  
침략의 마수도 걸음마다 후려치고  
봉쇄의 그물도 찢어버리고  
결사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려가는  
장군님의 조선 장군님의 인민들

포성없는 전쟁의 진지마다에  
7련대의 기발을 펄펄 날리며  
태평양도 날아넘어 미제를 족칠  
멸적의 신들메를 조이나니

아 판가리 총대를 틀어쥔  
일심단결의 뜨거운 맹세담아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  
2월의 이 아침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웁니다

북남 3천리의 축복을 안으시고  
세계가 우러르는 흠모의 격찬을 안으시고  
자주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  
부디 건강하시교 안녕하십시오

# 눈길멀리

손영복

## 1

밤.

아직은 밤이었다.

멀리 동컨하늘엔 려명이 깃을 펴기 시작했으나 깊디깊은 골마다엔 깊이를 알수 없는 어둠의 장막이 지긋게 늘어붙어 있었다.

그래도 사위가 희벗한것은 포근한 이불마냥 산을 두툼히 뒤덮은 흰눈의 덕이었다.

행길우에는 인적 하나 없었다.

한억삼은 걸싸게 도로의 눈을 쳐나갔다. 눈은 정깡이를 쳤다.

낮부터 밤이 이속할 때까지 종일 내린 눈이 이쯤 한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리고 산마루 겹데기를 한벌 벗긴다는 새벽바람도 터지지 않고 잠룡한것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북방의 날씨는 피벽스러운지라 눈이 온다 소리를 내면 키를 넘길 정도로 하루고 이틀이고 몰박이로 퍼붓는 때가 많았다. 그러한 뒤에는 또 요란스런 북동풍이 터져 산꼭대기의 눈들을 골짜기며 도로우에 마구 췌뿌려놓곤 한다. 이런 때면 온 천지가 눈보라에 휘 말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다.

허리를 지수긋한채 큼직한 눈가래에 흰눈을 푹푹 떠서 던지던 억삼은 끊어져오는 허리를 부어잡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세웠다.

뼈가 굵고 허우대가 큰 그였지만 세시간째나 혼자서 눈과 씨름을 하느라 이제는 지질대로 지쳤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그는 건강치도 못한 몸이었다. 두달전 새로운 시험연구를 하던중 폭발사고가 나서 그는 허리며 온몸 여러군데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한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숨옷과 옷저고리는 어디다 벗어 팽개쳤는지 내의바람인 그의 몸에서는 김이 문문 피어나고있었다.

억삼은 눈가래에 몸을 의지한채 아득히 펼쳐진 흰눈의 세계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아직 큰 도로와 마주치는곳까지 쳐나가자면 얼마나 더 걸려야 할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날이 푸름푸름해지는것이 완연했다. 눈을 두툼히 뒤집어쓴 개울가의 몽글몽글한 바위들이며 덩굴나무들이 그 희미한 푸른빛에 자기 룬팍을 뚜렷이 드러냈다.

마음이 초조해난 억삼은 눈을 한웅큼 쥐어 손바닥에 썩썩 비비고는 다시 눈가래를 잡았다.

그가 지금껏 힘겹게 눈을 쳐나온 멀리 뒤흘에는 정문을 번듯하게 세워놓은 차기계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수천명의 종업원을 가진 그 공장의 지배인이었다.

억삼은 어제 저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네 도를 찾으시었다는 가슴벅찬 소식을 들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흥분된 한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도 오실수 있지 않을까?)

억삼은 밤늦도록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밤일을 하는 로동자들의 작업장이며 나무랄데 없이 정리된 공장의 구석구석을 몇번이나 돌고 또 돌아보았다. 그러다 피땀 떠오르는 가슴치는 생각에 발걸음이 굳어졌다.

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신다면 이 눈길속으로 오시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

래일 아침 출근하면 의례히 종업원들이 달라붙어 도로의 눈을 말끔히 칠터이지만 혹시나 이 밤중에라도 오신다면 이런 죄되는 일은 없을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억삼이 자기의 속생각일뿐이지 사실 제구실도 못하고있는 공장이고보니 장군님께서 오시기를 바랄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억삼의 기대는 간절하였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억삼은 깊은 밤 혼자서 조용히 눈가래를 들고 나섰다. 기본도로에서 갈라져 공장으로 들어오는 길의 눈이라도 쳐내야 마음이 편할것 같았다.

이제 산굽이 하나만 돌아서면 큰 도로가 뻗히 보일것이다.

몸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났다. 아니 도로가 가까와지니 마음이 돌덩이를 매단것처럼 점점 더 무거워났다.

장군님앞에 땃땃이 나설수 없는 자신에 대한 죄의식감이 집게마냥 머리속을 콕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두해째 생산계획 미달... 설비사고... 해임...

그렇다. 억삼은 이제 얼마후이면, 아니 빠르면 래일 당장이라도 지배인자리를 내놓아야 할 몸이었다. 어떻게 해서나 잊으려고 한 문제건만 생각이 또다시 여기에 와닿자 간신히 지탱해오던 온몸의 힘이 말짱 빠져나갔다.

억삼은 눈우에 풍덩 주저앉았다. 속이 울컥 치밀

었다. 자기가 해임되는건 둘째고 종시 공장의 원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것이 가슴을 치고 싶도록 분했다.

《지배인동무, 이번엔 자신있습니다.》

박현순의 어쭙은 목소리가 불쑥 귀전을 친다.

머리엔 백발을 엮고 사이다병 밑굽처럼 두툼한 도수안경을 낀 로연구사... 이름처럼 성격도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불덩어리같은 정열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공업시험소에서 금속재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사로서 젊은 시절부터 오늘까지 40여년간 공장에서 일해오면서 수다한 걸린 고리들을 푸는데서 한몫 든든히 하여온 사람이다. 이번 분말연구도 그가 주동이 되어 진행했었다.

억삼은 처음부터 그를 믿고 이 사업을 내밀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였다.

기술연구집단에 책임추궁이 떨어졌다. 하지만 억삼은 공장의 기업관리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도맡아 지고나섰다.

억삼이가 피로와하는것은 그 책임결과때문이 아니라 분말연구를 완성시키지 못한때문이었다.

마지막시험을 다시 해보고싶었다.

그 사이 연구집단의 고심참담한 노력으로 실패의 원인도 찾았고 대책적인 방도도 빈틈없이 세웠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이제 공장에 한대밖에 남지 않은 설비, 고압정밀기에서 해야 하는것이 문제였다. 설비가 귀한것인데다 이미 한대가 파손되었으므로 성의 결론이 없이는 설비를 리용할수가 없었다. 정확히는 공장을 담당지도하고있는 강석호부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여러차례의 현장협의회, 기술검토에 참가하여 분말시험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면서도 시험에는 동의를 주지 않고 질질 끌고있었다.

그것이 억삼이에겐 참을수 없이 불만스러웠다.

석호의 심정을 리해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날 함께 손잡고 배짱을 맞춰 일해온 그때의 석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갈마드때문이었다...

억삼은 움츠러다리를 차고 일어났다.

생각이 석호에게로 이어지니 마음만 더 무거웠다. 잠시만이라도 모든걸 잊고싶었다.

그는 눈가래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뒤에서 웅성이는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미처 돌아 볼새도 없이 열댓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삼이를 에워쌌다.

《지배인동지!》

《야 참,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공장사람

이 아닙니까?》

밤작업을 한 노동자들이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저마끔 눈칠 차비들을 하고왔었다.

억삼은 고마운 생각에 앞서 뭐가 못할것을 하다 들킨것처럼 속이 쾅기였다.

《밤일을 하고 힘들겠는데 왜들 쉬지 않고 나왔소?》

《우리야 뭐랍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지배인동진 들어가 쉬십시오. 우리가 마저 하겠습니다. 자, 동무들!》

그들은 지배인을 아예 뒤전에 밀어놓고 일에 달라 붙었다.

눈가루가 뿌얹게 일었다. 자리가 푹푹 나기 시작했다.

한숨 돌린 억삼이도 다시 그들속에 끼여들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드디어 산굽이를 에돌아 기본도로에 와닿았다.

그 순간에 억삼의 손에서 눈가래가 맥없이 떨어져 눈속에 풍덩 넘어졌다.

심장이 금시 멎는것 같은 충격에 그는 리정표 말뚝을 휘여잡으며 간신히 몸을 유지했다.

장강쪽으로 뻗은 도로우에 찍힌 여려대의 승용차 바퀴자리를 띄여본것이다. 생생한 바퀴자리우에 엮은 눈가루가 썩워진걸 보아 찍힌지 오래지 않은 자욱이었다.

(장군님께서 지나가시었구나.)

억삼은 대뜸 직감하였다.

장군님의 차가 아니고서는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이 새벽에 무릎치는 솟눈길을 헤치며 험한 산골길을 달릴 차가 없을것이였다.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장군님께서 지난밤도 로상에서 또 지새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동시에 지배인인 자기가 구실을 못했으므로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심장이 아프게 죄여들었다.

로동자들도 죄스러운 감정으로 해서인지 머리를 짓수긋한채 발밑만 멍청히 내려다보고있었다. 억삼은 더는 자신을 지탱 못하고 승용차바퀴자욱우에 커쿨린 몸을 무너앉혔다.

(장군님... 죄많은 이놈을 육해주십시오.)

꺼멧게 죽은 그의 얼굴로 결죽한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내렸다

## 2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천천히 역구내를 거니시였다.

길죽한 접시모양의 골안에 아늑히 들어앉은 크지 않은 역이었다. 우죽뿌죽 험준한 산발들이 호위라도 하듯 역구내를 겹겹이 에워싸고있었다.

대한절기여서 새벽날씨는 귀가 아릴 정도로 매웠



다.

장군님께서는 미적지근한 날씨보다 오히려 자극적인 땀날씨가 더 마음에 드신듯 크게 심호흡을 하시며 이마에 부딪칠듯 바투 다가선 산발들을 한 눈에 주욱 둘러보시었다.

산... 산, 그뒤에 또 산이었다.

푸른 창공을 향해 힘껏 치솟아오른 산발들이 자못 위용스럽고 억센 기상이 느껴진다.

장군님께서는 투박하면서도 사나운 이 북관땅의 풍경이 오래전에 친숙해진 고장같이 느껴지시었다. 자강땅을 거쳐 여기 량강도에 이르기까지 며칠간에 걸친 현지도의 나날에 이 자연, 이 고장에 정이 든듯 싶으시었다.

이제 한시간후이면 그이께서는 이곳을 떠나 평양으로 가셔야 했다. 평양에서는 시간을 다루는 많은 일들이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시며 여기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다 끝맺었던만 어떤지 선뜻 떠나기 아쉬운 생각까지 드시었다. 지금까지 현지도하시면서 보시었던 모든것들이 한번 더 보고싶을 정도로 눈앞에 선히 그려지시었다.

우리 로동계급의 재능의 창조물인 자강도 북천의 피우개식발전소... 눈보라치는 이 엄동설한에 강 한 북관에서 흰 물안개를 피워올리며 발전기들이 기운 차게 돌아가는 그 풍경은 참으로 신비하고 장쾌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유구한 세월 하는 일없이 장자강으로 무심히 흘러내리던 북천을 거슬러올라가며 언제를 막고 건설한 북천 3 호, 4 호발전소들, 비록 못쓰게 된 전동기를 개조하여 만든 발전기여서 외형은 화려하지 못해도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전기가 팡팡 흘러 나오고있다.

북천기슭에 새로 들어앉은 아담하고 현대적인 수많은 살림집들이 이 발전소의 덕으로 전기난방화가 실현되었고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있다.

장강, 성간을 비롯한 물원천이 있는 모든 곳들에서도 계단식으로 된 중소형발전소들이 겨뭇내기로 일떠서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기쁘시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흥하는 때에 일떠선 창조물이려면 이다지도 가슴울리지 않을것이다. 비록 세상을 들쭉하게 할 거창한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맨주먹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이기에, 자기의 땅우에 오직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불굴의 그 정신이 낳은 창조물이기에 그처럼 귀중하고 장하고 기쁘시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너무도 엄혹한 재난이 들쭉워진 이 땅이었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적봉쇄, 련이어 계속되는 자연재해... 굶주림, 추위... 전기, 원료부족으로 공장들이 숨을 죽였다.

이 땅에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낱말이 생겨났다. 그중에서도 중중첩첩 산만을 끼고 앓은 자강도의 형편은 더 혹심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겪고있는 모진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감수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줄것이 너무도 부족하여 참기 어려운 아픔을 달래시며 잠못이루신 밤이 많았다.

오직 그들에게 줄수 있는것은 믿음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싶은 마음뿐이었다.

제 힘을 믿자.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나는 우리 수령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의 힘을 믿는다.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 믿고 헤쳐나가신 길이 천백번 옳았음을 다시금 확신하시었다. 그 믿음과 확신을 안겨준 자강도인민들이 고마웠고 그래서 더 그 고장에 정이 끌리는것 같으시었다.

장군님의 눈앞에는 현지도의 길에서 만나보신 자강도사람들의 얼굴이 얼핏얼핏 떠오르시었다.

그토록 장한 일을 해놓고도 발전기의형을 땀시있게 하지 못한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던 북천의 로동자들, 대용식품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거름발구를 끌고 들로 나가던 강계시민들... 가식없고 순박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강땅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있다....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를 따라 여기 조국의 북단 무봉에서도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였다.

(온 나라가 강계정신, 자강도사람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자!)

추위로 느끼시지 못하시고 오래도록 역구내를 거니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가슴저리게 마치는 충동에 걸음을 멈추시었다.

《자기계공장...》

자신도 모르게 입속으로 뇌이시었다.

며칠동안 수천리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생각이 여기에 닿을 때면 마음이 편안치 않으시였었다.

생산계획을 넘쳐하고있는 공장들과 새로 건설한 발전소들만 다 돌아보재도 일정이 긴장하여 그 공장걸을 지나가면서도 둘러보지 못하시였었다. 도당의 책임일꾼들에게 그 공장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과업은 주시였으나 노동자들이 서운해할 모습이 눈앞에 자꾸 어려와 이렇게 걸음이 무거워지곤 하하였다.

(지난해에도 계획을 못했는지?)

리해는 되되었다. 그 공장은 원래 《M》 특수강의 골자를 이루는 분말을 수입하여 써왔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경제봉쇄를 하는 조건에서 그 수입품이 제대로 들어올리 만무하였다.

장군님께서 허우대가 크면서도 순박하기 그지 없는 농민형인 지배인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시었다. 일 잘하는 일꾼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람이 공장계획을 못해 말밥에 오르고있다니 속에 재가 앉았을것이었다.

평양에 올라가면 즉시에 그를 도와줄 대책을 세워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니 그래도 마음이 다소나마 가벼워지시었다.

뒤쪽에서 조심스런 인기척이 났다.

당중앙위원회 일꾼인 문제철이었다. 그의 손에는 솜옷이 들려져있었다.

《장군님... 날씨가 참니다.》

《음, 좀 선전하오. 그래도 이제 떠나면 이 상쾌한 공기가 몹시 그리울거요.》

장군님께서 웃으시면서 솜옷을 받아 어깨에 걸치시었다.

《장군님, 기계공업성 부상 강석호동무가 왔습니다.》

《강석호동무가?...》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 그가 성산하 여러 공장들의 운영실태를 료해지도하기 위하여 자강땅에 내려와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으셨었다. 그가 예까지 온걸 보면 긴요한 일이 있는것 같았다.

그이께서 돌아보시자 강석호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오래간만이요. 강동무, 그새 북방의 찬바람을 맞아 얼굴이 검실검실한게 더 건강해졌구만.》

장군님께서 유쾌히 웃으시며 그의 인사를 받으시였으나 석호의 얼굴에 숨배여있는 고뇌의 흔적을 대뜸 감촉하시었다.

《일이 힘들지요?》

《예... 저...》

《힘이 들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관앞에 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 제 힘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작전하고 내밀어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자, 열차에 올라가서 얘기하거요.》

집무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결상에 앉으시며 석호에게 자리를 권했지만 그는 앉을념도 못하고 들고온 서류철만 만지작거리며 주춤거렸다.

《웬 일이요? 강동무답지 않게.》

《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그이앞에 조심히 드리었다.

사실 이 문건들은 강석호가 며칠전부터 끼고 다니던것이였다. 자강도의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장군님의 일정이 긴장하고 일감이 쌓인데다가 그이께서 보시면 쪽잡이나마 드시지 못하고 노상 근심하실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차마 올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어차피 떠나시기전에 결론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여서 석호는 어제 밤차로 떠나왔던것이다.

문건을 한장한장 번져나가는 장군님의 안색에 심중한 기색이 어리었다.

많은 공장들이 아직도 자재, 원료부족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그 대책문제들을 보아주시며 결론을 주실것은 즉시에서 결론을 주시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은 친히 가필로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었다.

그러시던 장군님의 손이 문득 멈추어졌다.

초기제공장에 대한 자료였다. 계획을 못하고있는 공장실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장군님께서도 아시는바였지만 놀라신것은 지배인의 해임문제가 제기된때문이었다.

두해째 생산계획을 못하고있는 내용과 얼마전엔 누구와의 합의도 없이 공장에 두대밖에 없는 귀중한 설비를 놓고 자체로 분말연구시험을 하던중 폭발사고를 일으켜 한대가 파손되고 지배인본인도 몸을 상해 두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는것, 몇차례의 사고심의과정에 변상처리문제도 제기되고 안하무인격인 그의 행동이 엄중시되어 책벌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본인은 교훈을 찾을 대신 시험을 다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것, 그래서 그의 로쇠한 몸과 지난날의 공로를 고려하여 인생말년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책벌을 주지 말고 조용히 은퇴시키려 한다는것... 등등의 내용이였다.

참으로 너무도 뜻밖이였다.

장군님께서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차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차창밖에서는 그새 바람이 터진듯 눈가루들이 요동을 치며 하늘로 말려올라가고있었다.

(해임... 해임이란 말이지.)

장군님께서 서서히 머리를 저으시었다.

이렇게 손쉽게 처리하기에는 억삼이란 인간의 존재가 너무도 귀중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로쇠하여 지난날의 공로를 언덕삼아 여생을 편히 살려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들의 제의에 공감할수도 있으시었다. 그러나 억삼은 그



런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날 그는 당의 요구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지금도 그렇게 그를 믿고있으시었다.

문건에 간단히 반영되었지만 그는 어려운 속에서도 공장의 원료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토록 아글타글 애써오지 않았는가. 그 마음이 귀중하다. 그 마음이...

《강석호동무.》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차창밖에 눈길을 주신채 물으시었다.

《역삼동무를 해임시키자는건 동무네 성의 의견입니까?》

《예, 저... 그리고 도당에서도 충분히 리해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더 묻지 않으시었다. 듣지 않고도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으시었다.

역삼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석호가 역삼이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무난히 처리하기 위해 애타게 뛰어다녔으리라는것을... 그리고 인정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석호의 심정에 누구나 감복하고 공감했으리라는것을...

친구를 위해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리해는 되셨지만 공감이 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오시었다.

역구내에 서있는 한아름 잘되게 실한 나무의 앙상한 가지끝에 지금껏 용케 붙어있던 두개의 마른 잎사귀가 눈바람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하늘 공중으로 휘말려 올라갔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나무잎사귀가 곤두박질하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줄곧 지켜보시었다. 어쩐지 애처로운 생각이 드시었다.

장군님의 심중을 무겁게 하여드린 죄스러움으로 하여 시종 안절부절 못하던 강석호가 조심스레 말씀드리었다.

《저... 역삼동무가 이렇게 된데는... 잘 도와주지 못한 제 잘못이 많습니다.》

사실 역삼이가 박현순의 기술조에 공장의 귀한 설비인 고압정밀기에서 최종시험을 하도록 승인한줄은 석호도 모르고있었다. 무규률적이고 독선적인 이 행동에 누구나 경악했다. 그래서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해진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강석호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시었다.

《동무네도 그렇지만... 나도 그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수십년세월 함께 손잡고 일해온 동무인데...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사실 역삼동무가 원료문제를 풀겠다고 나서지 않고 팔짱끼고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이런 결함도 범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파오의 엄중

성만 따지지 말고 그속에 비긴 한 인간의 고심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석호는 눈길을 떨군채 잠시 망설이였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처리도 관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음... 관대한 처리라...》

장군님의 안색이 심중해지시었다.

여기에는 한 인간에게 베푼 값싼 동정이나 아량은 보일지언정 그 인간의 생을 마지막까지 빛내주기 위하여 뜨겁게 품어주고 함께 몸부림치려는 그런 열정, 불같은 사랑은 느낄수 없으시었다.

그렇다. 여기에는 참다운 동지애가 결여되어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역삼이의 문제를 이대로 안고서는 평양으로 그냥 떠날수 없음을 느끼시었다.

정신적으로 시련을 겪고있는 그에게 동지로서의 사랑과 의리를 지켜주고있으시었다.

가벼운 문소리를 내며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고있는 문계철이 방으로 들어섰다.

무거워진 방안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는 조심스레 장군님곁으로 다가와서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것을 말씀드리었다.

《가만.》

장군님께서서는 방에서 나가려는 그를 멈춰세우시었다. 그러시고는 팔을 가슴앞에 엇갈아 끼신채 집무실을 천천히 거니시며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조기계공장으로 갑시다.》

그 조용한 음성이 크게 증폭되어 온 방안을 찌르듯 울리는듯 싶었다.

석호는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여 다시금 장군님의 안색을 살피었다.

근엄하신 안광으로 눈보라치는 창밖 멀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순간 석호는 벌써 그이의 마음이 공장에 가닿아계심을 깨달았다.

북부지구 현지도의 나날 어느 한 순간도 편히 쉬이지 못한 장군님이시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먼먼 길을 되돌아가신단 말인가?

문계철 역시 한동안 아연해서 서있었다.

《장군님,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평양가서 하셔야 할 일들이...》

《알고있습니다. 후에 밤을 새우면서라도 봉창합니다. 지금껏 함께 손잡고 일해온 한 동지의 운명문제를 이 종이장 하나를 보고 결정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를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 그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 못본것이 마음에 걸렸겠습니다.》

《장군님, 그곳까지는 길이 퍼그나 멀니다.》

이번에는 강석호가 나서서 말씀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좀 개운해지신듯 너그라이 웃으시었다.

《떨어도 가야 합니다. 천리길이든 만리길이든... 자 차를 준비하시오. 시간을 더 지체 말고 떠납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장군님의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석호는 잘 알고있었다.

동지를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많으시는 그이의 고결한 품모에 대하여 직접 목격도 해보고 많은 얘기도 들은 석호였다.

오래전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전해준 가슴뜨거웠던 일이 불쑥 떠올랐다.

그때 지방현지지도를 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아끼고 사랑하던 한 일군이 뜻밖에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즉시에서 열차에 오르시었다. 평양으로 달리던 열차가 장마로 하여 철교를 건널수 없게 되자 장군님께서서는 걸어서라도 가야겠다시며 폭우 쏟아지는 철교를 눈물을 흘리시며 걸어서 건느시었다.

석호는 그때의 가슴울렸던 일과 동시에 오늘날 한 일군의 운명문제를 위해 눈보라 천리길을 되돌아가시려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가 가슴에 겹쳐와 젖어오는 눈곱을 습벅이였다.

### 3

기승을 부리던 바람은 좀 잦았어도 날씨는 칼로 베는듯 맵찔다. 동건 산마루우에 불끈 솟아오른 둥근 해마저 파란 하늘에 땡땡하니 얼어붙은듯 싶었다.

승용차의 시창닫개는 은가루마냥 반짝이며 날아와 달라붙는 눈가루들을 밀어 내느라고 부지런히 돌아갔다. 여러대의 차들은 계곡을 넘고 산굽이를 에돌며 끊임없이 달리고있었다. 며칠전에 내린 눈이 꺾꽂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웠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주쳐다가는 물러가고 또다시 앞으로 다가오는 험한 산발들을 깊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바라보시었다.

한억삼... 강석호... 이들을 처음 만난것이 35년 전이었지.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한창 건설중인 톱기제공장을 찾으시었다.

진눈까비... 구질거리는 도로, 여기저기 널린 풀재 더미들, 기초구멍이를 파제긴 흙무지들... 공사장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돌아보시었다. 공사의 선후차와 건설방향, 공장의 운영, 전망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께서서는 공사장의 한쪽 구석에 지어놓은 가설막으로 발

길을 옮기시었다.

건설에 필요한 부속들을 생산가공하고있는 《공장》이였다. 안에는 여러대의 낡은 선반기와 두대의 불반이 비좁게 들어앉아있었다.

수행원들과 함께 기대를 돌리고있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가설막 한끝, 힘찬 메질소리와 먹이고 받는 소리가 흥그럽게 들려오는 단야장으로 향하시었다.

물을 퍼부은듯 화락히 젖은 런닝그바람의 두 청년이 수령님께서 들어서시는것도 모르고 시뻘꺽게 단 팔뚝같은 쇠덩이를 모루우에 올려놓고 함마를 먹이고있었다.

키가 구척이고 팔근육이 툭툭 불거진 청년이 함마를 휘두르고 호리호리한 몸에 너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청년이 힘형 코소리로 장단을 맞추며 익은 소재덩어리를 땀시있게 뒤집고있었다.

《수고들 합니다.》

수령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여셔야 비로소 그이를 알아본 두 청년은 몸이 굳어져 허둥거리다가 꾸벅꾸벅 인사를 올렸다.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신채 그들의 장알박힌 손을 차례로 잡아주시며 수건으로 땀을 닦으라고 이르시었다.

《일이 힘들지?》

《저... 아직 일감이 성차지 않습니다.》

키가 구척인 청년이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올렸다.

《허허, 욕심이 많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빙그레 웃으시고나서 물으시었다.

《그래 공장에서 일한지 오래오?》

몸이 호리호리한 청년이 대답올렸다.

《저희들은 작년에 한날한시에 제대되어 이 공장으로 왔습니다.》

《음, 제대군인들이라? 앞날의 공장의 기둥감들인데 우리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옛, 안동 12 사단 제대병사 강석호, 그리고 이 동무는 한억삼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큰 억삼이를 흘깃 올려다보고는 무엇이 멋적은지 뒤덜미를 굽적거렸다.

《음, 강석호, 한억삼...》

수령님께서서는 차렷자세로 나란히 서있는 두 청년을 대견스레 바라보시었다.

《그래 군사복무도 함께 했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제대되어 함께 공장에 배치받았을뿐입니다. 그렇지만 배치받는 날 우리는 이 공장과 함께 영원히 혁명동지로 살자고 맹

세를...》

씩씩하게 대답올리던 호리호리한 청년이 갑자기 자랑같이 어색스러웠던지 우물거리며 말끝을 사리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이 헤아려져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혁명의 길에서 영원한 동지가 되겠다는것이 얼마나 좋소? 응, 동무들의 그 뜻이 마음에 드오.》

수령님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두 청년을 바라보시었다.

《그래서 내 한가지 부탁을 하겠소. 앞으로 이렇게 똑심만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이도 젊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오. 일을 많이 하재도 아는것이 많아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수령님.》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자 수령님께서는 두 청년의 장알진 손을 다시금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난 믿겠소. 동무들이 서로 맹세한대로 당을 받드는 길에서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그런 혁명동지가 되기를 말ियो. 어떻소? 약속하지?》

《수령님,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수령님의 뒤쪽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도 이때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었다.

지향이 하나인 그들의 우정이 대견스러웠고 믿음이 가시었다.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모범노동자로, 공장에서 계획을 제일 먼저 끝내곤 하는 로력혁신자로 이름을 날렸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당이 바라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자기 한몸을 내뒀다.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소식이 신문과 방송으로 자주 소개되었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국가적인 큰 대회들에도 쌍둥이마냥 둘이 꼭같이 여러번이나 참가했었다.

이러한 날과 달을 거쳐 그들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처음으로 그들을 알게 되었던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중추를 이룬 그 공장을 찾으셨을 때 몸이 우람한 한억삼은 지배인으로, 강석호는 기사장의 중책을 맡아안고있었다.

그들이 뜻과 마음이 맞아 생산계획을 꺽꺽 해내면서도 공장의 면모도 일신시킨것을 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더군다나 자신께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라고 과업을 주신 최신형설비를 돌아보시고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기어이 만들어낸 그들이 장하고 미더워 옆에 나란히 세우시고 기념사진까지 남기시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길에서 영원한 동지가 되자

는 믿음과 함께 그 사진을 보내주시었다.

그로부터 여러해가 지나 강석호는 당의 신임으로 성에 소환되어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을 지휘하는 책임적인 사업을 맡아안았다....

차가 몹시 들추는바람에 장군님께서는 생각에서 깨어나시었다. 승용차는 열어서 울퉁불퉁해진 험한 길을 조심히 달리고있었다.

(혁명동지!)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시던 그이께서는 불쑥 몸을 뒤로 돌리시었다.

《석호동무.》

석호는 장군님의 부르심에 흠칫 놀랐다. 장군님의 차에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말쑥 한마디 없으시여 마음이 팽팽히 긴장되어 앉아있던 그였다.

《동무야 잘 알지 않소. 억삼동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오.》

석호는 입안이 말라들었다.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걸리셨으면 지금껏 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계셨으랴.

《저...》

석호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한것이 억삼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인듯만 싶어 저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졌다.

한해, 두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악조건의 나날이 계속되면서 공장생산은 파동을 겪기 시작했다.

억삼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산계획을 해보려고 밤잠도 잊고 뛰어다녔다. 다른 지표들은 그럭저럭 맞춰나갔지만 기본생산지표는 간신히 절반계선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나마도 살점처럼 아껴 써오던 고강도분말이 바닥이 나자 기본지표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검실검실한 억삼의 얼굴이 보기 처참할 정도로 까맣게 죽어버렸다.

성적이 생산총회에서 툇기계공장이 말밥에 오르기시작했다.

석호는 보다못해 그에게 다른 지표생산을 늘여 액상계획이라도 맞추자고 몇번 권고했으나 그의 고집은 하늘소발통이였다.

《난 열번 죽어두 그렇게 눈감구 아웅은 못하겠네 말은 바른대루 그거야 당을 속이는거지.》

하지만 방도는 묘연하였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던 외국회사들에서는 이피탈저피탈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어이없게도 원료값을 완성된 생산제품의 값보다도 더 비싸게 불러들었다.

한억삼은 분노로 두주먹을 후들후들 떨며 부서져라 책상을 내리쳤다.

《좋다, 우리가 만들자!》

공장의 기술집단이 총동원되였다.

로세대 기술자이며 과학자인 박현순이 지휘를 맡아 안았다. 그들은 언제 밥을먹고 언제 자는지 몰랐다. 억삼이도 그속에 묻혀 뜬눈으로 밤을 새우곤 하였다.

림시로 건설한 시험로에서 수십, 수백차례의 시험이 거듭되었다. 고심참담한 날이 흘러 드디어 운명적인 날이 왔다.

시험로에서 성공한 날 저녁 박현순이 찾아와서 고압정밀기에서의 최종시험을 제기했다.

이미 예견한바이지만 억삼은 한동안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말의 성공여부를 확정하려면 최대의 고열을 가하면서 높은 유압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고압정밀기의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시험이었다. 그 높은 열과 고압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날엔 최대의 정밀을 요구하는 저 설비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

억삼은 자기 혼자의 결심으로 이 시험을 진행할 결심을 내렸다.

만약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게 하고싶지 않았다. 시험역시 모든걸 예견하여 남다 자는 새벽에 박현순이와 단둘이서 진행하였다.

시험결과와는 비참하였다.

설비는 파손되고 지배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석호는 억삼이에 대한 노여움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 이렇게까진 본격하지 않았을것이었다. 톱기계공장의 생산이 걸려늘 현지에 내려와 살다싶이 하는 자기와 얼굴을 맞대고있으면서도 토론 한번 않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은것이다.

그러나 석호는 시간이 지나고 억삼이가 자기를 이 시험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혼자서 그런 결심을 내렸다는것을 알게 된후부터는 변심없는 우정을 간직하고 있는 억삼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후터워왔다.

사고심의회가 진행되었다. 기술문건들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러저러한 부분적인 약점들이 로출되었다. 기술공법상 결함들이라고 해도 억삼이는 공장지배인으로서 또 귀한 설비를 자의대로 시험에 리용하도록 승인한 현대적책임을 지지않을수가 없었다. 문제가 심중한만큼 석호는 억삼이문제때문에 적지 않게 속을 썩이며 뛰여다녔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병원을 뛰쳐나온 억삼이가 시험을 다시 하겠다고 석호를 찾아왔다. 실패의 원인을 해명했다는것이었다.

석호는 기가 막혔다. 지금 자기의 문제가 어떻게

문의된다는것을 알면서도 설을 지고 불속에 뛰여들러는 그가 우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전번에도 성공을 담보한다면서 시험을 진행했을것이 아닌가.

만약 또다시 전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책벌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나설것이다.

석호는 이것을 막아야 했다. 지금껏 누구나 부러워 할 정도로 공로도 많이 세우고 그로 하여 사람들의 아낌없는 존경을 받고있는 그가 생의 말년에 그 운명이 비참해질수 있는것을 보면서 같이 춤출수는 없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자기는 억삼이앞에 친구로서 죄를 짓는것이고 혈육처럼 가까운 그의 안해와 자식들앞에 머리조차 들수가 없을것이었다.

석호는 성의 권한으로 시험을 단호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승인없이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압정밀기의 컴퓨터조종기를 봉인해버렸다.

바로 그날, 아닌 밤중에 호랑이를 잡을 기상이 된 억삼이가 석호의 방으로 뛰여들었다.

그는 손에 들고 온 시험일지를 탕 소리가 나게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자, 수표를 하겠소, 안하겠소?》

석호는 억삼이가 어떻게 나오리라는것을 예견하고 있는지라 웃음으로 부정해버렸다.

드디어 노성이 터졌다.

《강석호, 이 억삼이를 지금껏 뭘루 알았어? 친구? 혁명동지? 자넨 달라졌어. 나한텐 당신같은 동지가 없어.》

석호가 미처 말할새도 없이 광 하고 문이 후려닫졌다. 창문이 드르릉 울었다.

그의 안해를 통해 들은바이지만 그날밤 집으로 돌아간 억삼은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다고 했다.

석호도 속이 땀혀와 잠을 자지 못했다.

친구를 위해주려는 진정이 차디찬 뱀대와 모욕을 받은것이다. 그래도 억삼이의 성미를 빨급까지 알고있기에 다소나마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억삼이, 후날에는 자네도 날 리해하게 될거네.)  
...

장군님께서는 창밖으로 눈길을 주신채 연줄연줄 따라서며 흘러가는 산야를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마음이 무거운속에서도 가슴 한 구석에 서서히 차오르는 기쁨의 감정을 느끼시였다. 믿고싶었던 그 마음이 헛된것이 아님을 확신한데서 오는 기쁨이였다.

그렇다. 억삼은 그런 사람이였다. 후파가 두려워 제 자리나 땀돌아칠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것, 자기의 리익보다 나라에 리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 일은 끝장을 내고야

마는 그런 기질의 일꾼이었다.

강석호... 장군님의 마음은 그에 대한 생각으로 무거워지시었다.

강석호가 억삼이의 진정한 동지라면 그를 믿고 공장의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책임도 함께 지고 운명도 같이 할 그런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동지다. 그래서 동지라는 부름이 그렇듯 신성하고 뜻이 깊은것이다.

오랜 세월 이들은 이런 동지애를 지니고 드림없는 한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선... 석호는 두려워하고있다. 그래서 억삼이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나설지 못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길을 택한것이다. 이것은 결국 억삼이의 한생을 빛내여주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왜냐면 혁명가의 생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에 충실한것으로 해서 빛나기때문이다.

장군님께서는 이것으로 해서 마음이 괴로우시었다.

(동지애!)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장군님의 심중을 알고있는듯 운전사가 조용히 틀어 놓은 록음기에서는 《동지애의 노래》의 선율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가벼이 눈을 감으신 장군님의 사색속으로는 수령님 대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흘러온 동지애의 력사가 감명깊은 화폭들로 줄지어 비껴들었다.

문득 승용차가 차체를 부르르 떨며 멈춰섰다.

생각에서 깨어나신 장군님의 시선이 운전사쪽으로 향해졌다.

《장군님,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물매가 심한 언덕길이 시창알을 막고있었다. 차바퀴가 공회전을 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운전사는 진땀을 흘리며 두번, 세번 용을 써보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안되겠소. 차를 밀지요.》

장군님께서는 먼저 차에서 내리시었다.

어느새 뒤차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장군님, 길이 미끄러워 차가 고개를 넘지 못할것 같습니다.》

강석호가 근심스레 말쑤드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얇은 장막같은 눈가루가 구울러다니는 고개길을 바라보시고나서 강석호를 향해 웃음을 지으시었다.

《한번 겨루어보기요. 예까지 왔다 되돌아서겠소?》

《장군님, 위험해서 그러니다.》

《걱정마오. 난 이런 길을 많이 다녀봤소. 사람이

집부터 앞세우면 아무 일도 못하고요. 가만 운전사동무, 얼음 깔 도구랑 실었겠지?》

《예.》

운전사가 짐칸을 열고 자루가 짧은 곡괭이 두개와 삽을 꺼내놓았다.

강석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의 차에 이런 도구들을 싣고 다닐줄을 누가 상상이나 하랴.

강석호는 언덕우의 얼음을 까나가면서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억삼이 이 미련한 놈아, 자네때문에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얼음을 까면서 차를 밀고 오시는줄 알기나 하나, 응?)

한대... 또 한대... 또 한대...

밀고 당기며 간난신고한 끝에 드디어 승용차들이 령마루에 올라섰다.

## 4

장군님께서 타신 차는 조용히 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온 공장종업원들이 달려나와 환호와 눈물로 그이를 맞이하였다.

장군님께서 머나먼 길을 다시 에돌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것을 그들도 다 안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공장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첫 순간에 벌써 그들이 흘리는 눈물속에 그 어떤 자책과 죄스러움이 배여있음을, 그래서 공장전체가 주눅이 든듯한 분위기를 감촉하시었다.

가슴아프시었다.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던, 활기넘치던 공장이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주인들인 로동자들이 저렇게 머리를 땀땀이 쳐들지 못하는것을 보시는것이 가슴에 걸리시었다.

그런데다 지배인도 보이지 않았다. 키가 전주대 같아 어디서나 유표하게 눈에 뜨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것이 또 마음을 서운하시게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내색을 얹으시고 기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아보시었다.

기계가 짹 들어찬 현장에 들리시여 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장군님께서는 좀전의 무겁던 마음이 개운해짐을 느끼시었다.

설비들은 하나같이 그쫘하고 깨끗이 정비되어있었다. 그 기계들은 거의 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설비들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해놓으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위력한 생활력을 이 공장 하나를 보시고서도 다시한번 뜨겁게 절감하시었다.

만일에 이 모든것이 외국의 기술과 설비에 의존했다라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가 악랄해진 지금과 같은 때엔 빈 껍데기나 불안고있어야 했을것

이다.

《설비들이 그쏘하구만.》

장군님께서는 랑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장쾌한 기계설비를 다시금 빙 둘러보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유산으로 마련해주신 그 귀중한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것을 보시니 참으로 기쁘시였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굶으면서도 설비를 하나도 파손시키지 않고 지켜낸것만 해도 지배인을 비롯한 이 공장으로 동자들이 장했다. 이제 원료문제만 해결하면 이 모든 설비들이 세상에 자기의 위용을 과시할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한억삼이를 빨리 만나보고싶으시였다.

《지배인동무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배인동문 병원에…》

기사장의 말을 부정하듯 뒤편에서 《장군님-》하는 울음섞인 부름이 터져나왔다.

억삼이였다. 물려졌던 수행원들이 일시에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났다.

키가 경중한 한억삼이 장군님을 향해 비척비척 몇걸음 옮기다가 그 자리에 풀썩 무너져앉으며 어깨를 떨었다.

사흘전 새벽, 도로의 눈을 쳐내고 길바닥에 쓰러진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는 오늘 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복바람이라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허둥지둥 공장으로 달려온것이다. 공장에 도착한지는 퍼그나 되었으나 차마 장군님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 뒤편에서 따라오고있는것을 누구도 몰랐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격하게 떨고있는 그의 두 어깨를 잡고 일으켜세우시였다.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손이나 잡아보지요.》

《장군님, 구실두 못하는 공장인데… 그 험한 길로… 흑.》

장군님께서는 그의 정상에 가슴이 저러오시였다.

환자복우에 걸친 홀렁한 솜옷… 장사같던 몸은 어디에 가고 얼굴이 반쪽이 되였다. 그가 겪은 마음속 고충을 력력히 읽을수 있었다.

허울만 남은 이 사람이 그래도 속대는 꺾이지 않고 고강도분말을 기어이 만들어내겠다고 뛰어다니는것이다. 충혈진 두눈에선 그 강의한 열기가 번뜩이고있었다.

《기가 꺾이지 않은 억삼동무를 보니 기쁘구만.》

장군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험해진 손을 잡아주시였다.

마음같아서는 조용히 마주 앉아 사랑하는 전사의 상처입은 마음을 쓰다듬어주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자신께서도 가슴저리게 감수한 그 모진 아픔을 다

시 상기시키고싶지 않으시였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힘이였다.

《억삼동무, 동무네가 한다는 그 분발시험 있지, 어떻게, 계속 할 생각이요?》

억삼은 방금전까지 주눅이 들었던 사람같지 않게 얼른 몸자세를 바로잡았다.

《장군님, 그것만은 내손으로 기어이 해놓겠습니다. 그건… 우리 공장의 생명입니다. 비록 제가… 자리를 내놓는다 해도 공장에 남아서 그것만은 완성해놓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것을 짐작하고 하신 물음인지라 장군님께서는 입가에 소리없는 웃음을 지으시였다.

억삼이의 그 배심이 마음에 드시였다.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공장을 살려보려는 그 정신, 그 마음이 장하고 귀중하시였다.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려고 애쓰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억삼이의 모습이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혁명의 길을 헤쳐가는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귀중한것이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열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혁명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먼길을 오신 보람이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함께 손잡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이런 동지들을 만날 때가 제일로 기쁘시였다. 그래서 동지를 위하여 걷는 길은 수천수만리라 해도 마다않고 서슴없이 나서시는것이였다.

《억삼동무, 시험때 파손되였다는 설비를 봅시다.》

장군님께서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다음 건물로 향하시였다.

대형자동차와 맛먹을 고압정밀기에는 서너명의 기능공들이 달라붙어 파손된 부분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있었다. 얼마 떨어져 그와 똑같은 설비 한대가 나란히 서있었다.

큼직큼직하게 낸 건물의 창문으로는 감빛의 저녁 노을이 비껴 들고있었다.

정밀기를 한바퀴 빙 도시며 기계의 작용원리의 사명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신 장군님께서는 조금 떨어져있는 지배인을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였다.

《2차시험계획을 세웠다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가 장군님께 걸상을 가져다 드리였다. 그것을 마다하신 장군님께서는 두팔을 가슴에 포개신체 지배인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지배인은 솜옷주머니에 돌돌 말아넣었던 책을 꺼내들고 시험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원료의 량과 성질, 그것들의 여러단계 시험에서의 변화과정, 재질

형성고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느라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서는 시험일지를 보자고 하시였다.

사방에 기쁨때로 얼룩지고 보풀이 인 책이였다. 여기에 이 공장기술집단의 고심참담한 노력과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려는 인간들의 몸부림이 숨배여있다고 생각하시니 무심히 대할수 없으시였다. 글자 하나, 수자 하나마다에 얼마나 쓰라린 눈물과 기쁨, 절망과 환희가 깃들어있을것인가.

책장을 번져나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손을 멈추시였다.

마지막장 사이에는 시험을 승인해줄것을 제기한 문건하나가 끼워있었다. 그런데 문건의 수표란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는 시험을 제기한 박현순과 지배인의 이름은 큼직하게 박혀있었지만 그를 승인할 사람의 수표는 없었다.

바로 이것때문에 억삼지배인이 강석호와 결별까지 선언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표란이 비어있는 문건을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곁에 서있는 강석호에게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석호동무, 공장동무들이 제기한 이 시험일지에 서 아직 성공의 담보를 찾지 못했습니까?》

석호는 장군님의 시선이 자기의 얼굴에 와닿자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다.

《저... 사실은...》

석호는 시험일지에 적혀있는 깨알같은 글자들과 수자들, 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머리속에 속속들이 기억하고있었다. 수십차례의 기술협의회와 검토, 성의 강력한 기술집단의 방조속에 실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들이 면밀히 세워졌다.

한마디로 시험일지 그자체로서는 흠잡을데 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석호는 선뜻 수표를 하지 못했다.

억삼이에 대한 생각이 손을 굳혀놓았다. 계산상 수치와 시험간에 미세한 불일치라도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만약 천번중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시험을 제기한 억삼이의 문제는 수습할수가 없을것이다. 발목을 잡는 이 생각때문에 석호는 억삼이한테 모욕을 받으면서도 수표를 미루어왔었다.

문득 그는 장군님께서 자기의 대답을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을 깨닫고 자신을 수습했다.

《장군님, ... 계산상으로는 성공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석호의 눈빛이며 얼굴표정에서 그가 무엇때문에

주저하고있는가를 대뜸 아신것이다.

그가 억삼이를 믿는다면 그리고 진정한 혁명동지라면 여기에 수표를 했어야 했다.

혁명밖에 모르고 살아온 한 인간의 생을 빛내주는 길은 그가 끝까지 혁명의 길에서 보람을 찾도록 이끌어주는것이다. 그런데... 생의 말년에 오점을 남길가 두려워 억삼이의 지향과 열정을 무시하고 조용히 은퇴시켜 여생을 편히 지내게 한다? 아니, 여기에는 그런 우정이라는 세속적인 감정을 초월한 참다운 동지애가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 부족할 때... 당에 한생 충실했던 한 일군이 대오에서 빛이 없이 떨어져나가게 된다. 그와 함께 궁지롭고 존엄있던 한 인간의 열정적인 삶도 여기에서 끝나고 만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갈아서는 그 시험일지승인란에 자신께서 수표를 하고싶으시였다. 그래서 억삼이를 만들어주고싶으시였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조국을 받드는 그 길에서 굳세게 열렬하게 살아나가도록 힘과 믿음을 주고싶으시였다. 시험의 성공여부에 앞서 억삼이의 충실성을 담보해주고싶으셨다. 그래서 혁명동지의 인격과 가치를 보란듯이 빛내주고싶으시였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그이께서는 시험일치를 집으시여 강석호에게 넘겨주시였다.

《석호동무, 지금 억삼동무와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필요한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동지적인 믿음과 방조가 아니겠습니까.》

석호는 손이 굳어져 간신히 시험일지를 받아들였다. 얼굴이 불을 뒤집어쓴것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장군님의 웅심깊은 한마디 말씀에서 석호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참된 동지판에 대한 위대한 뜻을 받아안았다.

둘도 없는 친구라고 곧잘 외우던 자기는 억삼이를 위해준다는게 그가 범할수 있는 파오가 두려워 《영예롭게》 은퇴시키는 길을 택했었다.

헤쳐놓고보면 그 속에는 자기한테 돌아올 책임에 대한 은근한 불안도 숨어있었다.

책임, 명예... 파오...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루한것들에 발목이 잡혀 자체로 원료문제를 풀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억삼이를 위해준다는것이 오히려 뒤다리를 잡아당기는 격이 되고 말았다.

《장군님, 제 사실 억삼동무를 위해준다는것이...》

장군님께서서는 자책에 잠겨 허둥거리는 강석호를 그속한 눈길로 지켜보시다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해준다는것이... 동지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뜻과 운명을 같이 할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동지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시련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으면서도 좌절을 모르고 승리해올수 있는것은 이런 참다운 동지애에 기초한 철통같은 단결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동지적단결... 여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할 혁명동지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겁니다.

석호동무, 난 동무가 앞으로 참된 동지애를 가지고 억삼동무를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장군님,... 제 꼭 명심하겠습니다.》

선호는 자기에 참된 동지관의 위대한 뜻에 대하여 심장으로 새기도록 깨우쳐주신 장군님을 우러러 두눈을 습벅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 그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되돌아오시지 않았는가.

지금껏 장군님의 심중을 무겁게 하여드린 사람이 억삼이가 아니라 동지적구실을 못하고있는 자기였다는 생각에 자책감은 더 커졌다.

장군님께서는 석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듯 그의 어깨를 가볍히 다독여주시고는 곁에 서있는 억삼에게 뭐든 좋으니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었다.

억삼은 울먹이면서 뭔가 말할듯말듯 바재이기만 하더니 종시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푹 떨구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대뜸 짐작하시고 너그럽이 웃으시었다.

《자, 지배인동무. 공장종업원들을 부르시오. 사진이라도 함께 찍읍시다. 난 원래 계획을 못한 동무들과는 사진을 안찍는데 앞으로 이 공장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자기의 힘으로 생산계획을 팡팡 해내리라고 믿으면서 찍겠습니다.》

물밀듯이 달려온 종업원들 모두가 울었다.

구실도 못하고있는 저희들을 찾아 머나먼 눈길을 헤치며 달려오시여 그토록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이 고마와 울고울었다....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떠나자 문제철이 석호의 곁으로 다가왔다.

《장군님께서 보아주셨습니다.》

그가 내미는 지배인의 해임문제를 제기했던 문건을 받아든 석호는 다시한번 놀랐다.

결표지에 《보류시킬것》이라고 쓴 장군님의 활달하신 필체가 눈에 확 안겨들었다.

정녕 장군님의 동지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일단 함께 손잡고 일할 동지로 믿으시면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을 바래우는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갑자기 고조되었다.

장군님께서 창유리를 내리우시고 손을 저어주고 계시었다.

떠나시면서도 못다주신듯 이 공장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고무를 안겨주시는것이다.

누구나가 흐느껴울었다.

석호도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수천수만리의 현지도도의 로정은 이렇듯 동지와 인민에 대한 철석같은 믿음과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자욱자욱이 아니라.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어 오늘 이 땅에는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킨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고 장군님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하나로 더욱더 철통같이 뭉쳐지는것이리라.

《앞으로 참된 동지애를 가지고 억삼동무를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장군님의 고귀한 말씀의 뜻이 다시금 가슴을 쳤다.

문득 석호는 지금껏 서류철에 끼워 들고있던 시험일지 생각이 났다.

시험일지를 펼쳐들고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수표란을 보느라니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장의 공백이 아니라 억삼이와 자기와의 사이에 참된 동지애가 결여된 마음속 공백이 남긴 흔적이었다.

(장군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공백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쿵, 쿵...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석호는 자기 심장의 힘찬 박동소리에서 온몸이 새로운 용기로 충만되어오름을 느끼면서 흰눈 깔린 멀리 굽인돌이로 사라져가는 승용차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결사옹위

박 근 원

끓어번지는 불덩이가슴에  
손없고 외워보노라  
결사옹위!  
결사옹위!

이 땅 그 어데 가도 보는 구호  
이 땅 그 어데 가도 듣는 웨침  
매일 신문에서 보는 구호  
매일 텔레비존에서 듣는 노래  
전선길고지마다에서 메아리치는 웨침

순간순간 그 언제나 보고 듣는  
이 나라의 구호  
순간순간 그 언제나한번  
삶과 떼여놓아본적 없는  
천만병사, 인민의 심장의 웨침

력사에 류레없던  
가장 준엄한 나날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정의의 선군총대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을 지켜낸  
결사옹위!

허나 병사, 인민이어  
선뜻 말하지 말라  
자신들을 제일결사옹위전사라고

그대들이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드리기전에  
그대들은 위대한 그분의  
결사옹위를 받으며  
어제에서 오늘, 래일에도  
숨결이 이어지고 심장이 뛰고  
피가 끓고있음을...

이 구호를 제일먼저 높이 드시고  
사생결단의 실천으로  
불멸의 위훈탑을 세우신분  
그이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조국결사수호》 《사생결단》  
이는 우리 장군님의 불변의 신념이였고  
철석의 의지였다

그 원천이 위대한 그이이시였다면  
우리 장군님 그이의  
조국결사수호  
병사, 인민결사옹위의  
그 시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이의  
한없는 조국사랑  
뜨거운 병사, 인민사랑  
사회주의 우리 조선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책임

력사에 수호전 많았어도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전처럼  
그런 사생결단의 수호전  
성스러운 수호전은 없었다

조국이란  
수령님 안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품  
그 어버이품에  
이 나라 병사, 인민이 사는  
사회주의 내 조선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제일사랑도 조국이였고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제일결사수호도 조국이였다

내 여직  
포성이 울부짖고  
포연이 훑날리는 언덕에  
서보지 못했어도  
나는 들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 조선의 웨침  
온 행성을 뒤흔드는 그 포성을

내 딛고 섰  
여기는  
결사의 성전이 폭풍친  
준엄한 결전장이였다

하기에 있었다 여기엔  
결사수호  
그 숭고한 부름  
그 위대한 현실이

그것이 있어  
나의 운명 나의 가정이 있고  
그것이 있어  
나의 고향 나의 조국이 있고  
그것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조선이 있고  
우리의 선군승리가 있다

시련에 또 시련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엄혹한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선  
결사수호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 나의 조국을

말하라  
력사여  
진리여  
정의여  
우리 장군님  
사회주의조선 나의 조국을  
어떻게 결사수호하셨는가를

삶이나 죽음이나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켜졌던가  
자주냐 노예냐 하는  
그 준엄한 판가리결전장에서  
이 땅의 숨결 어떻게 이어지고  
심장의 박동 어떻게 뿔뿔하였던가

내 지금 초도의 바닷가슥에 서서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나니  
불게 타며 쫓는  
태양의 빛발 함뿔 맞으며

이 땅에 태를 묻고있는  
사람들이여  
여기 와 서보시라  
아니면 마음이라도 여기에 세워보시라  
그러면 알게 되리  
그대들 운명이 어떻게 지켜지고  
그대들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시련의 나날 전선길에 이어  
풍랑세찬 날바다를 헤치시던

그날의 장군님숨결 안고  
산악으로 치솟는 격랑, 격랑!

그날의 장군님박동 안고  
바위를 쿵쿵 두드려치는  
폭풍의 퇴성, 퇴성!

지금도 귀전에 들려와라  
장군님을 수행한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  
눈물겹도록 뜨거운 그 이야기...

삼라만상이 어스름속에 잠겨있던  
마가울의 이른새벽  
우리의 장군님 초도병사들을 찾아  
항해길에 오르셨다

쏟아지는 비줄기를 안고  
마구 휘뿌려대는 찬바람  
모든것을 부서버릴듯  
길길이 솟구쳤다가는  
내리쬼지는 파도

세상을 삼켜버릴듯 한  
이 사나운 격랑앞에  
누가 감히 나선단 말인가

세찬 파도에 한껏 들리웠다가는  
사정없이 내던져지는 패속정  
배전에 이마를 찡는 사람  
허궁에 뿔뿔 떨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이런 길을 두고 사람들은 말하리  
사생결단의 길이라고

항해길에 오른 사람들  
배우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리우면서도  
온 심신 장군님 타신 배에 가있었고  
그이의 마음은 전사들에게 가계시였다

배전에 날아드는  
산악같은 파도에 묻히우며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둥켜안은 일군들  
둥굴로는 땀물이 도랑져 흘러내려라

파도밑에 잠겼다가 솟구치는  
장군님 타신 배  
나타나면 안도의 숨 내쉬었다가도  
또다시 사라지면 가슴조이기를 그 몇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가  
온통 격랑치는 물갈기뿐

이런 속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병사들을 찾아 이리로 오시다니?!...

섬기슭에 몰켜선 병사들  
발을 동동 구르며  
사나운 바다에 뛰어들며  
안타까이 웨치여라  
-최고사령관동지!  
위험합니다!

멀리 섬초소병사들의  
그 모습을 여겨보시고서는  
자신에 앞서 먼저 병사들을 걱정하시며  
바다에 들어서는건 위험하다고  
어서 나가라고 손저으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사나운 풍랑속에서  
흘러간 시간은 그 얼마...  
이윽고  
장군님 타신 배  
천신만고하여 섬기슭에 닿았어라

파도와 비에 젖은  
그이의 옷과 신발에서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어라  
짙물이 비물이 마구...

우리의 장군님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한 일군을 찾으시여라  
-문동무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방금 섬에 올라선듯  
얼마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는 일군  
-장군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어지듯 달려와서는  
어린애마냥 눈물을 쏘으며  
그이름에 와락 뛰어드는 그  
-장군님, 이렇게 무사하시니  
이젠 됐습니다

-문동무  
어디 다친데는 없습니까

수십년만에 다시 만나신듯  
장군님께선 눈굽을 적시시며  
로전사를 꼭 껴안으신다

장군님의 이 모습을 우러르며  
사나운 파도를 이겨낸 일군들  
눈물속에 서로 굳게 포옹하며  
어깨를 들먹이여라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어 헤쳐온  
오늘의 바다길이  
얼마나 인상깊습니까  
미국놈들이 아마  
이것을 본다면 질겁할것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세찬 파도소리도  
어디론가 쫓겨간듯  
섬기슭엔 랑만과 신심에 찬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말씀  
그이 음성의 메아리가 울릴뿐

그 다음엔  
온 초도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  
두볼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며  
장군님께로 달려가는 병사들

병사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후방도 익측도 없는 최전방  
여기 초도의 건강한 병사들을 보니  
전선길에 쌓인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린다고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우리 장군님

하늘이여  
바다여  
땅이여 말하라  
네 생겨 그 언제 또 있었더냐  
삶과 죽음의 계선이 따로 없는  
험한 풍랑길에 서슴없이 몸을 맡기고  
자그마한 섬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신  
그런 령장, 그런 전설적영웅이

현대전쟁사의 갈피갈피에는  
결전장도 많았고  
세월의 이끼속에 묻힌것도 많았다  
하건만 정의의 위해 바친  
위훈의 모습만은 남아있더라  
종군촬영가들의 용감한 활동에 의해

하나  
우리 장군님 그날의

초도에로의 항해길엔  
사진 한장 남지 못했어라  
세찬 풍랑에  
촬영기도 깨어져나가고

촬영가도 일어서지 못했거니...

하지만 새겨져있다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의 모습  
병사, 인민사랑의 위대한 모습은  
천만병사 인민들의 심장속에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길 아닌  
협로역경의 선군장정의 길  
우리 장군님의 그 길은  
한없이 뜨거운 동지애에서 시작된  
병사, 인민사랑의 길!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길!

정녕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  
그것은  
우리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무기였고  
원췌에게는 무서운 죽음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는  
하늘처럼 무한대 넓고  
바다처럼 무한정 깊은  
사랑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특유의 사랑

명령하고 복종하는  
최고사령관과 전사간의  
하늘과 땅같은 상하관계를 초월하여

병사들과 심장을 맞대고  
그들과 같이 숨쉬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사선천만리도 가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저 산악같은 격랑에서  
나는 본다  
백두에 날리던 동지애의 기발  
화전의 언덕에서부터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진리로  
드림없는 절대의 철학으로  
새기고 날려온 그 기발을

김혁!  
차광수!

...

꽤 부둥켜안고 놓지 못하시던  
수령님 동지애의  
그 뜨거운 품에서 날리던 기발

우리 장군님 심장으로 태우시며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더 높이 추켜드신 기발  
동지애의 붉은 기발

병사인민모두를  
동지세계의 위대한 품에 안으시고  
동지애의 노래 부르시며  
선군장정의 먼먼길 걸으신  
우리 장군님

병사, 인민에 대한 불덩이사랑으로  
조국의 운명 책임지셨기에  
그이께선 나서시였다  
조국결사수호의 길  
사생결단의 그 엄혹한 길에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는  
동지애로 피끓는  
그이 위대한 심장의 발산!

이것이  
미제의 침략전략을 박살냈고  
이것이  
미제의 《핵만능》을 산산조각냈다

우리 장군님 걸으신  
준엄한 폭풍길 천만리  
불바다길 천만리  
승리에서 승리로  
천만리... 또 천만리...

내 심장의 피줄을 이어  
달리노라 붓이며  
장군님선군장정의  
그 험한 전선길  
전선길에로...

어이 알았으리  
351고지 최전연초소군인들  
적진지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고지정점 전호가에서  
그리도 마음속에 그리며 뵈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울줄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그 노래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그렇게도 그리며 뵈고싶던  
그이이건만  
너무도 먼 곳이어서  
너무도 험한 곳이어서  
마음속에만 비워오던 그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엔 그이를 모셔서는  
안된다고  
안된다고  
우리 병사들 그 얼마나 절절히 웨쳤던가

그런데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 최전방고지에 오르셨으니  
아, 여기가 어디라구?!  
병사, 지휘관들의  
온몸 온 마음을 적시여라  
가슴속 뜨거운것이 용솟음쳐오르며

초긴장의 팽팽한 공기를 깨뜨리며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물으시는 장군님  
-여기서 적진지까지는  
얼마나 될가?

한발 나서며  
적초소까지의 너무도 가까운 거리수자를  
정중히 아뢰이는 고지의 지휘관

-음, 코앞이구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적들은 무반동포로  
여기를 조준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여기에 오래 계서서는 안됩니다  
신변이 위험합니다

-일당백병사 우리 동지들이  
지키고있는 초소인데  
나도 함께 서봅시다

고지의 지휘관과  
허물없이 주고받으시는 이 대화  
한없이 평범하면서도

천만군의 무게로 올리시는  
장군님의 말씀

병사들도  
지휘관들도  
수행한 일군들도  
가슴속 굵이치는 뜨거운 걱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두볼적시여라

자옥마다 피가 끓고  
결음마다 불길이 일고  
따르면 따를수록  
용맹으로 뚫어번지는  
장군님의 선군전선길

그 불의 길 따르기엔  
너무도 부족한 나의 붓  
허나 달리자 붓이여  
장군님 걸으신 멀고도 험한  
조국결사수호의 길  
그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한 구간이라도

우리 장군님 타신 야전차  
최전연의 어느 한 고지  
눈덮인 가파로운 길로 오른다  
미끄러져내려다가는 오르고  
그러기를 그 몇번...  
안타까운 심정 누르지 못하며  
가속답판을 밟는 운전사

그런데 어이하랴  
한치한치 툭아오르던 야전차  
사정없이 뒤로 미끄러져내린다  
차창밖에는 아찔한 계곡...

위험천만한 길  
우리 장군님  
어깨를 들이대시며  
순간의 위험 막으신다  
그러시던 그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천신만고 오르신다  
고지정점으로

그이께서 초소에 들어서시었을 때  
야전차운전사  
수행하여온 일군에게  
설분을 토한다

-어쩌면...

이 위험한 곳에  
장군님을 모십니까?!

-병사들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앞길을  
누구도 막아드릴수 없으니  
어쩌면 좋소  
그렇게밖에 더 말 못하는  
일군의 심정 운전사라고 모르랴

운전사와 일군의 《다툼》 질  
옆에서 들으시며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는 장군님  
-허허

이렇게 무사히 고지에 오르지 않았소  
의견이 있으면 날 탓하라구

병사들을 위해 계시는  
위대한 명장  
위대한 인간  
그이앞에서  
일군도 운전사도 병사들도  
눈굽을 적시며 오열을 터뜨린다

이렇게 사선을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의 길  
정녕 그 얼마이던가

그 길엔 있다  
감나무초소의 해풍세찬 길도  
1211고지의 험산길도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적의 총구가 가슴에 와닿는  
적아대결장의 판문점길도...

그 길은  
피와 땀  
목숨을 내대는  
사생결단의 길  
어느 설명절날  
최전연전선길에서  
전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우리 장군님  
병사,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헤쳐오신 시련의 나날 더듬으시여라

-그새 우리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나도 정말 힘들게  
극복해 왔고...

이 시각  
걱정의 파도에 실려  
좌중에 은은히 흘러라  
《하늘처럼 믿고삽니다》의 노래가

품고있는 생각도 모두다 말을 하고  
움터나는 희망도 터놓습니다  
하늘처럼 믿고삽니다  
장군님을 믿고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 장군님만을  
...

이 노래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는  
그런 노래던가

아니다  
장군님 조국결사수호의 그 품에서  
이 나라 천만병사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고  
심장으로 듣는 노래이다

노래의 선율을 음미하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는 장군님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시며  
사실 자신께서는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면  
허기가 저서 밤참을 찾곤 한다고  
하시는 그이

애써 걱정을 누르며  
일군들 한결같이 마음을 합쳐  
이 하루 잠시만이라도  
가족들과 같이 명절을 쇠여주시기를 바라는  
절절한 소망 올렸건만

나라고 왜 가족들과 단란히  
명절을 쇠고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의 생각은  
병사, 인민에게 가있다고  
나는 병사, 인민을 위해있는  
최고사령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이



마디마디 가슴을 치는 말쑥  
세상에 령도자 군사령관 많았어도  
언제 어느때  
병사, 인민을 위한  
조국결사수호전에  
한생의 전부를 바친  
그런 령도자  
그런 군사령관 있었던가

아, 정녕  
우리 장군님  
병사,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헤치신  
그 로고의 길은 몇만리  
침식을 건느시며  
이어가신 곳은 또 그 얼마...

우리 장군님  
조국을 위해  
병사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쉬임없이 험한 길 걷고걸으시니  
그이이신들 어찌 힘들지 않으시랴  
천만의 마음속엔  
그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뿐

일군들이, 병사들이, 인민들이  
건강을 넘려해드릴 때마다  
오히려 그이께선  
일군들, 병사들, 인민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신다

동무들이, 병사들이, 인민들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나 혼자만 건강해서야  
혁명을 할수 없지 않는가고  
동지가 없으면  
**김정일**이도 없다는것이  
나의 동지관이라 하시며

일군도 병사도 인민도 동지이고  
자신의 전부를 바치시어  
그 동지의 운명을 보호해주시며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바로 이런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병사, 인민  
그 동지에 대해서는  
살아 숨쉴 때만이 아닌  
심장이 멎은뒤에도

숨결을 이어주고  
피줄을 이어주며  
영생의 언덕에 세워

옹위 해주시는분  
그이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다

사람들은 본다  
여기 애국렬사릉에서  
리수복, 안영애, 김광철, 길영조  
그 영웅들의 돌사진과 이름도

허나 사람들 다는 모르리  
전쟁시기와 오늘의 시대에  
청춘을 바친 영웅렬사들  
어떻게 한낱한시에  
이 영생의 언덕에  
그토록 높이 서게 되었는지

우리 장군님  
전선현지시찰길 이어가시던 어느날  
시대별에 따라  
대표적으로 내세울 영웅들의 이름  
한사람한사람 찍어주시며  
그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하시었어라

너무도 뜻밖의 가르치심  
얼마전 부대결에 안장된  
영웅들의 묘비에 돌사진까지 붙이도록  
뜨거운 은정 베풀어주시  
그이 아니시던가

그이의 깊으신 심중 헤아리기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  
영웅을 배출한 부대군인들이  
서운해할것 같다고  
제나름의 좁은 생각  
조용히 올렸어라

자신의 뜻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  
전사들을 탓하시기에 앞서  
부대교방을 할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영웅들의 묘를  
가지고 다닐수야 없지 않는가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며  
그 영웅들에 대해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군님

시대의 영웅렬사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  
영원히 지켜주고싶으시여  
그들을 부대군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온 세상앞에  
더욱 자랑스럽게 내세우고싶으시여  
그리도 마음쓰시는 그이

그러시고는  
영웅을 낳은 부대군인들이  
섬섬해할 심정까지 헤아려주시며  
부대들에는 기념으로  
영웅의 반신상을 세워주고  
묘는 애국렬사릉에 옮기자고  
따뜻이 말씀하시여라

순간 일군들도  
부대지휘관들도  
가슴에 불뭉치를 안은듯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여라

살아 한생 안긴 그 품에  
육체의 생이 끝난뒤에도  
영원한 웅위를 받으며 안기는  
아, 그이품은  
태양의 뜨거운 영생의 품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  
그이 이 위대한 세계는  
정녕 어디서부터더냐  
선군의 첫 포성울린  
다박술초소의 그 언덕이던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그이 넘고넘으신  
철령의 험산준령이던가

그이 조국결사수호의 길은  
어디서 끝없이 이어지더냐  
병사들과 흠냄새도 같이 맡고  
인민들과 생사고락도 같이하신  
전선행 천만리  
그 못잊을 길이던가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  
그 길의 시작도  
그 길의 끝없는 영원함도  
병사 인민들을 동지로 안으신  
사랑과 믿음의  
그 위대한 품이여라

그렇다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땀세 변치 말자며  
뜨거운 동지사랑으로 활활 타시는  
그이 불덩이심장

그것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내리면 외투를 입는  
그런 순탄한 길 아닌  
사생결단의 폭풍천만리길 헤치시며  
동지를 위해 바쳐 새기신  
그이 동지사랑의 자욱자욱

한없는 동지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있어  
우리 장군님의  
조국결사수호는  
결사수호중의  
제일의 결사수호

조국수호전은 너무도 간고하고 치열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바치는것만으로는 아니되는것이  
《유일초대강국》미제와 맞선  
우리의 조국수호전이였거니

우리 장군님의 나라와 민족수호  
그것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애병, 애민, 애국의 마음  
사생결단으로 한몸 바치신  
이것만이 아니였더라  
우리 장군님께는 있었다  
이 세상 그 어느 지도자  
군사령관에게도 없는  
비범한 천재적예지  
선견지명의 지략  
탁월한 령도의  
독특한 선군정치방식이

우리 장군님  
머나먼 최전연초소  
파도사나운 섬초소를 찾으시며  
언제나 험한 전선길에 계신것이  
어이 병사들을 보고싶으신

그때문만이라

총대이자 혁명이며 승리  
이는 우리 장군님의 철리  
이는 우리 장군님의 실천  
이 위대함을 안으신 그이이시였기에  
이것으로 우리 장군님  
대결장의 한복판에 서시여  
조선의 백승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수호하시였다

조국이라는  
그 숭엄하고 신성한 품에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고  
사랑하는 인민이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철학이었거니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조국결사수호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병사, 인민결사옹위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엔  
언제나 있었다  
병사, 인민결사옹위  
그 철의 구호가

그이 사색의 시작도 끝도  
그이 활동의 시작도 끝도  
그이 생의 전부가  
조국결사수호전이었으며  
그것은 곧  
병사, 인민결사옹위전이었다

내 옛 병사의 자격으로  
인민의 한사람으로  
심장 터쳐 웨치노라  
우리 장군님은  
병사, 인민결사옹위의  
위대한 화신이라고

하건만 장군님께선  
우리 병사 우리 인민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충신이라 높이 불러주시면서도  
언제한번  
병사들과 인민을 위해  
자신께서 바치신것을 두고는  
단한번의 말씀도 없으셨으니...

그이 말씀하셨다면  
전사들이 있어 최고사령관이 있고  
인민이 있어 령도자가 있으며  
그래서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시철조망을 친 최전연  
그보다 더 험한 곳도 갔다고  
그래서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눈보라 천리길도 갔다고 하신  
그 말씀뿐

우리 그이 말씀 더 들었다면  
자신께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의 지도자로서  
병사들과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었다고 하신  
그 말씀뿐

그이는 자신의것을 다 바쳐  
생사운명의 길에서  
이 나라 천만숨결 천만심장을  
품안아 일으켜세우신분

그이는 이 땅에 몰아치는  
눈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시고  
이 하늘가에 닥쳐들던 검은 구름을  
천출위인의 탁월한 지략과 전술  
무비의 담력과 배심으로  
산산이 부셔버리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신분

그러시고도 그이께서는  
자신은 병사의 동지가 되고  
인민의 동지가 되고  
조국의 아들이 되어  
병사들과 인민들과 조국과  
한 운명으로 산  
최고사령관이였을뿐이라고  
겸허히 말씀하시니...

평범한 그이 말씀속에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겹고걸으신  
병사, 인민결사옹위의  
천만리길 새겨져있음을  
우리 어이 모르랴

우리는 안다  
그이 철학의 좌우명도  
그이 정치의 좌우명도

그이 령도의 좌우명도  
그이 한생의 좌우명도  
병사 인민을 위하시고  
병사 인민을 결사옹위하시는것임을

병사여  
인민이여  
그대들은 알리  
받아안은 기쁨과 영광이  
그이 사생결단하시며 바치신  
그 헌신의 자욱우에 꽃피난것임을

그대들은 알리  
우리 오늘 걷는  
락원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길이  
우리 장군님  
병사, 인민결사옹위의 천만리를 이어오신  
피와 땀의 그 길에서 열렸음을

그래서 우리  
그이를 믿고 따른다  
저 무한대의 푸르른 하늘처럼  
그래서 우리  
그이를 우러르고 받든다  
저 하늘의 영원한 태양처럼

장군님 아니시였다면  
그이의 조국결사수호  
그이의 병사, 인민결사옹위 없었다면  
우리 민족 우리 인민도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도  
하루아침에 숨결을 잃었으리

생의 숨길 이어주고  
혁명의 피줄 이어주고  
조선의 미래를 이어주신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심을  
뼈와 살로 피로 절감한 우리다

장군님을 우러르고 받들고 따르는것은  
단순히 의리를 지키는  
도덕적의무감만이 아니다  
우리는 매혹되였다  
그이의 위대함에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력사를 아무리 거슬러봐도  
그이 같으신분은 없다  
우리 장군님, 그이는  
그 어떤 대적도 딛고 서신

천하제일의 장군  
하늘땅을 한손에 거머쥔  
불세출의 위인

유일초대국이라며 으시대던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신분도 그이  
복잡한 세계정치사를  
바로잡아 나가시는분도 그이

위대한 백승의 대령장앞에  
위대한 정치의 대원로앞에  
매혹된 우리이거니  
하여 우리는  
끝없이 따른다  
백두산빨찌산의 아들  
조선의 장군을

하여 우리는  
결사옹위한다 장군님을  
하늘이 열백번 내려앉아도  
세월이 천만년의 년륜을 새겨도  
추호의 변심없이  
영원히 영원히!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우리의 온넋과  
숨결에 맥박치는  
신념의 불길  
의지의 박동

병사여  
인민이여  
우리 사는 오늘은  
평온한 시대 아닌  
준엄한 시대

원수들은 우리에게서  
내리우려 하고있다 붉은기를  
빼앗으려 하고있다 닛을  
도려내려 하고있다 심장을...

원수들의 첫 파격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  
원수들은 어찌보려 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심장을  
원수들은 검은 화살 날리려 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에

우리의 수뇌부없으면  
저 하늘 볼수 없고

이 땅 딛고 설수 없고  
세상은 순간에 얼음장되고  
암흑천지되리  
태양을 잃은듯

하거니  
내 이 시각도 보고있노라  
이 나라 하늘 땅 바다에  
영원한 충신의 모습으로 새겨진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전사들을

탈출하면 살수 있어도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비행기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하늘의 결사옹위전사

사나운 불길속에서  
온몸이 재가루되면서도  
구호나무를 지켜 목숨바친  
꽃나이의 결사옹위청춘들

천길바다물속에 휘감겨들면서도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하고  
웃으며 생을 마친  
순결의 결사옹위병사, 인민들

혈관속에 흐르는 붉은 피도  
육체도 낫도  
그들의 모든것은  
장군님을 위해 필요했거니

천만병사, 인민들의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위대한 그이께 매혹된  
뜨거운 진정의 발현

그것은  
삶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다 맡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천만병사, 인민들의 보답열의 발현

그것으로 뫼었다  
그것으로 피성쳤다  
세차게, 세차게  
천만병사, 인민들의 심장과 심장이

우리 장군님 계시여  
조국과 자신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천만병사, 인민들의  
삶의 전부였더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삶이나 죽음이나  
이 판가리대결전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전

수뇌부는 선군혁명의 최고뇌수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그이는  
우리 운명의 어버이이시고  
우리 삶의 태양이시고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이시고  
우리 승리의 기치이시고  
우리 영광의 상징이시고  
인류희망의 영원한 등대

하여 우리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을 가장 값높은 삶의 요구로  
가장 큰 행복으로  
제일생명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다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이기전에  
의리이고  
량심이고  
영예이다

우리의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웨치는 구호로  
부르는 노래로  
가슴속의 맹세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색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 삶의 전부도  
장군님결사옹위  
그것 위해 있거니

나가자  
병사여 인민이여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혁명의 첫 세대 투사들

당과 조국을 피로써 수호한

50년대 영웅전사들  
수뇌부결사옹위에 바친  
선군시대의 충신들  
그 결사옹위의 넋을  
가슴마다에 채워안고  
천만심장이 통채로 총포탄되어

바치자  
병사여 인민이여  
장군님결사옹위 그 성스런 위업에  
순간순간 쉬임없이 높뛰는  
심장의 고동 그 모두를  
가슴속을 짊 채운  
끓는 피의 그 모두를

이것이  
최대의 애국이고  
최대의 애족이고  
최대의 애민이고  
최대의 충성이다

장군님은 병사, 인민결사옹위  
병사, 인민은 장군님결사옹위  
이것이 바로  
장군님과 병사, 인민  
숨결이 하나로 이어지고  
심장이 하나로 뛰고  
마음이 하나로 되는  
우리의 혼연일체  
조선의 일심단결

이것으로 승승장구하는것이  
우리의 조국  
이것으로 백전백승하는것이  
우리의 혁명  
이것으로 영원히 부강할  
우리의 강성대국

×

이 마음 싣고  
바빠도 달린 나의 붓  
허나 너무도 적다

너무도 부족하다  
붓이 달린 곳은  
붓이 전한 이야기는...

허나 내 가슴에 한껏 안노라  
태양의 빛을 받아  
세차게 폭풍치는  
초도의 높은 파도, 그 격랑  
장군님의 발자취로 우뚝 솟은  
오성산의 선군산악  
351고지의 영웅봉  
1211고지 승리의 성새를

그것으로 내  
피를 끓이고  
심장을 불태우는  
격랑이 되고 퇴성이 되리

병사, 인민을 품어안고 결사옹위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랴  
무엇을 주저하랴

아 내 심장의 불을 터쳐  
웨이치노니  
장군님결사옹위  
그것은 나의 뼈!  
나의 피!  
나의 살!  
나의 삶!  
나의 넋!

이 몸이 타래치는 불길속에  
열백번 쓰러지고  
열백번 재가 된다 해도  
조국의 품에서 다시 뛰는  
그 영생의 심장을 터쳐  
웨이치고 또 웨치리니  
결사옹위!  
결사옹위!  
장군님결사옹위!

## 우리 식 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마련하시어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에 대한 정도의 나날 우리 식 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마련해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의 창조와 건설에서 평론이 노는 선도적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우리 식 평론의 사명과 임무, 그 특성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주체문학운동에서 평론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잡아주는 문학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평론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시대와 작가, 현실과 문학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가 제때에 해명되고 문학작품창작과 건설에 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길이 개척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론의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높이로 올려세워주시였다. 인류문학사에 올라 있는 훌륭한 작품가운데는 평론가의 옳은 평가에 의하여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도 적지 않다. 한때 이름없이 파묻혀있던 작가가 평론에 의하여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떨친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 평론에 의하여 그 진가가 드러나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 평론은 문학창작에서 나타난 새로운 싹을 남먼저 발견하는 예리한 눈과 그 성과를 종합일반화하는 폭넓은 개괄력을 가지고 문학발전을 힘있게 떠밀어 준다.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창작에서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없다.

평론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 평론의 본질과 특성을 새롭게 해명해주시였다. 우리 식 평론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된 평론이며 그 근본사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십년간 우리 문학에 대한 정도에서 평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식 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현명한 정도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주체61(1972)년 9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론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귀중한 말씀은 우리 식 평론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주신 고전적명언이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당시 평론사업을 리

해분석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평론에 남아있는 교조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당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데로 평론이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59(1970)년 2월 14일 고전적으로작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에서 주체적인 미학관에 기초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또한 수많은 문학예술작품을 지도하여주시면서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작품을 분석평가하는 기준과 방법론을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평론은 개인의 주관적이며 제한적인 사상미학적견해가 일면적으로 로출되어 작품을 평가 하던 근본약점을 극복하고 당적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론사업을 벌림으로써 인민대중에게 문학작품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줄수 있게 되었으며 작가들이 평론을 통하여 자기들의 작품창작에서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평론의 척도를 마련해주시는데 기초하여 평론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식 문학평론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정책에 기초하여 작품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를 적극 선전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학창작은 당의 정도밑에 진행되며 우리의 문학작품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문학창작이 옳게 진행되도록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며 창작실천적문제들에 구체적인 해명을 주고 세심히 보살펴줌으로써 작가들이 편향없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평론은 마땅히 주체적인 문학건설의 근본원리에 맞게 창작되고있는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도록 작가들을 고무해 주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작품의 세계를 더욱 깊이 리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평론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여주시심으로써 지난시기 작품의 결함만을 일면적으로 분석비판하거나 작품을 타도하는것과 같은 낡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작품의 성과를 위주로 분석하는 평론으로 혁신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 평론의 근본원칙과 활동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시였으며 이와 함께 비평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5(1986)년 5월 17일 고전적으로작에서 비평이 없는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평론가들은 작품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여 창작가, 예술인들과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우리 문학예술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비평은 우리 문학의 혁명적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사상문화적공세가 더욱 심화되고 악랄해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평론은 비평의 무기를 힘있게 틀어쥐고 수정주의,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사상이 조금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고 그 반동적본질과 위험성을 발가놓아야 우리 문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수 있다.

비평을 한다는것은 또한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이 높아지고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은 우리 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작품의 형상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문학의 형상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없으며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문학 작품창작에서는 작가의 준비정도의 차이, 작품창작에 기울인 탐구와 사색의 심도에서의 차이와 형상기교의 차이에 의하여 작가의 주관적욕망과 의도와는 달리 여러가지 편향을 나타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론이 긍정적인것을 일반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다고 하여 나타난 파오와 결합을 묵과하거나 어루만져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비평은 원칙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날카로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평론에서 주관주의는 금물이며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작품을 기존공식과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론하고 함부로 정치적압투를 씌우거나 순수 사회학적견지에서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73(1984)년 5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평론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기 출판된 대중편소설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성과작에 속하는 작품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에술적성과를 일반화한 평론을 많이 써내보내며 상대적으로 사상에술적수준이 낮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형상적측면에서 부족점을 분석한 평론을 문제평, 작품형의 형식으로 잘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 평론창작의 사상미학적요구를 구현하고 그 특성을 살림으로써 지난날 교조주의적인 평론의 틀이 깨지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작품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우리 식 평론의 면모가 더욱 뚜렷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평론사업이 전진하는 문화운동에 맞게 문학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선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론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계속 밝혀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평론과 문학발전과의 관계에서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중시하시고 또다시 주체74(1985)년 5월 문학평론을 활발히 벌리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평론에서 성과작들만 일률적으로 취급할것이 아니라 성과와 함께 부족점이 있는 작품, 수준이 낮은 작품들의 우결함에 대하여 깊이있게 론의한 평론도 다양하게 쓸 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짧은 형식의 문학작품과 관련한 평론들에서는 성과와 함께 부족점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론의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 평론의 면모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서 주체89(2000)년 4월 28일에 평론사업과 관련하여주시한 말씀과 주체89(2000)년 8월에 주신 가르치심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평론사업에 남아있는 낡고 구태의연한 부족점을 극복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론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예평론이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철학적깊이와 론리적대가 없이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썩여지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였으며 평론가들의 자질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또한 비평이 매우 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주체89(2000)년 5월에는 몸소 관평 《선군시대청춘들에 대한 광망적형상》을 보아주시고 우리 식 평론에서 비평의 기준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렇듯 구체적인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의 문학평론은 주체사실주의의 요구를 구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으며 문학창작실천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문학평론으로서의 혁신적인 면모가 확립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평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

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집대성하여 정립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 평론의 본질과 특성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시고 문학운동을 선도하는 전초선에 서있는 평론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문제, 우리 식 평론이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키우는데 적극 복무할데 대한 문제, 조직성과 집단성을 띠고있는 우리 식 평론활동방식문제, 평론이 명실공히 창작으로 되게 하며 평론의 형식을 다양하게 개척할데 대한 문제

등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평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지침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 평론은 주체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주체문학운동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 2월에 대한 생각

류 명 호

이 땅에 2월이 오니  
가슴 뭉클 젖어드는 생각  
올해 2월의 탄생일도  
우리 장군님 눈보라치는 전선길에서  
공장과 농촌길에서 보내시겠구나 하는

해마다 2월이 오면  
마치도 당연한것처럼  
이런 생각에 버릇이 되었으니  
우리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일을 집에서 쇠건만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만은  
집 떠나 탄생일을 맞으셔야 하는가

자신의 탄생일은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있으신듯  
우리 장군님 2월의 탄생일마다  
수천리 험산을 넘어 수백리 날바다를 건너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었거니

생각하면  
최스러워라  
장군님의 탄생일은 인민이 즐겁게 쇠고  
장군님은 탄생일조차 쉬지 못하시니

돌이켜보면  
그 언제 그 어느해  
우리 장군님 생일을 쇠신적 있었던가  
오히려 탄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

어느해 2월의 명절은  
최전연 병사들을 찾아  
눈덮인 철령을 넘으시며 보내시고  
또 어느해 2월의 명절은  
북방의 로동계급을 찾아

기나긴 공장구내길에서 보내시고...

이 세상에  
한 나라 수령이  
한 나라 최고사령관이  
얼음이 서걱이는 한덩이 췌기밥을 들며  
들추는 야전차에서 순간의 쪽잡에 들며  
그렇게 탄생일을 보낸적이 있었던가

물어선 무엇하랴  
선군령장 그이께서만이  
천만고생 다하시며  
천만락을 인민에게 주시려  
불철주야 자신을 다 바쳐가시거니

2월의 명절도  
인민에게 주시고  
자신께서는 이날을, 탄생일을  
보통날처럼 일하시며 보내시는  
아아, 우리 장군님

일년 열두달  
이 나라 365일속에  
이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의 생일을 다 새겨두시고  
그 달력우에 오직 한분  
자신의 탄생일은 없으신듯  
오늘까지 우리 장군님  
단 한번도 탄생일을 쇠신적이 없거니

언제가야 그 언제가야  
인민의 소원을 풀수 있으랴  
이 땅에 또다시 2월이 오니  
내리는 흰눈처럼  
이 가슴속에 뜨겁게 쌓이는 생각  
아, 우리 장군님은 자신의 탄생일도  
인민의 명절로 다 주시였구나!

##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

홍 현 양

정일봉의 빛은 세계를 비친다.

백두에 솟아오른 태양의 열로 만물을 키우는 그 빛은 2월의 따뜻한 봄기운을 안고 눈속에서 만병초를 피우고 하늘에 봄우뢰를 터치며 선군시대의 새 날을 불러온다.

장쾌히 열리는 백두의 푸른 하늘가에 우뚝 솟아 빛발을 날리는 정일봉!

우리르면 천출명장의 슬기와 예지가 나래치고 감돌아흐르는 안개속에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의 빛나는 한생이 전설마냥 피어난다.

모든것이 얼어붙은 백두광야의 장설우에서 흰김을 피워올리며 용용히 굽이치는 소백수의 물결우에도 정일봉의 빛이 봄을 실어준다.

버들개지가 망울을 짓고 산새들이 날아와 2월을 인류의 봄으로 노래에 담는다.

빛은 이렇듯 생명이고 빛은 이렇듯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눈빛이다.

천만자식을 굽어보는 자애로운 이 사랑의 품속에서 조국이 자라고 인민이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 땅의 봄을 누리며 사는 삶을 생각할 때 정일봉의 따뜻한 빛을 잊지 마시라.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이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발로 이루어진 이 땅우에서 우리는 새 세기의 창창한 래일을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우리 조국의 위용은 정일봉의 위용이며 세계를 굽어보는 담력과 슬기가 비끼여 그 어떤 원수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기에 외국의 한 시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온 행성이 우러러보았다  
세계의 명봉 정일봉  
그우에 번쩍이는  
선군의 번개를  
그 빛발아래  
대지의 모든것  
생기를 가다듬었거니  
조선의 목란꽃들  
아름답게 피어나고  
조선의 은방울꽃들  
한껏 향기 풍기었어라

그렇다.

정일봉의 빛은 선군의 번개빛이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정치방식의 빛발이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시키고 핵무기로 이 땅을 초토화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는 단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멸적의 총검으로 솟고 사랑하는 대지에 피어난 한송이의 꽃에는 즙을 주고 인민들에게는 그늘을 모르는 삶의 터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전야를 준다.

수천년동안 내려오며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있던 이 땅의 농경지들이 울망졸망 빼기논들을 털어버리고 눈뿌리 아득한 벌로 천지개벽되는 기적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창조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의 고지들을 쉬임없이 시찰하시던 그 준엄한 전선길에서 이 땅의 토지들을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였다.

선군시대가 낳은 이 땅의 천지개벽은 정일봉의 빛에서 시작된 조국의 천지개벽이다.

취야벌과 한드레벌, 전진벌과 어러리벌을 비롯한 조국의 모든 농경지들이 웃으며 네활개를 쭉 펴며 이 행성우에 새로 태어났다.

《군민발전소》, 《군민양어장》, 《군민다리》로 불리우는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떠세운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조국땅 도처에서 자기의 생활력을 떨치고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세월에 이런 자랑찬 현실이 펼쳐진적이 있었던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의 기치높이 일어난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위대한 장군님따라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것이다.

총대로 개척한 혁명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조선의 결심을 꺾을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총대가 약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먹히우고 마는것이다.

우리 나라 옛 《군기론》에는 이런 글이 있다.

지금 고을들에 쌓아둔 무기들을 보면 활을 들면 좁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며 화살을 들면 것이 술술 물러나며 칼을 빼면 칼날이 칼집에 붙어서 맨 자루만 빠지며 총을 겨냥해보면 녹이 쓸어서 총구멍이

막혔다.

이러한 때에 란리가 난다면 온 나라는 모두 빈손이 되고말것이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새소리에 취하고 꽃향기에 빠져 군대를 양성하지 않고 무기는 쌓아둔채로 있었으니 어찌 총이 녹슬지 않고 활에 줄이 쏠지 않으랴.

이러한 썩은 정신, 이러한 녹이 쓴 무기로는 조국을 수호할수도 없었고 도란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도 구원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가 이 땅우에 휘날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가슴터지는 그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이 일어설수가 있었을것이며 군대와 인민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강성대국전선의 길에 오를수가 있었으랴.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위업이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신 인생의 천만고비, 시련의 천만고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조국이 어떻게 살아 일떠섰고 우리 인민과 민족이 어떻게 되어 삼천리강토우에서 핵참화를 받음이 없이 살고있는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인 정일봉을 우러러본다.

그러면 정일봉의 찬란한 빛발속에 누려가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을 두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은 우리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 그이의 예지와 슬기의 빛이다.

그 누구나 그 어디서나 그 빛을 한번 가슴에 안으면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된다.

이처럼 깨달음을 주는 빛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시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는 그때에 벌써 자기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 하나의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혁명이 바로 우리 조선혁명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장엄한 이 진군은 시작되었으며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이 있어 우리의 력사적인 이 위업은 실현될수가 있었다.

사람은 생김 모양이 각이하고 개성도 서로 다르다.

자연의 산천초목도 꽃이 피는 계절이 서로 다르고 그 모양이 또한 천태만상이다.

그러나 인류력사발전은 이 서로 다른 개성을 하나의 뜻으로 결합시키고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며

자연도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개조변혁시키는 그런 리상사회를 꿈꾸어왔다.

황금이 아닌 사랑과 정의, 뜨거운 의리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맺어진 동지로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 이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참다운 룬리도덕이다.

정일봉의 빛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루는 참다운 인류리상사회를 밝히였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전제로 한다.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이 거창한 혁명은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에서 시작되었고 날이 갈수록 이 불길은 누리를 태우며 온갖 이색적인것들을 날려버리고 사람도 자연도 한 모습으로 가꾸어간다.

태양을 받들고 위인을 따르는 사회의 한모습!

인류가 수천년동안 바라고 소원해온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으로 심장을 합치는 일심단결의 중심에는 수령이 있다.

인류는 수령을 태양이라 부른다.

빛과 열을 떠나 생이 없듯이 태양을 떠나 인류를 생각할수 없는것이 법칙이다.

이처럼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불변궤도를 도는것과 같이 혁명의 일심단결을 이루는 중요핵이다.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장군을 닮으라!

이것은 우리 수령님의 뜻이었다.

때문에 풍파사나운 날바다에서 최후를 마치는 병사들도 **《김정일**장군 만세!》를 마지막무전으로 날리였고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을 합쳐 웨치였다.

우리는 본다

명절날에도 생신날에도

전투복차림을 하신 그이의 모습을

그렇다

우리의 차림새도

그분의 모양

우리의 사고와 일본새도

그분의 방식

우리의 취미와 습관도

그분의 식

우리의 피도

**김정일**동지의 형

이것을 떠난

다른 식

다른 모양  
다른 형을  
우리는 모른다

아침에도 그 모습  
저녁에도 그 모습  
끓어서도 그 모습  
끓어서도 그 모습  
천백번 쓰러져 한줌의 흙이 되어도  
변함없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

그 모습은 천만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유전성!  
기나긴 세월에도  
사나운 풍파에도  
속성이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피에도 섞이지 않고  
그 어떤 군에도 병들지 않는  
우리의 순결한 유전성  
혁명의 2세 3세를 넘어  
세대를 이어갈수록 순수해만지는  
이런 충성의 유전성을 지닌 전사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영원한 동행자가 될수 있고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만세를 부를 자격이 있거늘

자기 수령, 자기 정도자를 닮으려는 충성의 감정이 티없이 순결하게 형상된 이 노래에 우리의 일심단결을 이루는 사상의 피줄기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2월 19일에 밝히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상의 영재, 결출한 위인만이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복인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인민처럼 인류상사회의 참모습을 신심높이 바라보며 긍지높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피로와도 어려워도 우리는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을 생활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고있기때문에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밝은 래일을 향해 전진하고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고있는 인민의 가슴속엔 정일봉의 봄빛이 따스하게 깃들어있으며 2월의 세계를 인류의 미래로 창조하고있다.

빛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을 주고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묶어세우는 힘을 지니고있을 때 그것은 인류의것으로 된다.

정일봉의 빛이 바로 사람도 자연도 위대한 주체

의 한모습으로 일색화하는 힘을 지니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기때문에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그 어떤 원수도 일격에 타승해버릴 무적필승의 힘을 지니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 정일봉이 백두산마루에 우뚝 솟아있는 선군조선이다.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으로 일색화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총폭탄이 되어 일어서고 결전의 언덕에서 육탄이 되어 돌진한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 누구도 쉽게 얻을수 없는 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을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시였다.

때문에 외국의 이름있는 한 작가는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황홀한 경축야회를 보고 이렇게 쓰고있다.

《나는 서방의 춤들을 상기해본다.

거기에서는 각기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추고 다른 데서는 할수 없기때문에 즐길대로 즐기려 한다.

거기서는 미친듯이 남아채며 사람을 막 녹여내는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방적인 동작을 찾는다.

그러니 자신과 같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우연한 집합체만 찾을뿐 공동체는 찾지 못하는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집합체는 무도의 밤이 끝날 때에는 다 흩어져버리고 마는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개별적인 사람이란 없고 성장한 공동체가 있는바 이것은 춤이 끝난다음에도 계속 지속되어가며 누구도 개별적인것으로 흩어져버리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민중의 대가정에 복종시킬 각오가 되어있다.》

집합체와 공동체!

집합체는 사상의 빛이 없는 오합지졸이라면 공동체는 위대한 뜻으로 심장이 뭉쳐진 하나의 생명체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룰수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의 리익이 아니라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는 자신을 위하여》라는 생활리념이 생겨나게 되고 이에 기초한 사회적인간관계는 집합체로밖에 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있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원칙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은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의 두 측면이다. 하나와 전체가 공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합되고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인 개인이 자기 정치적생명의 모체인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갈 때 영생할수 있는것이다.

반대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은 집단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로 집단안의 개개의 성원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그들모두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서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한다.

이처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로 공동체를 이룰수 있다.

이 나라 보통 어디서나 목격할수 있는 경축야회장에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인 《성장한 공동체》로 굳게 뭉쳐진 일심단결의 위력을 찾아본 그 작가야 말로 밝은 눈을 가졌다고 해야 할것이다.

빛의 세계는 무한대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슬기와 예지로 빛발치는 정일봉의 광휘로운 빛은 인류가 가야 할 미래의 총체를 안고있다.

때문에 나라와 민족, 정견과 신앙의 차이는 있어도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고 따르는 심장엔 차이가 있을수 없다.

정일봉을 우러러 대륙과 대양을 넘어 달려오는 인류의 마음은 하나이다.

눈이 오건 비가 내리건 인류의 봄을 주는 그 빛을 찾아오는 수억만의 발걸음은 그칠새가 없다.

봄은 만민의것이다.

그 봄을 활짝 꽃피우는 태양의 빛도 인류의것으로서 이 세상 그 어디에 살아도 따르기마련이다.

정일봉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사계절이 따로 없듯이 위인을 흠모하는 마음속에 장벽이 따로 있을수가 없다.

꿈과 리상,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싶어 하는 창조와 행복의 참모습으로 솟아있는 정일봉은 꺼지지 않는 광휘로운 빛을 가지고있다.

그 빛을 안고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래가 뜨겁게 흐르고있다.

아득한 수림속에 흐르던 새벽안개  
네 어이 오르다가 산허리를 감도는가  
아, 정일봉의 그 뜻이 하도 높아  
오르던 흰 안개도 이 산정을 감돈다오

그렇다.

정일봉의 그 뜻이 하도 높아 찬란한 그 빛발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인류의 마음속에 흠모의 뜨거운 정이 흐른다.

가장 위대한 뜻으로 솟아 불멸할 정일봉에 새 세기의 태양이 빛을 뿌리고있다.

영원할 인류의 미래가 밝아오고있다!

## 명언해설

《주체사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주체사상은 무비의 견인력과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가진 위력한 무기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공인된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력사의 전진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의의는 더욱더 커가고있다. 주체사상의 무비의 견인력과 생활력은 그것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라는데 있다. 새 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불멸의 기치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 아, 무포!

김 명 철

앞에는 두만강  
해빛을 싣고 굽이치는 물결  
뒤에는 백두고원  
푸르러 설레이는 울창한 밀림  
북변 어디가나 펼쳐진 풍치건만

아, 무포!  
정가로운 남시터여  
이 물가로 향해진 오솔길 한오리  
여기 누워있는 너럭바위 하나  
내 정녕 무심히 대할수 없구나

이 기슭이 아니더냐 우리 장군님  
서른세해전 단풍철 그 일요일  
바쁘신 짬을 내여 잠시 나오신 곳  
던져놓은 낚시는 감감 잊으신채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곳이

걸출한 수령이 없어  
망국노의 눈물속에 흐느끼며 울던 강  
저 백두산높이  
주체의 화불이 타오른 때로부터  
행복에 웃으며 출렁이는 두만강

이랑이랑 물결에 실려오는  
수령님의 그 모습 그 거룩한 자욱자욱  
인민위해 수령님 헤쳐오시고

수령님 따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뜨거운 마음으로 다 밝으신 장군님

수령님 내놓으신 인민대중중심철학  
그것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산천도 수령님의 념원대로 꽃피우고  
사람들도 수령님의 뜻대로 키우시려  
장군님 끝없이 이어가신 사색이여!-

그 위대한 구상이 무르익고 또 익어  
세해가 지난뒤 2월 19일  
드디어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그 강령은  
선군시대 새 세기를 떨치고있나니

아, 무포!-  
뜻깊은 남시터여!-  
너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실록에  
하나의 새장을 펼친 성스러운 지점!  
세상만민이 길이 노래부를 땅!

두만강 저 물결처럼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휴식의 그 짧은 한순간마저  
력사의 위업에 바치신 위인의 숨결로 하여  
무포, 이 기슭은 영원히 빛나리라

## 자랑하노라

문 용 철

맑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속에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의 모색이  
어려있듯  
내 삶의 파스한 박동속에서  
정깊은 아버지의 숨결을 나는 찾는다

세상에 낳아  
젖을 물려 키워준  
그 품만이 어머니이라

넋으로 정으로  
거룩한 아버지 그 품속에  
혼연의 피줄기를 잇고 사는 이 아들

숨쉬고있어라  
못잊을 무포의 그 기슭에서  
눈내리는 전선길의 야전차에서  
그이 한생토록 써오신  
천만 로작의 갈피갈피가  
내 온몸의 억만세포가 되어

이 뜨거운 가슴속에  
굽이치고 감도는 맑은 피는  
그이 부어주신 주체형의 맑은 피

내 눈동자에 비껴진 푸르른 새 세계는  
그이 펼쳐주신 주체의 새 세계

그 진리를 심장속에 안은 전사는  
죽음의 철창속에서도  
신념의 영웅이 되어 돌아오고  
위대한 그 진리를 기치로 든 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승승장구하거니

영광이여라  
기쁨이여라  
나도 성스러운 그 기쁨에 물들여진  
붉은 당원증을 심장처럼 품고사는  
주체의 전위대오의 한 전사

깊은 밤 꿈을 꾸어도  
그이에 대한 꿈을

시 한구절 글 한자를 써가도  
그이의 사색이 비끼고 정서가 넘치네  
삶의 먼먼 길  
언제나 그이의 보폭을 따라  
살며 행복할 그이의 아들

시련의 눈비도 폭풍도 맞받아  
웃음으로 헤치는 우리의 성격도  
따뜻한 봄바람보다  
혁명의 눈보라를 더 사랑하시는  
그이에게서 물려받은것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 백승의 기질도  
선군령장의 그 품에서 받아안은것

아, 자랑하노라  
우리의 뒤통수에 심장속에 깃들어  
어느덧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자신이 된 성스러운 그 부름  
사상도 혈통도 그 목소리도  
위대한 령도자를 닮은  
영광스러운 전사임을  
가슴뜨겁게 자랑하노라

## 영원한 나의 시

김 휘 조

나는 받아안았다 그해  
주체63년  
내 작가로 첫 걸음뒀던 해  
남흥화학기지건설장에서  
불멸의 2월 19일 로작을 받아안았다

굴착기소리 불도젤소리  
새벽을 흔드는 아침  
내 외위보던 로작의 글발들이여  
가슴엔 푸른 하늘이 다 비껴내린듯

이 몸에 안긴 새 불씨였다  
우리모두를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가르친 그 글발들은

무엇으로 가슴의 피가 끓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시를 써야 하는지  
나를 가르치던 그 글발들을 안고  
나는 갔다 그날의 땀젖은 건설장을 이어  
땅도 바람도 뜨거운 공장으로  
새싹이 움트는 농장벌로

내 시에 물결치던 오곡백과여  
내 시에 끓던 쇠물의 붉은 빛이여  
그것은 그 글발들이 안겨준  
시인 나의 더운 숨결이 아니었더냐  
한생을 안고 살 녀이 아니었더냐

나는 바랐더라, 나의 시 그것이  
사람들 가슴가슴에  
샘물처럼 스며들기를  
봄비처럼 봄바람처럼



만물이 자라는 대지를 쓰다듬기를

그리하여 나의 시가  
사람들의 인생의 길동무가 되었다면  
그것은 장군님이 주신것  
그이는 그 로작과 함께  
영원히 고동칠  
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거니

생각하노라  
번뜩이는 사상이  
섬팡처럼 가슴에 비껴들던 글발이어  
나는 작가의 첫 걸음부터 축복받은 사람  
그 사상을 안고

탐구와 서정의 나래를 저어왔거니

생각하노라, 그해 그 2월  
장군님의 그 사상의 빛발은  
내 받아안은 인생의 불, 시의 불  
사색과 탐구의 길을 손잡아준  
영원한 시의 세계

내 다시 외우노라  
불멸의 글발들을 다시 외우노라  
이제  
끝없이 쓰고 또 써야 할  
나의 시들을

## 미래를 위해 그날을 있었다

김 정 철

그해도 아이들 설맞이로 시작되었다  
대원수님 한가운데 모시고  
꽃이런듯 나비런듯 춤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 정겹게 바라보시는  
장군님생각은 깊으시였다

모두가 하나같이 재간동이 귀염동이  
래일이 촉망되는 과학자가 아니면  
천부의 재능 지닌 예술가 체육가  
누가 추호도 의심하라  
새별같은 그 눈에 비친 미래를

생각도 깊으시였다 생각도 깊으시였다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끝까지  
붉은기는 여전히 날리고있어도  
장군님께서만은 예감하고계셨거니  
10년, 20년후의 이 세계의 변화를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정치의 파동  
그 모진 회오리에 휘말려  
행복의 절정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곧추 떨어질수도 있는  
저 어린 꽃잎들

장군님께선 생각이 깊으시였다  
이제껏 붉은기와 함께 휘날려온  
선행의 사상과 리론으로는  
지켜낼수 없는 우리의 제도  
담보할수 없는 우리의 미래

오로지 한손엔 총대를 틀어쥐고  
다른 손엔 아이들을 품안아 다독이며  
백두의 창설을 사람으로 녹여온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중심의  
그 사상만이 지켜낼수 있는 미래

더는 미룰수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  
내 조국의 래일을 위해  
수령님의 사상 주체의 사상으로  
온사회를 일색화하는 그 위업을

오 그날은 왔다 잊지못할 설날로부터  
달반이 지난 주체63년 2월 19일  
불멸의 로작으로 미래가 담보된 아이들  
오늘은 새 세기의 무대에서 그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주력을 맡아한다

# 신록이 질어가는 계절

조근

## 1

김일성 동지께서는 작전대에 펼쳐진 15만의 지도 위에 허리를 굽히시고 사색에 집념하고계시었다. 작전대 끝머리에 맞붙여놓은 수령님의 팔걸이결상에는 웬 어린애가 올라가있었다. 두세살 되었을가 한 어린애는 작전대 가늠에 턱을 올려놓고 코밑에 보이는 종이우에 무슨 금긋기를 하며 장난하고있었다. 모난 색연필을 움켜쥐고 작전도의 화살표를 모방한듯 한 붉고 푸른 줄들을 마구 그어놓고는 자기의 창조물에 감탄한듯 연방 《아-아-》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곤 하였다. 그러다는 인차 싫증이 난듯 색연필을 팽개치고 수령님께 고사리같은 손을 내밀며 다른것을 조르곤 했다.

수령님께서서는 작전도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채 《오-이것 말이나. 오타, 가져라.》 하시며 손에 쥐고 계시던 색연필이나 부호자를 바꾸어주곤 하시었다. 결상밑에는 어린애가 떨구어버린 색연필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작전대우에는 부관이 깎아놓은 연필자루들이 하나 둘 줄어들었다.

방금전 식당에서 늦은 아침식사를 하시고 작전실로 향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통신중대 병실앞을 지나다가 열려진 문으로 어린애를 안고 서성거리는 장영실분대장을 띄여보시었다.

《영실이는 정치상학에 참가 안하나?》

수령님의 물으심에 영실이는 화장까지 곱게 시킨 어린애를 안은채로 차렷자세를 취했다.

《장군님, 오늘은 제가 순돌이의 당번입니다.》

통신병처녀들은 어린애에게 《순돌》이라는 애칭을 붙여놓고 교대로 보모가 되어주곤 하였다.

《순돌이는 내가 봐줄테니 정치상학에 참가하는 것이 어떠냐?》

《어마-장군님께서 어떻게... 일없습니다.》

장영실은 당황하여 뒤로 뉘름 물러서기까지 했다.

《일없다. 나한테 말기구 어서 상학에 참가하거라. 오늘 상학에서는 3차전원회의 보고와 결론을 학습하게 될게다. 중요한 상학인데 빠져서야 되겠느냐.》

장영실은 안타까운듯 미간을 찡프리고 망설이더니 어린것을 박경수부관에게 맡기고 상학에 참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부관아저씨는 지금 없다. 어디 심부름을 좀

보냈다. 자- 순돌아, 이리 온. 내가 안아볼가.》

수령님께서서는 순돌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처녀들이 불인대로 부르시며 팔을 벌려보이시었다. 어린것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갈가말가 바재이 더니 이내 하얀이를 드러내며 안기겠다고 두팔을 내 뻗었다.

《봐라. 오겠다고 하지 않냐. 네가 이 애때문에 상학에 빠진걸 알면 박부관아저씨는 전번처럼 야단질을 할게다. 순돌이를 당장 애육원에 보내자고 말이다.》

그 말씀에는 더 어찌지 못하고 장영실은 밤나무 숲속에 꾸러놓은 야외상학장으로 갔다.

어린애가 나타난후로 최고사령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최고사령부로서의 엄숙성과 정중성, 질서와 정숙이 흐트러지고있었다. 어린것의 칭얼대는 소리, 울음소리...그것을 둘러싸고 터치는 처녀들의 칭얼은 웃음소리, 싱갱이질... 최고사령부로 드나드는 국가요직의 간부들, 장령, 군관들은 통신병처녀들이 안고 돌아가는 어린것을 보고 각이한 반응을 보였다. 의아해하거나 회한해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짓거나 혀를 차거나... 개중에는 박경수를 불러다 추궁하거나 수령님께도 조심스레 건의하는측도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으로 밀어버리곤 하시었다. 국가적으로 애육원, 초등학교를 내오고 전채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만으로 안된다, 그래서 간부들부터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도록 했는데 최고사령관이라고 례외가 될수 있는가,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혁명가들의 도리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이러하시니 박경수는 더 어찌지 못하고 속만 앓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고충을 환히 들여다보시면서도 짐짓 모르쇠를 하시었다. 전선시찰이나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실 때 최고사령부뜨락에 퍼지는 어린것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것이 제일 기쁘고 반가우시였다. 마치 단란한 가정에 들어서신듯 무겁게 었했던 시름이 일시에 풀리고 저 애를 위해서도 이 전쟁을 빨리 승리로 결속해야겠다는 불같은 의욕이 일곤 하시었다.

지금도 수령님께서서는 어린것의 맑은 눈동자를 곁에서 느끼시며 작전도를 살피고계시었다. 무수한 동고선과 험준한 산악들, 툭날처럼 들쭉날쭉한 아군과 적의 방어계선들, 공격화살표들이 한눈에 안

거드시였다. 이제 최현이 감당하게 될 막중한 전선 부담을 생각하시니 심중이 무거우시였다. 전선동부를 맡고 떠나게 되는 최현이 곧 작별인사차로 오게 된다. 그를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겠는가.

사색속에 시간은 흘러 밖에서 군용승용차가 멎는 소리... 이어 최현이 방안에 들어섰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철색으로 빛나는 최현의 얼굴은 그이와 며칠간 떨어져있었는데도 그리움과 걱정으로 상혈되어있었다.

《최현동무!》

수령님께서도 그 기간이 몇년이나 되는듯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최현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그래 부인이랑 가족들을 만나봤습니까?》

《예, 그 사람이야 뭘...》

최현은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장군님, 전쟁의 중하를 맡으신 장군님께서 후퇴의 어려운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족들까지 돌봐주실라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 아버지란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 최현동무야 적후에서 싸움을 하느라 어디 그럴 형편이 뻔습니까. 이제 전쟁이 승리한 다음 우리도 아버지구실을 잘해봅시다.》

그런데 작전대끝에서 두눈이 울롱해서 최현을 바라보던 어린것이 울먹울먹거렸다.

《하, 이런 ...우리 순돌이가 최현동물 낮이 설어 그러누만.》

수령님께서서는 이러시며 어린것에게 다가가시였다.

《일없다. 순돌아, 최현동문 좋은 사람이라다. 일본놈들이야 <사이겐?> 이라고 무서워할만도 했지. 하하》

그러자 수령님 먼저 최현이 다가와 어린것을 덤석 안아올렸다.

《장군님, 이 애는 웬 앵니까? 어디 보자. 이 녀석 잘 생겼는걸. 나하구 친할가, 응?》

최현은 껄껄 웃으며 어린것을 안고 한바퀴 빙그르르 맴을 돌았다.

최현의 그런 모습을 보느라니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쩡 울리셨다. 일본군경들이 감때 사나운 사나이 라고 공포에 떨던 무장이지만 어린애앞에서는 얼마나 천진하고 단순한것인가. 어린것도 최현과의 사이에 어떤 공통성을 감수했는지 깨득깨득 웃어댔다. 수령님께서서는 백전로장의 어린애와 같은 단순성과 천진성, 깨끗함이 참된 혁명가의 숨길수 없는 징표 처럼 생각되시였다. 그의 저런 소탈하고 솔직한, 가식없는 성품에 끌려 자신께서도 속마음을 송두리채

꺼내보이군 하시였다.

《자, 최현동무, 그만 하구 이리 오우.》

《예. 장군님, 장군님곁에 이런 녀석이 있는줄 알았더라면 뭘 좀 가져오는건데.》

최현은 순돌이를 걸상에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유명짜한 애용품인 호박물주리를 꺼내들었다. 누른 밤빛이 은근히 서린 물주리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여겨보더니 큰 마음 먹은듯 어린것앞에 쑥 내밀었다.

《자, 이거라도 가지구 좀 놀거라. 너한테 아주 주는건 아니야. 이게 어떤거라구. 술한 사람들이 탐내지만 빌려주지도 않아. 그런줄 알고 내 장군님말씀을 받는 동안만 갖구 놀아라.》

최현은 수령님곁으로 다가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작전도에 시선을 돌리시며 물으시였다.

《그래 좀 생각해봣소?》

《예, 장군님, 제 생각에는 쌍봉고지부터 장악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웁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긍정하시며 색연필로 전선동부의 한 삼각점을 짚으시였다.

《지금 적들은 총퇴각의 책임을 맥아더에게 씌워 그를 파직시키고 정전을 제의하면서 그 막뒤에서 새로운 공세를 은밀히 준비하고있습니다. 그 공세가 무슨 공세로 될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전선동부나 서부나 할것없이 지금 차지한 계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강하고 적극적인 방어전, 방어체계안에서의 부단한 공격전, 습격전으로 주요 전략적인 고지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언제어디로 주타격방향을 설정하고 공세를 하든 단때에 때려눕힐수 있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는 어떠한가.》

수령님께서서는 무수한 선과 점들, 화살표들이 교차 된 전선동부지역을 가리키시며 무거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이 <운동전>이요 <근접전투>요 하면서 쌍봉고지를 내주었다가 두번씩이나 다시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적들의 각성과 화력밀도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현동무는 쌍봉고지를 비롯하여 동부산악지대를 장악하여 장차 전략적인 방어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는 작전대에서 물러나시여 무거운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였다. 이 시각 그이께서는 그를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는가를 생각하고계시였

다. 다문 포 몇십문이라도 떼주고싶으시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입을 다물고 가만있기만 하는가. 조금만 도움을 청해도 자신의 결심이 설것만 같으시였다.

《장군님.》

문득 최현의 빗장처럼 닫졌던 입이 열려졌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신대로 군단의 예비를 짜내고 포화력을 전방에 집중배치하며 습격조의 불의타격으로 무조건 점령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몽클하시였다.

《최현동무, 우리 밖에 나가 바람이나 좀 쏘입니다.》

준엄한 전구로 떠나보내는 그에게 따뜻한 정박에 주실것이 없는 그이이시였다.

## 2

최고사령부가 림시 자리잡고있는 골안은 온통 밤나무숲에 묻혀있었다. 폭격에 불에 타고 가지가 부러진것도 있었으나 록음이 질어가는 계절이라 푸른 숲이 상처를 가리워버렸다. 해빛이 줄줄이 떨어지는 오솔길이며 휘넓은 공지에는 손가락같은 밤나무꽃이 떨어져 한벌 쪽 깔렸는데 마치 바둑무늬주단을 깔아놓은것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린것을 안고있는 최현과 함께 밤나무숲속을 걷고계시였다. 야외상학장과 갈라져 왼쪽 숲속에 들어서니 푸른 지붕을 씌워놓은듯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숲속에는 맑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했는데 벌들이 붕붕 날아다니고 목이 메는 밤꽃향기로 취할듯 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최현과의 호젓한 산책이 무척 흐뭇하시였다. 마촌에서의 첫 상봉으로부터 근 20년세월 최현이 항용 그래왔듯이 수령님께서도 그와 만나시면 떨어지고싶지 않으시다. 서로의 그 꿈과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면 안되는 준엄한 현실과 혁명의 요구에 대한 자각, 책임감이 또한 강하게 일어선다. 필경 이러한 감정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수령님께서서는 최현을 넋지시 돌아보시였다. 그의 짙은 눈썹밑에 가늘게 쪼프린 눈이 행복감으로 그윽히 빛나고있었다. 그러던 그가 불쑥 의문이 실린 말씀을 드렸다.

《장군님, 박경수랑 부관들은 어디 갔습니까?》

《박경수동문 심부름을 보냈소.》

《예?》

《전선에서는 전사들이 열몫, 백몫을 담당하여 싸우고있지 않소.》

수령님께서서는 최현의 불안해하는 심중을 느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아근 어디에 꼴 치는 인가가 없나 찾아보라고 했소. 전쟁전에 이 마을로인들이 꼴벌을 많이 쳤더랬소. 전쟁이 일어나구 후퇴를 하였댔다해서 양봉업이 다 죽은것 같지는 않소. 저 밤꽃에 벌들이 달라붙는걸 좀 보오.》

《예에-》

최현은 무엇인가 잘 리해가 안가는 표정이였다.

《다문 얼마라도 얻어오라고 했소. 이 애가 몸이 약 하거든.》

수령님의 말씀에 최현은 왼팔에 안고있던 어린것을 훌쩍 추졌다놓았다.

《이녀석, 들었냐? 넌 정말 행복둥이이다. 장군님, 그런데 이 애는 어떻게 된 애입니까?》

《재진격때 영실이가 구원한 애요.》

《예?!》

수령님께서서는 사연을 이야기하시였다. 고산진에서 떠나올 때 그이께서는 친위중대와 직속구분대들에서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명을 떨구어 뒤처리를 하고 따라 나오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영실이의 가슴에는 어린애가 안겨있었다. 그들은 안주를 지나 폭격을 당했는데 그때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구원한 애라는것이였다. 애어머니는 이미 숨이 켜고 적기들은 계속 날치는데 애를 어디 맡겨둘 경황이 없어 그냥 데리고 평양으로 질주했다는것이였다. 박경수와 중대지휘관들은 어린애를 갖 설립된 애육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마침 잘됐다고, 우리도 전제고 아들을 데려다 키우려고 하는데 저절로 들어온 애를 도로 보낼 필요가 뭐냐고 하시였다. 그때 영실이가 얼마나 기뻐하던지...애는 제가 담당하겠노라며 장담해나섰다.

《장영실이가 얼마나 용하오. 이젠 다 자랐소.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영실이를 볼 때마다 정너동무 생각이 나군 하오.》

...정너가 유격대를 찾아온것은 34년도 겨울이였다. 지하공작을 하다가 희생된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며 손에 총을 잡겠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애가 달려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이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시였다. 정너는 그냥 울기만 하다가 겨우 말씀드리기를 애기는 포대기에 싸서 이웃집 인정많은 할머니에게 맡겼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시여 공작원을 파견하여 그 할머니를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공작원이 가보니 그 마을은 왜놈의 《토벌》에 몽땅 재더미가 되였다. 정너는 그후 요방자부근에서 있는 전투에서 전사했다. 숨을 거두면서 영실이의 이름을 불렀다. 전쟁전 량강도에 가셨을 때 백발의 할머니가 다 자란 처녀를 앞세우고 수령님앞에 나타났다.

그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런지 수령님께서도 알수 없으시었다. 그렇게 찾아낸 영실이 이제 당당한 혁명가로 자랐다.

《정녀동무가 한때는 최현동무 부대에서 싸운 일도 있었지. 최현동무도 영실을 찾느라고 술한 애를 썼고…》

《예. 그런데 전 덜통하다보니… 끝내 장군님께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최현은 가슴에 복받치는 걱정을 누르느라 애쓰는 듯 목소리가 갈렸다.

《장군님, 제 담배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허허…나와 허물할게 뭐있소.》

수령님께서 웃으시었다. 최현은 친진한 아이처럼 기쁨을 억제 못하며 어린것이 쥐고있는 물주리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일은 별나게 되었다. 어린것이 물주리를 꽉 틀어잡고 놓지 않는 것이었다.

《허- 이녀석 봐라. 이제 이리 다우.》

했으나 순돌이는 겁먹은 인상으로 물주리를 왼손을 뒤로 감추며 울먹거리는데였다. 수령님을 뵈니 쳐다보며 구원을 바라는 눈치였다.

《이건 내거야. 장군님께서 이 최현에게 주신거야. 그만큼 갖구 놀았으면 어서 내놓지 못할가.》

최현은 짐짓 으름장을 놓았다. 어린것은 머리를 뒤로 젖히며 흔들어대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최현이 안절부절 못하며 수령님께 하소연을 했다.

《장군님, 이러다간 제 <호신부>를 영영 빼앗기는 게 아닙니까. 이걸 어쩐다? 헛 참…》

수령님께서 백전로장과 어린것의 신경이질을 보시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하하…최현동무, 그건 나도 어쩔수 없구만.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최현은 당황하여 어린것을 달래기 시작했다.

《어어- 내 사랑을 사다줄가 응? 차,이런 성화라 구야. 안된다구? 그럼 뭘줄가…》

최현이 찢찢대는 모습이 불만 했다. 어린것은 최현이 낮추 붙을수록 더욱 발버둥치며 울음소리를 높였다. 마침 뒤쪽에서 다급히 뛰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장영실이 나타났다.

《어마- 최현아저씨.》

장영실은 어쩔줄 몰라하며 어린것을 받아안았다. 최현은 큰 시름을 놓은듯 입맛을 다셨다. 영실은 어린것을 가슴에 꼭 껴안고 사랑한얼을 얼른 입에 물려주었다.

《똑-똑-어서 그쳐요. 우리 순돌이 착한 애예요. 그렇지요, 응?》

장영실은 어린것을 안고 동기동기를 하며 돌아갔다. 어린것은 머뭇머뭇 울음을 그쳤다. 최현이 맹랑한 표정으로 너털웃음을 쳤다.

《영실아, 거 물주리를 좀 달래라.》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린듯 영실이는 어린것의 가슴 앞에 손바닥을 퍼들었다.

《순돌이, 아지미말 잘 들지요? 자, 그걸 인죄요 어서-》

어린것은 사랑문 입을 오물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순돌이, 순돌인 고운 애지요? 용해요. 자, 인주세요.-》

영실이의 길게 끄는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정에 푹 젖었는지 수령님께서 가슴이 찢릿하시었다.

《웁지, 순돌이가 제일이야요. 그렇지. 용해요.》

수령님께서 영실이 쉽게 물주리를 넘겨받아 최현에게 돌려주는것을 보시며 웃으시었다.

《최현동무, 하마트면 큰결 잃을번 했습니다.》

최현이 꺾꺾거렸다.

《장군님, 가슴이 다 철렁했더했습니다. 공연히 주었구나 하고 후회도 하고… 하여튼 영실이가 큰 일을 했다. 그런데 영실아, 어째 이름이 마음에 없다. 순돌이가 뭐냐. 당당한 군대감인데.》

장영실은 수집은 웃음을 머금고 어린것을 추씩이며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순돌이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 처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영실이는 최현에게도 눈인사를 보내고 오던길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최현동무, 저 영실이가 어떻습니까?》

수령님께서 깊은 의미가 담긴 어조로 물으시었다.

《기특한 처녀입니다. 속이 깊구… 다 자랐습니다.》

수령님께서도 영실을 그렇게 보시었다.

《장차 큰일을 맡아할수 있습니다. 녀성의 힘이란 참… 최현동무도 꿈쩍 못하는 어린것을 단숨에 열려 놓거든. 그래 내 영실을 나라의 교육부문일군으로 키울가 하는 생각이요.》

수령님께서 최현과 함께 목은 락엽우에 밤꽃이 아롱진 공지를 거니시며 영실이의 앞날을 그려보시었다. 성장하는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실 때가 제일 행복하시었다. 저 어린것도 씩씩하게 자라 나라의 큰 기둥이 될 때면 우리 조국이 번영의 상상봉에 우뚝 솟아오르리라것을 굳게 믿으시었다. 미래를 안고산다는것은 혁명가의 가장 큰 힘이며 기쁨이다. 인생의 최고락이다.

최현은 호박물주리에 담배가치를 끼우고 맛스레 피웠다. 가느스름하게 쪼프린 그의 눈이 기쁨으로

고요히 빛나고있었다. 그가 천만시름을 잊은듯 담배연기를 폐장 깊숙이 삼켰다가 뿜을 때면 파르스름한 연기가 청신한 대기속으로 무늬를 그리며 흘러퍼졌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자랑스럽게 내들고있는 호박물주리를 스쳐보시며 뜨거운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어언 18년이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마촌에서의 첫 상봉을 앞두고 그이께서는 독립군시절부터 싸움군으로 유명한 그에게 기념이 될만 한 무엇인가를 꼭 주고싶으시었다. 그가 무척 담배를 즐긴다는것을 아시고 여러곳에 줄을 놓아 진귀한 호박물주리를 구하시었다. 그때 최현은 기관총도 아닌 손가락만 한 물주리를 받아들고 대뜸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때로부터 물주리는 최현의 《호신부》로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가 호박물주리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를 수령님께서도 잘 아신다. 언제인가 당의 요직에 있던 허가이가 권력을 등에 대고 물주리흥정을 해보려다가 혼썰난 일이 있다. 그때 최현은 성이 똑같이 나서 범처럼 날뛰었다.

《뭐 어찌구 어째? 시계와 바꾸자구? 여보, 이게 어떤건지 아오? 장군님께서 이 최현에게 주신거요! 장군님의 정이란 말이요. 당신이 흘레브만 먹다나니 그걸 아는가. 당신이야말로 귀물이라하면 제 어머니와도 바꿀 사람이요. 썩 사라지오. 내 전사들에게는 이 물주리를 한모금씩 빨아보게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것마저 어렵두 없소!》

허가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줄행랑을 놓았다. 옷사람이 누구든 귀맛좋은 말을 모르는 최현은 수령님을 단독으로 모시고있을 때면 호박물주리를 입에 물곤 했는데 그것으로 충정과 의리의 천백마디 말을 대신하는것이였다. 지금 작별의 이 시각도 그 물주리가 최현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고있었다.

《장군님, 전선은 넘려마십시오. 이 최현이 있는 한 한놈의 원쑤도 고지에 올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해주십시오. 장군님만 계시면 이 최현은 이깁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진정을 룡감으로 절절히 듣고 계시었다. 소리없는 심장의 언어야말로 혁명가들사이의 끊을수 없는 혈연적누대라고 생각되시었다. 그 누대가 뜨겁게 심장을 달굴수록 수령님께서는 맨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가슴에 없혀 내려가지 않았었다.

《최현동무, 뭐 요구되는게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 하오. 내가 미안하구만.》

《정 그러시다면 장군님, 우리 대대장 한사람이 결원인데 장군님께 부탁하고싶습니다.》

《허, 그야 어렵겠소. 알겠소. 고맙소. 내 똑똑한

사람으로 인차 보내주겠소.》

《장군님, 그럼 전 떠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최현과 함께 돌아서시여 최고사령부 앞마당까지 걸어나오시었다. 최현이 탄 군용승용차가 끝안을 빠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자리에 그냥 서계시었다.

(최현동무, 전투를 바라오.)

수령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었다.

### 3

최현이 전선으로 떠난 다음에도 시간이 퍼그나 흘러 해가 정오를 썩 넘어설 무렵에야 박경수가 돌아왔다. 그는 지계에 지고온 작은 동이만한 단지를 작전실에 내려놓고 땀을 씻었다.

《수고했소. 많이 구했구만.》

수령님께서는 여러문키로가 넘을것 같은 단지의 뚜껑을 열어보시었다. 향긋한 꿀냄새가 확 풍겼다.

《아카시아꽃이구만. 밤꿀도 섞인것 같소. 그래 어디서 구했소?》

《장군님, 청오골 막바지의 로인한테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인이 저와 한가지 약속을 하고서야 ...》

《어떤 약속인데?》

수령님께서는 궁금하시었다.

《예, 사연을 말했더니 다짜고짜로 부모가 큰가 자식이 큰가고 묻는것이였습니다.》 하고 박경수는 청오골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말쑤올렸다.

로인은 말했다. 부모가 있고야 자식이 있는거다.

이 삼천리근역에 력사가 길어 5천년이라지만 조선백성은 부모없는 고아처럼 되어 종당에는 나라까지 잃지 않았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왜놈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구 새 나라를 지켜주시니 이제야 조선백성은 아버이를 모신것이다. 내 그래 전쟁을 이기시느라 침식을 잊으시는 장군님께 드리려고 벌을 치고 꿀을 모아왔다. 지난 겨울에는 저 청오골 동굴속에 숨겨두고 장군님께서 나오실 날만 기다렸다. 장군님 뜻은 고맙기이름데 없지만 꼭 장군님께서 쓰시도록 나와 약속할수 있겠느냐 그 말이다.

박경수는 코허리가 시큰했다. 그만에야 수령님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시여 속타던 마음을 로인에게 털어놓았다. 이번 일만은 꼭 책임지고 성사시키겠노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런 연후에야 로인을 따라 동굴까지 가서 꿀을 가져올수 있었던것이다....

《고마운 로인이요. 인민의 지성을 잊지 말아야지. 수고했소, 경수동무. 어서 가서 식사를 하오.》

수령님께서는 박경수가 희색이 만만하여 단지를

안고 나가려 하자 단지는 두어두고 빨리 식사부터 하고 오라고 이르시였다.

박경수가 나간 다음 수령님께서서는 장영실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온 영실에게 자그마한 사기단지 하나를 내놓으시며 꿀을 갈라 담으라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시키시는대로 장영실은 영문을 모르고 큰 단지의 꿀을 숟가락으로 떠서 작은 단지에 채우기 시작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앉아 부지런히 꿀을 갈라 담는 장영실을 굽어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마치 딸자식과 의논하듯 말씀하시였다.

《영실아, 넌 장차 무슨일을 했으면 좋겠나?》

《예?!》

《방금 점심참에 홍부수상이 왔다갔다. 애육원때문에 몹시 근심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한다. 갓 설립된 애육원이니 할일이 오죽 많겠느냐. 적들의 폭격은 그칠새 없지... 그래서 나도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처녀들을 보내주자고 한다.》

장영실은 머리를 푹 숙이고 묵묵히 하던 일만 계속하며 듣고있었다. 그의 마음속 파동을 알아보시려 표정을 살피시었으나 속내를 대중할수 없으시였다.

불현듯 장영실은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을 우러르는 동그란 얼굴에 어떤 결심이 어린듯 하였다.

《장군님, 저도 요새 순돌이를 두고 많은걸 생각해보았습니다. 박경수아저씨의 말도 있었구...한생군복을 입구 장군님곁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장군님, 무슨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장군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자신께서 차마 꺼내기 힘들어하는 심중을 영실이가 알고 이렇게 나오니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시였다.

《고맙다. 난 네가 평양에 먼저 꾸린 애육원에 가서 원장으로 일했으면 한다. 전국의 시범이 되게 말이다.》

《예?! 제가 어떻게 원장...》

《아니다. 넌 정녀동무의 딸이 아니냐. 얼마든지 원장사업을 할수 있다. 나이가 문제 아니다. 혁명은 나이로 하는게 아니야. 너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게다. 내 뒤에서 힘껏 도와주마.》

《장군님, 알겠습니다.》

장영실은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다 담았냐? 됐다. 이제 며칠후면 떠나도록 하자. 그때 거 큰 단지의 꿀은 네가 건사했다가 가지고 가도록 해라. 몸이 약한 애들에게 먹여라. 그런데

이건 박경수부관아저씨한테 절대 말하면 안된다.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다. 알겠니?》

비로소 장영실은 사연을 알아차린듯 당황해졌다.

《장군님, 그럼?!》

《됐다. 어서 가지구 가거라. 나는 이거면 된다.》

수령님께서서는 작은 단지를 들어 벽구석에 놓인 장을 여시고 깊숙이 넣으시였다. 그러시고 큰 단지를 영실이의 가슴에 안겨주시며 어서 가보라고 하시였다.

박경수가 들어섰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팔걸이결상에 앉으시여 내각에서 올라온 국제녀맹조사단과 관련한 문건들을 보고계시였다. 박경수는 들어서 자바람으로 방바닥과 작전대밀을 두루 살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뭘 찾소?》

수령님께서서는 시치미를 떼시였다.

《장군님...》

박경수가 어물어물 하자 수령님께서서는

《아, 그것말이요? 내가 건사했소. 마음 놓으라구.》 하시며 그를 작전대앞으로 부르시였다.

《경수동무, 여기로 오오.》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해하는 박경수에게 전선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여기를 잘 보오. 최현동무가 말은 전선구역이요. 최현동무가 힘에 겨울거요. 그런데 난 그를 빈손으로 떠나보냈소.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소. 최현동무는 가면서 대대장감을 한사람 보내주었으면 하고 부탁했소. 그래 내 생각에는 경수동무가 어떻게 하는데 동무 의향을 알고싶구만.》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박경수는 어정쩡해졌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싸움에서 단련된 몸에 뻔 투사의 자세로 힘차게 대답을 드렸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하면서도 박경수는 머뭇거렸다.

《무슨 할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하오.》

《장군님, 그런데 최현군단장이 대노해서 절 도로 쫓아보낼가봐 걱정됩니다.》

《하긴 산에서 싸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최현은 박경수가 유명한 기관총수라면서 수령님께 보내였다. 고마운 일이였지만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지휘관으로 키워 도로 보내주시였다. 그통에 박경수는 최현으로부터 된목을 먹었다. 장군님을 잘 모시구 보위하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길래 도로 왔느냐, 장군님께서 아무리 그러신다 해도 혁명가의 량심과 본분을 지킬줄 알아야지, 장군님이시자 곧 조선혁명이구 조선의 운명임을 모른단 말이냐, 혁명의 원리를 모르는 놈같으니라구 하고 버락치듯 하는통에 진땀을 뺐었다. 전쟁이 일자 최현은

수령님을 잘 호위해드리라고 박경수를 다시 부관으로 제의했던 것이다.

《최현동무는 훌륭한 혁명가요. 가서 잘 도와주라구. 경수동무가 나와 최현동무사이에 끼여 마음고생을 좀 하는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며 승리의 원천이 아니겠소.》

《장군님, 저도 그래서 기쁩니다. 다만 장군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것이... 순돌이문제두 그렇구...》

《됐소 그런 말은 맙시다. 이제 준비를 하시오. 래일이나 모레쯤 출발하시오. 빨리 갈수록 좋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청오골로인의 부탁대로 그 꼴만은 꼭 써주십시오. 부관으로서의 마지막 청원입니다.》

《알겠소. 내 깊숙이 전사했다니까.》

하시면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박경수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것을 아시었다.

박경수는 자세를 바로 잡더니 손에 든 문건을 수령님께 정중히 드리었다.

《장군님, 국제녀맹조사단 성원들은 아직 지방에서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그들의 숙식조건과 안전보장대책은 해당 부문에서 철저히 세웠습시다. 이것이 그들의 반영자료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박경수가 드리는 문건을 받아드리고 한장한장 읽어보시었다. 다들 미제의 만행에 치를 떨고있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에 의문을 표시하는 녀성들도 없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문건을 다 보시자 박경수가 다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전 래일아침 곧 떠나겠습니다. 부디 건강에 주의해주십시오.》

《알겠소. 경수동무의 말대로 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눈길로 박경수를 바라보시었다.

## 4

국제녀맹조사단은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영국, 튀니지, 프랑스, 단마르크, 알제리, 쿠바 등 여러 나라의 녀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령님께서 방금 영실이와 어린것을 마당밖에까지 나가시여 바래주시고 돌아서시려는데 손님들 태운 소형 버스가 들어섰다. 수령님께서서는 버스에서 내리는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고 새로 꾸린 방으로 안내하시었다.

책상과 걸상들이 주련이 놓인 방안으로 들어서시는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 허전한 심정을 느끼시였으나 자신의 심증을 살펴보실 계제가 못되었다. 손님들을 앉게 하시고 먼저 그들이 폭격속을 헤치며 우리 나라를 방문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

시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조사하여 세계에 고발하며 조선전쟁의 진실한 성격을 알기 위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어 격식없는 담화가 진행되였다. 밝은 금발머리에 얼굴이 강말라보이는 영국의 모니카녀성이 수령님께 질문을 드리었다. 그는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열린 특별법정공개재판에도 참가해보면서 미국병사들이 신천에서 저지른 만행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2차대전때 세계《평화》를 위해 연합군측에 서서 피를 흘린 미군이 어떻게 조선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지룰수 있었는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였다.

《...외람된 질문이오나 혹시 조선이 역사적으로 미국과 척을 질 일이라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서유럽중심관에 깊이 빠져 미제의 진속을 보지 못하고있는 모니카를 너그러운 아량으로 대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었다.

《그러면 먼저 조선과 미국과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사람들이 태평양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안것은 조선봉건왕조말기이다. 그때 강원도의 통천 앞바다기슭에 풍랑을 만나 조난당한 서양배 한척이 와당았다. 배는 깨지고 선원들은 생명이 위급했다. 조선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으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라 구원해주었다. 조선봉건왕조조차 그들이 돌아 갈 때 배를 수리해주고 식량, 피복까지 가득 실어보내주게 하였다. 조선인민은 이렇게 예로부터 남의 불행을 제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는 도덕의리심이 높은 인민이다. 그런데 그후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 《문호개방》을 강요하면서 침략선《셔먼》호를 대동강에 들이밀어 대포와 총을 쏘아대며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계속된 미제의 군함《체난도아》호 침략사건, 남연군묘도굴사건, 일제의 조선침략을 공약해준 가쓰라-타프트회담에 대해 열거하시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역사적으로 제 땅에 화살 한 번날려본 일없는 우리 나라에 대해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아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선량하고 인심이 후하지만 선의를 짓밟고 불의로 대하는자들에게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모니카는 눈을 내리깔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단마르크의 이다녀성이 수령님께 말씀을 드렸다.

《지금 조선전쟁은 서방세계에 많은 수수께끼를



던져주고있습니다. 그 하나가 청소한 조선군대가 세계의 최강자인 미군과 그 <련합군>을 이겨내는 데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미국기자 스톤은 **김일성**장군은 카드모스를 통과하는 위력을 가지고있다고 썼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겸양의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다선생, 내가 어떻게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군사신을 통과할수 있겠습니까. 카드모스가 던지는 모든 물건은 다 병사가 되였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들이 보다싶이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웃음을 짓히시며 웃으시였다. 그러자 통역들이 웃고 손님들도 따라웃었다. 하면서도 손님들은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함께 호기심을 더욱 금치 못해하였다. 이다가 다시 말씀드렸다.

《맥아더는 <크리스마스공세>의 패전으로 실각되었습니다. 스톤은 맥아더를 라자루를 살려준 그리스도에 야유하면서 압록강계선까지 들어갔던 인민군대가 한달남짓한 사이에 재정비되어 미군을 38도선 이남으로 내몬것은 신화속에서만 있을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재진격작전에서 근 10만에 달하는 적 유생력량을 살상포로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과 남반부의 일부 지역까지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라자루를 묘지에서 되살려준것처럼 맥아더의 실수나 실책으로 달성된 전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자기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신념과 확신에 넘쳐 싸우고있습니다. 생각해보시오. 그 래 자기 집에 뛰어들어 부모처자를 죽이고 가산을 약탈하는 강도를 보고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 아들이 과연 있을수있겠습니까.》

손님들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하면서도 30대의 젊으신 수령님을 우리르며 무엇인가 알고싶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까부터 거의 황홀한 심경에 잠겨 말씀드릴 기회를 찾던 꾸바의 녀성법률가 칸델라리아가 자세를 정중히 바로잡았다.

《장군님, 우리는 방금전 여기로 들어서면서 장군님께서 웬 어린 아이를 안고계시다가 처녀병사에게 넘겨주시면서 바래우시는 모습을 열렬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혹시 자제분이십니까?》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여서 수령님께서는 무춤 놀라시였다. 칸델라리아도 자기의 외람된 질문에 당혹해하였다.

《미안합니다. 장군님, 저는 사실 조선에 와서 전쟁의 그림자라고 하는 류량민들과 전제고아들을 볼수 없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조선간부들에게 그 리유를 물었더니 정부의 인민적시책을 말

해주면서 최고사령관계서도 전제고아들을 키운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전설같은 이야기여서 사실 조사단 성원들속에서는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그 래 그 질문을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니 칸델라리아선생이 가장 무거운 임무를 맡은셈이군요. 하하...》

수령님의 소탈하신 인품에 모든 녀성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분위기는 삽시에 단란한 가정적분위기로 바뀌어졌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선생들이 아까 보았다는 그 처녀병사가 미국비행기의 폭격으로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그 어린애를 구원했습니다.》

《?!》

수령님께서는 긴장해지는 손님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애어머니는 숨이 켜고 아버지는 전선에 나간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구원한 처녀병사는 또 어떤 동무인가?》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정녀에 대하여 그리고 항일무장투쟁과 손에 총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녀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정녀가 어린것을 강보에 싸서 이웃집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날 때와 회생되면서 딸애를 찾았다는 대목에서는 수령님께서도 음성이 갈리시였고 손님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찍었다.

《...우리는 망국노의 설움이 어떤것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피로써 찾은 조국을 다시는 잃지 말자고 해방후 인민이 주어진 새 나라 건설에 일떠섰습니다. 그런데 미제국주의가 또 일본제국주의처럼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뜨우지만 특히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참을수 없는 고통을 들뜨웁니다. 인간생명의 모체인 신성한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참상이야말로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신천에 가보아 알겠지만 미제는 파쑈히틀러도당도 무색케 할 야수적인 방법으로 어머니들과 어린이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낳아 기르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것을 바라지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 어머니와 같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마구 죽이는 승냥이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없을것입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가 선량한 어머니들의 념원을 짓밟고 자식들을 제어머니를 반대하는 승냥이로 만들고있습니

다. 아이젠하워, 트루먼, 맥아더, 밴플리트, 리치웨이 같은 미국장군들과 그 군대가 벌리고있는 조선침략전쟁은 약육강식을 체질로 하고있는 제국주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반역이며 모독이며 부정입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원수를 반대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싸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은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며 미제가 벌리고있는 전쟁은 부정의 전쟁인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는가? 참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손님들의 긴장을 늦춰주시려는듯 미소를 지으시며 화제를 돌리시였다.

《어느날 신이 천사를 불러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것을 세가지 골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지상에 내려와 제일 아름다운것으로 꽃과 어린애 웃음,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들어 추하게 되고 어린애의 웃음도 몇년이 되자 사라지고 변치않고 아름다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입니다. 녀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사랑을 지냈기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는것처럼 그 힘으로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수 있는 제국주의의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흥분하여 가슴을 들먹이였다. 서방 세계의 수수께끼로 되고있는 신생 조선의 힘의 원천을 비로소 선명히 보는듯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걱정으로 설레이는 좌중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조선방문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칸델라리아선생은 처녀의 몸으로 미제의 온갖 위협공갈을 물리치고 거루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영국의 모니카선생은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련합군에 들어가 싸우던 남편을 잃고 반전평화옹호조선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질레르선생은 파쑈 도이칠란드군의 빠리폭격때 외아들을 잃었고 알제리의 아비씨아선생은 프랑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지하투쟁에서 불구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국적과 인종은 다르나 다 제국주의의 전쟁으로 어머니의 참다운 행복과 사랑을 빼앗기고 반제평화옹호조선에 나선 녀성투사들입니다.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량심과 사랑으로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전쟁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될 때 인류의 평화와 어머니들의 사랑과 어린이들의 웃음이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의의 전쟁의 편에 서있는것으로 하여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전쟁에서 세계의 어머니들이 이기겠는가 아니면 미제가 이기겠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갑자기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올랐다. 손님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며 모두 일어서서 수령님께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였다. 모니카녀성이 눈물이 글썽하여 수령님앞으로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긍지를 이렇게 높이 가져보기는 처음입니다.》

《모니카선생...》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칸델라리아가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며 걱정을 터치였다.

《장군님, 워싱턴은 허드슨강변에 <자유의 녀신상>을 세우고 평화를 우롱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평양에 아기를 안고 장검을 추켜든 어머니상을 세우고 평화를 지키고계시는 거룩한 수호자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칸델라리아선생,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 평양에 병사의 동상이 세워질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내세우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흥분한 손님들은 너도 나도 수령님께 다가와 겹겹이 에워쌌다. 격동된 심정을 터치며 자기들의 결의를 저저마다 다졌다. 마지막으로 단장인 카나다의 나이 지속하고 풍채좋은 노라녀성이 수령님앞에 정중히 다가섰다.

《장군님! 제 한생에 오늘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지만 그 어머니를 키우시는 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들의 태양을 보았습니다.》

《파분한 말씀입니다. 노라선생, 나도 조선의 한 평범한 어머니의 아들일뿐입니다. 어머니들의 념원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아들입니다.》

《장군님!》

노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모니카며 질레르, 칸델라리아... 일행을 수령님앞에 나란히 정렬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와 서서 수령님께 깊이 허리를 굽히였다.

《**김일성**동지, 온 세상 어머니들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 5

손님들을 차례우시고 집무실로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잠시 서계시였다. 새로 꾸린 집무실이어서

그런지 서먹서먹한 감이 드시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할것이 없는듯도 하고 허전한 감도 드시었다. 그 리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시었다.

그때 총참모부로부터 전선동부의 쌍봉고지가 아군에 탈환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즉시 최현과 전화련계를 가질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었다. 그의 북관역양이 강한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었다.

천리전선까지 전화가 련결되느라고 지체되는 시간에 그이께서는 그이께서는 최현의 얼굴을 그려보시었다. 그가 곁에 있었다라면 뜨겁게 축하해주고 전투담을 나누고싶으시었다.

사람의 정이란 무엇인지...보이지도 않고 만질수도 없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혈연보다 더 굳게 일심동체로 엮어놓고, 무한대의 힘을 날게 한다.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고 가슴에 간직하는 길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식처럼 머리에 간직되는것이요 하나는 정의 문을 열고 심장에 간직되는것이다. 심장에 간직되고 심장속에서 사는 사람은 때없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피를 설레이게 하며 그리움을 자아내고 열정을 뽐게하고 무한한 원천을 가진 샘물처럼 무궁한 사랑이 솟음치게 한다. 사람의 심장은 비록 작지만 그 작은 심장에 수십수백명이 살수 있고 그 힘으로 고동치는 심장이야말로 위대한것이다...

전화가 련결되었다.

《장군님! 건강하셨습니다까?》

《아 최현동무, 축하하오. 그래 어떻게 점령했소?》

심중에 품고계시던 수백마디 뜨거운 말마디들이 너무도 실무적으로 튀어나와 수령님자신께서도 무중 놀라시었다.

《장군님께서 예비대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

《박경수와 꼴을 말입니다.》

《아, 그 말이요?》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쩡 울리시었다. 박경수가 떠날 때 그이께서는 작은 단지를 지함에 포장하여 차에 실어주시면서 최현동무가 적후에서 불들을 차고 싸우느라 고생했는데 이 보약을 꼭 쓰게 하라고 당부하시었던것이다.

《장군님, 이번에 박경수가 큰 일을 했습니다. 대대전사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멋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난 최현동무가 박경수를 혼내

우지 않을가 근심했더랬는데.》

《예. 사실은 추궁하려다가 그가 꼴을 내미는 통에 그만...제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동무가 글썽 전사들에게 꼴물을 풀어 한모금씩 마시게 하고는 장군님께서 지금 작전대결에 동무들의 자식들을 두고 키우고계신다, 이 꼴은 동무들의 아들딸들에게 먹이시려고 장군님께서 몸소 구하신것이다, 어떤 사랑속에 동무들이 싸우는지 아는가, 결사전에 나서자, 장군님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하고 호소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목이 메시었다. 분명 그것은 박경수 보다도 최현의 소행이고 최현다운 정치사업이었을것이다. 박경수를 데리고 전사들속에 들어가 꼴물을 풀어 한고뿌씩 먹이고 호박물주리에 담배를 끼워 한모금씩 빨게하며 그런 선동을 했을것이다.

《아, 그랬더니 전사들이 와-들고 일어났습니다. 박경수가 대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습격했는데 30분만에 벼락같이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고맙소. 최현동무, 전사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그리구 이젠 방어공사를 잘해야겠소. 적의 새 공세가 예견되고있소. 그것이 <하기공세>로 되든 무슨 공세로 되든 우리는 벌써 적들의 공세에 밀창을 뚫어놓은거나 같소.》

《알았습니다. 장군님, 지금 한쪽으로는 적들의 반동격을 격퇴하면서 한쪽으로 진지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최현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달라졌다.

《왜?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하오.》

《아니 ... 혹시 건강을 상하신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의아해하시었다.

《난 별일없소.》

《그런데 장군님의 음성이...》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시었다.

《아- 그럴만한 일이 있었소.》

비로소 자신을 깨달으시었다.

《방금전 영실이를 바래왔소. 애육원 원장으로 갔소. 가면서 순돌이를... 참 이름을 송남이라고 고쳤소. 데려 갔거든. 그애가 없으니 마음이 설통한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소.》

《장군님!》

최현은 더 말을 못했다.

《최현동무...》

수령님께서도 이 한마디 부르심뿐... 말씀이 끊어진 한줄기 전화선으로 위대한 심장의 박동만이 폭풍처럼 노도쳐가는 이 나라 강산에 봄은 저물고 신틱이 질어 가고있었다.

## 소백수골엔 왜 길이 없었는가

천고의 밀림에 시원을 둔 소백수는 물이 류달리 맑고 흐름이 특이할뿐아니라 겨울의 혹한에도 얼지 않는다.

소백수가 부리는 조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니 해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정일봉에 비끼군하는 무지개도 소백수의 조화요, 수정으로 조각한듯 화려하게 피어나는 서리꽃도 이 소백수의 조화라고 한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라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자 이 성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전설이 창조되어 전해 졌는데 소백수골에 들어서면 발자국이 사라지기때문에 길이 없었다는 전설도 이 소백수의 조화와 인연이 있는 이야기이다.

임오년 정초, 백두산의 날씨는 몹시도 추웠고 폭설까지 내려 골짜기와 봉우리들이 모두 눈에 묻혔다.

어느날 리명수에 사는 포수 한사람이 사냥총을 메고 소백산쪽으로 짐승을 잡으러 갔던적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묻혀 몹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더 고생을 하게 된것은 소백수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때문이었는데 이런 실수는 생전 처음이었다.

백두산기슭에서 나서자란 사람이어서 아무리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도 길을 잃어버린적은 단 한번도 없던 그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된다는 까닭이 있었다.

그것인즉 소백수를 따라가던 그가 되돌아서 오자고 하니 자기의 발자국이 없어진것이였다.

이게 웬일인가? 그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어안이 병병하였다.

눈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돌아갈수 있을텐데 발자국이 없어졌으니 향방을 대중할수가 없었다.

포수는 어림짐작으로 되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완전히 잃고말았다.

그는 리명수쪽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인 압록강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다나니 돌아오는 길은 열흘나마 걸렸다.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이상해하였다.

아무렴 그럴수가 있나? 발자국이 없어지다니...

다른 한 포수가 호기심이 버쩍 생겨 소백산쪽으로 또 짐승사냥을 떠났다.

그런데 그도 소백수를 따라가다가 발자국이 사라지는 바람에 길을 잃어 보름나마 고생을 하였다.

사람들은 그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여름에도 몇사람이 작당을 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들도 역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예 소백산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소문은 왜놈들속에서도 퍼지였다.

왜놈들은 리명수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제놈들의 밀정 두놈이 소백산쪽으로 갔다가 한놈은 겨우 살아돌아왔으나 다른놈은 돌아오지 못하고 숲속귀신이 되고만 사건이 발생하여 그후부터는 소백산이란 말만 듣고도 공포에 질려있었다.

어느날 두 밀정놈이 마을에 내려갔다 돌아가는 유격대공작원을 냄새맡고 몰래 그의 뒤를 추적하게 되었다.

밀정놈들은 저마다 제가 《공로》를 세워보려고 자기 공작원을 추격하였다.

뒤에 꼬리가 달린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격대공작원은 태연히 숲속을 헤치며 소백산쪽으로 가고있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하공작을 하다가 백두산밀영으로 찾아가는 길이였다.

밀정놈들은 저마끔 나무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재 빨리 뛰기도 하면서 공작원을 끈질기게 따랐다.

공작원은 숲속을 요리조리 빠지면서 날개라도 돌힌듯 단숨에 높은 봉우리와 골짜기들을 썰렁 타고 넘어갔다.

힐레빌떡거리며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힘겹게 따라가던 밀정놈들은 소백수를 거슬러올라가다가 웬일인지 갑자기 푹 멈춰서서 눈만 멀뚱거리었다.

공작원이 미행한다는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좁거리를 두고 발자국을 보며 추적하였는데 그만 그 발자국이 없어진것이였다.

주변을 아무리 살살이 살펴봐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두 밀정놈은 저마다 먼저 찾는다고 헤덤비였으나 놈들은 발자국을 종시 찾아내지 못했다.

놈들은 눈이 켜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멈춰하니 땅을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정말 신출귀몰하누나!》

밀정놈들은 비명을 질렀다. 허탕을 친 놈들은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의 발자국도 없어진것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돌아간단 말인가?

유격대원을 추격하느라고 눈을 부릅뜨고 따라온지라 제 발자국을 찾지 않으면 돌아갈수가 없었던것이다. 밀정놈들은 제 발자국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놈들의 발자국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놈들은 어느쪽으로 갈것인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

였다.

두놈은 서로 의견이 달랐다.

《저 개울을 건너 암산을 넘어가야 해.》하고 한놈이 말하면 다른 놈은 《아니, 이쪽 골짜기로 들어가 뒤 산을 넘어야 된단니까》하고 반대하였다.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겨대던 놈들은 종일 다투다나니 맥이 진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얼마만에야 제 정신을 차린 놈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떠 나갔다.

그러니 둘은 서로 반대쪽으로 갔던것이다.

그러나 이놈도 저놈도 다 제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한놈은 죽을 고생을 다하며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한달만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다른 한놈은 종시 돌아오지 못했다.

소문에는 아마 산짐승에게 잡혀먹히웠을것이라고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왜놈들은 소백산쪽엔 머리도 돌리기 무서워하였다.

어떻게 발자국이 사라졌을까?

많은 의혹을 안고있는 이 전설은 지금까지 그저 흥미있는 이야기로 전해내려오고있었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밀영이 있는 소백수굴에 외인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게 땅이 조화를 부린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을 찾으시여 하신 뜻깊은 말씀을 전해듣고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이 전설이 창조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으로 나드는 사람들이 소백수로 다니였기때문에 발자국이 생기지 많아 누구도 골안에 비밀근거지가 있는줄을 알지 못했다고 감회깊은 회고를 하시었다.

그러니 소백수가 사람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린것은 사실이요, 그것이 사람들속에서 전설로 전해지고있는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 우 경

## 우리 장군님과 총

김 재 원

탄생하시여

처음으로 눈에 익힌것은

백두전장에서 불뿜던

두자루의 권총!

첫돌 경축날에

백두산아들이 받아안은

첫 기념품도

정일봉의 이깔로 소중한 다듬은

총, 총이었다

천품으로

총과 인연이 맺어지신분

총대는

장군님의 다정다감한 생활이였고

운명의 전부이셨다

하여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유산도

빨찌산총이였고

우리 수령님

자신의 한생을 넘겨주시듯

넘겨주신 공직도

이 나라 국방을 위한 최고사령관

총대직분이 아니시던가

자유분방하시다

우리 장군님의 총대관! 총대의 세계-

태양 빛나는 그 세계는

맑은 하늘에 봄비돌기 자유로이 날고

푸른 대지에 핀 꽃들

영원히 불구름 모르는 세계

그 세계를 가꾸려 우리 장군님

오늘도 천리전선과 전선을 넘어

찾으시는 련합부대, 들리시는 중대마다

자신의 지향과 의지, 그 총체들 넘겨주시듯

총대부터 안겨주시는것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장군님

총대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웃으시여도

총대를 보시며 지으시는 웃음

가장 호탕하시다!

아아, 총대는 총대는

우리 수령님 한생이시고

우리 어머님 한생이시고

총대는, 총대는 곧

**김정일!** 우리 장군님 전부이시다

## 주체소설문학의 뿌리깊은 거목

-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더듬어-

신영호

대지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목은 모진 광풍에도 드너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 무성한 가지를 치며 푸르싱싱 자라는 법이다.

우리 주체소설문학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년 드너지 않는 초석인 혁명적문예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돌아켜보건대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 주체소설문학의 거창한 숲을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거목들을 몸소 가꿔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다시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백두밀림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적 문예전통에 든든히 뿌리박은 우리 소설문학의 거목들가운데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몸소 발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9(1970)년 2월 14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주체 소설문학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소설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우리는 세기를 이어 혁명의 심오한 철리를 더욱더 뜨겁게 되새겨주며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이 소설의 문예사적지위와 사상미학적감화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원작의 심오한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혁명소설의 고전적

본보기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주체시대의 기념비적대작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간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준 주체소설문학의 대걸작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문학은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매개 인간,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이며 사활적인 운명문제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자주정신은 문학의 생명으로 되며 그 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를 원작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냈다.

일제의 강도적요구에 순종하여 주구단체인 《자위단》에 들어가 노예로 사는가 아니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사는가 하는것이 원작이 내세운 심각한 문제성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소설이 제기한 인간문제의 철학적깊이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의 심오성과 그 형상적해명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갑룡이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며 동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나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여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고 어질고 순박하기만 한 농촌청년으로 등장한다.

그는 비록 일제놈들이 살판치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자기의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지식을 위해 지리리 고생하며 홀로 늙어온 아버지와 자기만을 믿고있는 사랑하는 금순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친구인 철삼의 권고를 듣지 않고 놈들에게 순종하여 《자위단》에 들어간다. 이것은 갑룡이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당시 사회의 본질을 옳게 보지 못하고 왜놈들에 대한 그릇된 환상까지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온갖 고통과 굴욕을 참아가며 《자위단》에 들어

가 치욕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한 갑룡이는 뼈저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절하게 깨닫게 되며 원수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참된 삶의 길을 찾을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분연히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이리하여 작품의 종자는 갑룡이의 운명을 통하여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

주인공 갑룡이의 비극적운명은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이 작품의 종자에 대한 하나의 생동한 해답이며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조선인민은 온갖 사회적불행과 민족적 수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생활적진실의 예술적확인이다.

소설은 주인공 갑룡이를 비롯한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왜놈의 종살이를 하는 한 개인의 행복도 부모에게 효성하려는 자그마한 녀원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 오직 일제식민지통치제도를 때려엎고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가정의 행복도 자신의 운명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세상에 나온지도 수십년이 되어오지만 세기가 교체된 오늘까지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있다. 그것은 이 원작이 혁명문학이 내세워야 할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전횡과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미제의 압살책동에 굴복하여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첨예한 생사기로에 놓여있다. 이 엄혹한 정세하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의 생사운명을 구원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원작의 내용을 구현하고있는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생결단의 투쟁이 벌어지는 준엄한 선군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오늘도 자기의 사상예술적위력을 변함없이 과시해나가고있다. 여기에 원작의 심오한 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혁명소설의 영원할 가치가 있으며 허물수 없는 문예사적지위가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다음으로 예술적형상화의 수준에 있어서 소설문학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기념비적절작이다.

소설은 성격문학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성격의 전모를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펼쳐보이는데 다른 문학형태에 비할수 없는

소설문학의 우월성이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이러한 소설문학의 특징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명작으로 된다.

소설은 우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뒤생활을 여러모로 탐구하여 깊이있게 전개하는데서 모범을 보여 주고있다.

작품은 그토록 피눈물나는 생활의 고통을 참아가는 갑룡이의 성격의 전모를 성격발전과 생활발전의 론리에 맞게 밝혀내기 위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의 효성선을 탐구하여 깊이있게 추구하고있다.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모진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단호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대기는 갑룡이의 성격적바탕에는 자기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늙은 아버지의 여생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는데를 자식된 도리로 생각하는 그의 생활적신념이 강하게 깔려져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는 류량의 길에서 안해를 잃은 부친이 어린 갑룡이를 품에 안고 여기저기 헤매이며 젓동냥을 하느라 집집의 문전을 두드리던 기막힌 과거생활을 탐구하여 전개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갑룡이의 남다른 효성이 이루어지게 된 생활적바탕을 더욱 명백하고 진실하게 안겨주면서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뚜렷이 살려내고있다.

이와 같은 뒤생활형상은 독자들로 하여금 뼈저린 생활체험을 통해 점차 각성하여 이제 더는 일제와 그 주구놈들에게 순종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극한점에 이르러 서도 아버지에게 화가 돌아갈것이 두려워 결정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모대기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 리해하게 하며 애타는 동정으로 가슴조이게 한다.

이밖에도 원작을 옮긴 영화나 가극에서는 한마디의 대사와 노래로 형상되었거나 함축되고 생략된 뒤생활들이 여러모로 탐구되고 깊이있게 전개되고 있다.

아버지의 60돐 생일과 갑룡이의 잔치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뒤생활, 목재판에서의 생활, 철삼이와 만식이의 가정문제, 덕산목재소주인의 최악적인 생활, 《자위단장》병갑이의 특무생활경력, 만식이 《자위단》에서 도망친 후 경옥의 면회장면, 눈도 감지 못한채 쓰러진 총살당한 만식의 피에 랑자한 시체를 안고 사나이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는 갑룡의 모습 등은 그 생동한 실례로 된다.

소설은 또한 성격발전의 주요계기들을 심화시키는 생활세부들을 적극 탐구하여 생동하게 형상하고 내면심리 묘사를 생활과 밀착시켜 그려내는데서도 묘사문학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그려진 덕산목재소 파업장면에 대한 묘사는 그것을 생동하게 실증하여준다.

극작품에서는 한달전까지만 하여도 함께 먹고 자고 일하던 정다운 사람들의 생활적요구를 총대를 들고 막아나서지 않으면 안된 갑룡이의 처지를 극적정황에서 행동과 표정, 몇마디의 대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다면 소설에서는 그러한 행동묘사, 외형묘사와 함께 그의 내면 심리세계를 분석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내고있다.

그처럼 따뜻이 보살펴주고 없는 돈을 모아 행복을 축하해주던 그 다정한 사람들앞에 총대를 메고 나타나 일을 하라고 요구한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기를 끝없이 저주하는 갑룡의 심리적고통, 백성들의 피를 손에 묻히기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속삭이던 만식의 뜨거운 숨결을 귀전에 느끼며 이제라도 당장 그들을 따라가자고 불같은 충격에 가슴이 뛰는 갑룡의 심리적과동. 그러나 짓물린 눈곱에 눈곱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것이 지지하게 고인 흐릿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보는듯 한 아버지의 모습과 《애야, 부디 너는 경술한것을 하지 말아라. ...》 하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모대기는 갑룡의 심리적변화과정에 대한 진실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깊은 정서세계를 펼쳐보여준다.

특히 갑룡이와 친구들이 총살당한 만식의 시체를 묻는 생활세부를 탐구하고 만식의 죽음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주인공의 심리적변화과정을 소설적으로 깊이 전개한 장면묘사는 새로운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작품의 소설적면모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한다.

그 언젠가 금순이와 함께 면회온 경옥이가 오빠를 만나지 못하고 갑룡이에게 주고간 보선을 죽은 만식의 부어오른 발에 신기며 가슴을 쥐어뜯는 갑룡이, 진눈까비 날리는 음산한 바람속에서 거칠고 차거운 언땅밑에 널 쪼각 한장 가리지 못하고 알몸뚱이로 묻힌 만식의 엉성한 무덤속으로 사정없이 흘러드는 얼음물을 손으로 막으며 빠져린 후회와 자책속에 잠긴 갑룡이의 내면세계와 심리적변화과정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는가.

이러한 심리묘사는 앞에서 축적된 감정세계와 밀착됨으로써 민족의식, 계급의식에 눈뜨는 갑룡의 성격발전과정을 원작에 기초하여 소설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진실한 생활적형상으로 펼쳐보여줄수 있게 하여준다.

소설은 또한 심리묘사와 함께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상을 안겨주는 초상묘사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내면심리는 물론이

고 그의 외적용모와 행동에서도 나타나기마련이다. 특히 인간의 미묘한 심리적움직임은 그의 얼굴표정에서 예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초상묘사를 잘하는것은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주인공 갑룡이가 사상정신적으로 점차 변모되어가는 성격발전과정을 초상묘사로 잘 반영하고있다. 어리무던해보이던 갑룡이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각성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그의 눈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소설은 계급적각성이 무딘 그의 초기성격을 《우묵하게 들어간 눈자위》에 비유해 그랬다면 만식의 죽음장면에서는 《어질고 조심스럽게 빛나던 우묵한 작은 눈에는 거칠고 사나운 빛이 흐르고있었다》고 쓰고 있으며 작품의 절정인 아버지의 죽음장면에서는 《우묵한 눈확속에 있는 두눈은 금방 갈아놓은 비수처럼 시퍼런 살기를 뽑었다》고 묘사하고있다.

여기에서 갑룡이의 눈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그의 생김을 구체화하고있는 묘사인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속에 계급적원수들을 미워하는 사상이 점차적으로 체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묘사인것이다.

인물의 내부적체험이 심화되고 성격적특징이 발현 될수 있는 정황과 계기들에서 주인공의 심리묘사와 함께 초상묘사를 적절하게 배합하여줌으로써 작품은 인물의 성격을 생활적으로 깊이 파악하게 하고 그의 개성적 면모가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를 포착하게 하는데서 소설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영화와 가극에서 보여줄수 없었던 뒤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 높은 형상적수준에서 감동깊이 펼쳐보여줌으로써 혁명소설의 사상에 술적풍격을 뚜렷이 드러내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이 소설이 세월이 흘러도 시대의 명작으로 영원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여러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의 빛나는 결실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문학사적지위와 생명력을 더듬어보느라면 그 토대에서 역세계 자라난 우리 소설문학의 무성한 숲에 대하여 긍지높이 자부하게 된다.

백두의 혁명전통에 억센 뿌리를 내린 우리 소설문학은 어제도 오늘도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줄기차게 발전하고있거니 주체소설문학의 거목-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력사와 시대앞에 남긴 여운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다.



## 특별렬차로 보내주신 소

주체88(1999)년 2월 8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전연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전투임무수행형과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고지에서 고지로, 전호에서 전호으로 쉬임없이 걸음을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전사들이 어떤 밥과 국을 해먹고있는가 친히 가마뚜껑도 열어보시였으며 부식물은 어떤것을 먹는가 창고의 부식물 마대도 헤쳐보시였다.

부대군인들의 식생활수준은 그만하면 괜찮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에 성차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얼굴색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건강상태가 어떤지 가늠해보기도 하시였다. 참으로 다심하고 사려깊으신 어버이이시였다.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속에 모두가 건강하고 부러운것없이 생활하고있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병사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러시고 부대에서 돌아오신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급히 달려온 일군들은 그이께서 낮에 돌아보신 전연부대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실것으로 생각하며 수첩을 펼쳐들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돌아본 전연부대전사들에게 송암명기소목장소를 보내줍시다, 그러면 군인들이 몇끼 잘 끓여먹을수 있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를 몇마리 보내주면 충분할것인가를 친히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낮에 부대를 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그토록 군인들의 식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부식물창고에 들리시면 제일먼저 어떤 고기류가 있는가 알아보시였는지 그제서야 리해가 되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하루세끼 고기를 푸짐히 먹이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다. 고기도 여느 고기가 아니라 맛좋고 영양가높은 소고기같은것을 마음껏 먹이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도이다.

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취사장에 들리시여 부식물가운데 고기가 있는가 어떤 고기인가 세심히 살펴보시였고 량을 눈저울질해보시며 매 군인들에게 얼마만한 량이 돌아가겠는가 암산도 해보신것이다. 그이께서는 그때 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지만 마음은 전사들의 밥그릇에 가계시였고 그들의 입맛을 헤아려보고 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에게 고기를 마음껏 먹이는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전연부대에 시급히 소를 보내주자고 하시였다. 즉석에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를 어떻게 실어보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자동차로 보내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자동차로 실어보내면 길이 멀고 험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소들이 여월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왕 보낼바에는 한시바삐 생신한 소를 그대로 보내줍시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소들만 따로 실은 화차를 편성하여 전연부대까지 직송하도록 하시오라고 명령하시였다.

일군들은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감격에 휩싸이였다.

소를 실은 특별렬차.

세계화물수송력사에 이런 특별렬차가 있었다는 말을 누구도 아직 들어본적이 없었다. 인민군전사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이런 특별렬차도 생겨날수 있다.

다음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연부대장병들에게 보내시는 호합진 소들을 가득 실은 특별렬차가 전속으로 전선지구를 향하여 달리였다.

모든 렬차들이 길을 내였다. 모든 도중역들이 즉시 통과신호를 보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보내시는 소를 실은 특별렬차를 타고 바래우는 철도일군들의 눈가에도 운전대를 잡은 기관사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어리였다. 하물며 당사자인 군인들의 심정이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조국의 전연고지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만세!》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일당백병사들의 가슴마다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맹세가 더욱더 세차게 타번졌다.

## 《휴양소》

김진경

백사장의 하얀 모래불,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 송림속에 들어앉은 밝은 색깔의 건물들... 휴양소는 나에게 즐거운 추억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강계닭공장을 돌아보고난 지금에는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와 동행하였던 일군의 이야기였다.

몇해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는 길로 공장전경부터 살피시었다.

아늑한 골짜기, 병풍처럼 둘러선 산밭들, 조잘대며 흐르는 시내물, 그 내가를 따라 띠엄띠엄 널려져 있는 밝고 깨끗한 건물들...

장군님께서서는 명당자리에 공장을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풍치도 좋고 건물들도 특색있다고 꼭 휴양소에 온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어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고기가공직장앞에 이르시었다.

현대적미감에 맞게 붉은색지붕에 조화를 잘 맞추어 벽체는 《옥돌관》을 붙인것처럼 장식을 하고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굵도리까지도 파유리를 써서 섬세하게 치레를 하였는데 그 착상이 특색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멀리서,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보시다가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굵도리부분을 만져보기까지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어서 와서 보라고, 이것은 파유리로 장식한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 보기도 좋고 자금도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었다.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안광엔 행복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일군의 말을 들던 나의 가슴엔 쿵 마쳐오는것이 있었다. 장군님의 기쁨, 그 행복의 순간! 우리 장군님에게 휴식의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어느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우리 장군님, 허나 이 순간에만은 만시름을 잊고 행복에 잠겨계신 것 아닌가 장군님도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다.

휴식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나 인간의 휴식은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인민을 더 잘 살게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할수 있겠는가... 그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장군님이시었다.

포근한 요람속에 아이들을 잠재우는 행복한 저녁비내리고 바람부는 차디찬 언덕길로 진창에 빠진 차를 밀고 가시는 장군님 그 모습을 이 나라 너인

들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내 언제나 몸가까이 받아안으면서도 위대한 어버이사랑의 깊이를 다는 올렸으니 이것이 진정 크나큰 행복인줄 오늘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맑은 공기처럼, 푸른 바다처럼, 아름다운 노을처럼 너무도 크고 위대한것이여서 이 작은 심장으로 써는 느낄수도 가늠할수도 없었다.

그 사랑, 그 헌신으로 북방의 산간벽지 닭공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먹이게 된것이 너무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에게 있어서 휴식은 곧 인민의 행복이며 인민의 행복은 곧 그이의 생활의 전부이시다. 그렇다, 휴양소는 지리적개념이나 기관의 사명과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있는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의 휴식이 보장되는 곳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려는 《휴양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강땅에는 얼마나 많은 《휴양소》들이 수풀처럼 일터였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1 세기의 표본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강계포도술공장, 평양사람들이 왔다 울고 가겠다고 하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신 강계닭 내포국집, 장군님 이름지여주신 랑림의 꽃동산마을, 그이께서 찾아주시었던 홍주닭공장과 홍주청년1호 발전소, 2호발전소 그리고 상업관리소의 뽕밭과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들, 학교와 립산마을, 양떼가 흐르는 등판길...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공장과 일터, 도시와 마을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알뜰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21세기의 표본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러 그이께 대만족을 드릴수 있었다. 하기에 장군님께서는 늘 자강도를 잊지 못해 찾아오시는것이다.

오시여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자강도사람들이 일을 잘하니 정이 간다고, 자강도에 계속 오고싶고 오면 가고싶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이 뜨거운 말씀은 자강도인민들의 눈굽을 적시여준다.

나의 가슴도 젖어든다.

휴식을 모르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건만 그이의 마음속엔 잊지 못할 《휴양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자강땅이라고!

나는 평양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아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일터에도 꼭 오십시오.

바쁘신 현지도의 길에 잠깐 들러 순간이나마 쌓이신 피로를 풀어주십시오!...

# 극성으로 총만된 신비의 세계, 별의 세계를 펼치며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별의 세계》를 두고-

리 금 희

저 하늘의 별세계는 언제봐도 신비롭다. 어느 작가가 묘사했듯이 하늘의 한쪽 귀퉁이를 두들기면 주르르 소리를 내며 바글바글 뿔듯 싶은 황홀한 별무리 별무리...

유정히도 반짝이는 사랑스러운 별이여, 너는 어이하어 그리도 빛나는것이나. 어이하어 그리도 한 모습 변함이 없는것이나.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별의 세계》(정기종작)는 속삭여준다. 별은 태양이 있어 빛난다고 태양이 있어 언제나 정확히 자기의 궤도를 돌고 돈다고...

태양의 눈부신 빛발, 거대한 인력으로 하여 별들이 그리도 아름답고 영원하다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을 번져가는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그저 범상히 안겨오지 않는다. 별 하나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며 밤가는줄 모르고 별의 바다를 헤엄쳐가던 유년시절처럼, 평온한 그 별빛에 희망을 엿어보던 낭만적인 소녀시절처럼 《별의 세계》에 심취되는 우리들의 넋, 그 매혹된 넋속에서 이 진리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싣고 의미심장하게 새겨지는것이니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작품의 건인력, 글줄은 끝났어도 가슴에 파고드는 그 강한 여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것인가?

썩으면 썩을수록 진맛이 우러나오는 깊이깊은 생활철학의 뿌리에서 오는것인가? 감각적이고도 분석적인 묘사의 그윽한 향기에서 오는것인가?

물론 작품에 뻗어나간 그 뿌리, 화폭마다에 넘치는 그 향기도 우리의 넋을 역세계 거머잡는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를 격동시키는것은 이 모두를 걷어 안고 모가 나게 격렬하게 파도쳐흐른 강렬한 정서, 작품의 비상한 극성이다.

일반적으로 극성은 극적인것에서 우러나오는 강렬한 정서로서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깊숙이 끌어들이 거기에 담겨진 생활의 진리를 추상적으로, 판조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우리 펼쳐보는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 극성은 무엇에 의해 조성되고있는가? 작품을 극성으로 총만시킨 요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 1. 위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

오늘날 주체문학의 정수를 이루는 우리의 수령형

상문학은 위인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묘사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의 극성을 높은 수준해서 보장하고 있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여기에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있다.

작품에서 화폭의 중심에는 위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꾸준하고도 완강한 헌신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을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령장의 불멸의 영상이...

좋은 날, 편안할 때 마련된 승리였다면 우리 이다지도 눈시울 뜨겁지 않으리라. 중중첩첩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속에서 총대를 앞세우고 안아온 승리여서, 신념과 배짱,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온 패승이어서 온 세계는 그렇듯 격동되고 환희로 들끓은 것 아니던가.

한두명도 아닌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한꺼번에 데려온것은 참으로 기적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산산이 부시고 두터운 분렬의 장벽에 굽직한 통금을 낸 극적인 사변이였다.

소재자체가 이렇게 강한 극성을 띠고있는 작품은 순수 그것을 현상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인간학, 성격문학의 본도에 맞게 그런 극적인 사변을 안아오시기까지의 장군님의 위대한 심중의 세계, 내부적체험세계의 탐구으로 형상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태양의 고마움은 그 빛과 열로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향기그윽한 열매들, 이 세상 만물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보이는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줄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태양의 속성이 발현되어 이루어진 현상이지 태양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태양을 보여주려면 말그대로 그 태양을 직접 정면으로 그려내야만 할것이다.

위대한 인간태양,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리치는 마찬가지로이다.

수령을, 위대한 태양을 칭송하는 작가라면 마땅히 그 빛과 열이 스며드는 이 행성의 여기저기를 더듬기에 앞서 눈부신 태양을, 뜨거운 그 태양을 눈길들어 면바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왜 그 빛이 그리도 찬란한지, 왜 그 열이 그리도 뜨거운지 그 근원을, 그 내면세계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깊이있게 펼쳐보여야 한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는 수령형상문학의 이런 생리에 맞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부적체험세계에 직접 육박해 들어가 감동깊게 재현해내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장군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 김정숙어머님과와 생생한 교감속에 올라나오는 그이의 내면독백은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어느 한 사격장을 찾으시여 가슴에 꽉 차있는 온갖 아픔과 눈물과 비장한 각오를 무성게 불을 토하는 총대에 담아 터뜨리시던 피눈물의 해 주체 83(1994)년의 마지막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총대가 불을 토합니다, 수령님께서 키워오신 총대가 있고 억척같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꼭 이길것입니다... 라고 수령님께서 자신의 총대신념, 선군의지를 말씀올리신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둔 주체 89(2000)년 6월 13일 이른새벽 그이께서는 또 무엇을 생각하시였는가.

그이께서는 아득한 어린 시절 말을 타고 달리시던 자신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단번에 길들여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겨보신다. 굴함없는 투쟁정신과 기어이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크나큰 공적을 생각하신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올리신다. 기어이 비전향장기수들 모두를 데려오고야말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 김정숙어머님과의 교감속에서 올라나오는 장군님의 심중의 토로는 그이께서 안아오신 모든 승리가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 뜨거운 충성심의 산물임을 확증해주고있으며 동시에 작품의 극성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원래 내면독백은 인물의 내면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형상수단이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호상 주고받는 말도 작중인물의 내면세계를 어느정도 보여줄수 있지만 이를 직접 드러내는 내면독백보다 더 위력할수는 없다. 때문에 내면독백을 어떻게 적중히 리용하였는가에 따라 성격이 잘 드러날수도 있고 가리워진채 묻혀버릴수도 있는 것이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함에 있어서 내면독백이라는 이런 효과적인 형상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고있는바 우리는 바로 거기서 뜨거운 충성심과 드센 배짱, 억센 신념과 의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분노로 격렬하게 고패치는 령장의 그 심중의 세계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커다란 극적감흥을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작품에서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은 그것이 첨예한 극적정황에 대한 긴장한 묘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어 더더욱 극성을 예리하게 돋우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최전연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사람들이여, 더듬어보시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한치한치의 길, 빨찌산식으로 강행군해오신 그 눈물겨운 자욱자욱을... 그것은 진정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다, 죽음을 맞바나아가는 비장한 정신으로 찍혀진 결사의 자욱자욱이었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는 사생결단으로 엮어진 선군혁명실록의 이 무수한 갈피가운데서 초도 방어대를 찾으셨을 때의 가슴조이던 극적정황이 인상깊게 펼쳐지고있다.

10분, 늦어서 15분이면, 가당을 길이었다. 바다모양이 사나운것을 계산해도 장군님을 모신 쾌속단정이 못해도 15분이면 초도에 이를것이다. 그러나 숨막힐 정도로 더디게 흐르는 시간, 시간...

5분... 6분...

8분... 9분...

10분이 가고 15분, 20분도 지났다.

그처럼 더디게 느껴지던 시간이 이제는 사정없이 줄 달음친다. 30분이 지나가고 또 40 분, 50분이 사람들의 심장을 찢어발기며 맹렬히 다우쳐온다.

하건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이의 쾌속단정.

무서운 불안과 무시무시한 상상으로 숨이 킁 막히는듯 한 이 긴박한 정황속에서 장군님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배길을 넘려하시는 수령님과 뜨겁게 나누시는 그이의 심장의 대화...

《일없습니다. 수령님, 안심하십시오. 고난과 시련은 저에게 차례진 운명이 아닙니까.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뚫고 승리를 안아오기 위해서 **김정일**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제는 수령님께서도 계시지 않는데 제 어찌 잠시나마 쉬여갈수 있으며 위험을 멀리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수 없는 제가 아닙니까. 제가 남들처럼 쉬여 가기라도 한다면 수령님께서 남기신 조국통일위업은 언제 가야 이루겠습니까. 또 수령님께서 것처럼 마음쓰시던 비전향장기수들은 언제 가야 데려오겠습니까.

수령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들끓는 바다를 보십시오. 여기에 번개가 치고 우뢰까지 온다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하기에 저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산악같은 파도가 기슭을 들부시지 않는다면 그 무슨 바다의 성격이겠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없이 얻어진 승리야 무슨 기쁨이며 자랑이겠습니까!... 풍량이 잦아들면 바다는 고요히 설레일것입니다. 그 물결우에 금빛노을이 번져갈것입니다.

수령님, 저는 폭풍 뒤결의 그 엄숙하고 신비로운 바다의 노래를 듣고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수령님, 저는 웃으며 가고있습니다!...》

작품에서 내면독백장면이 적지 않지만 초도의 배길에서 울려나오는 장군님의 이 마음속웨침이 류달리 우리에게 크게 들려오고 심장을 뛴뛰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 장면에서 장군님의 마음속격정이 강하게 폭발될수 있는 극적정황을 첨예하게 잘 조성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즉 기다림의 순간순간을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고 살점을 도려내는듯 한 시간의 촉박감속에서 긴장하게 펼쳐보인 까닭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간의 심리는 허공중에서 불현듯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생활토양속에 뿌리를 박고 싹트고 줄기를 뻗치고 아지를 친다. 구체적인 생활을 떠난 사색, 구체적인 정황을 떠난 인간의 감정정서란 있을수 없다. 때문에 문학창작에서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면서도 순수 추상적인 심리추구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정황을 펼쳐보이는데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정황을 극적으로 날카롭게 조성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치도 소리가 잘나는 울림통마냥 이를 매개물로 하여 울려나오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보다 극적으로 크게 공명시킬수 있으며 결국 작품의 극성은 배가로 증폭되기마련이다.

이와 같이 위인의 비범한 내면세계에로 대담하게 깊이 침투해들어갈 때 그리고 그 내부적체험세계를 공명시켜주는 구체적인 생활정황을 극적으로 첨예하게 펼쳐보일 때 수령의 형상에 극성이 보장된다는것이 장편소설 《별의 세계》를 번지며 우리가 찾게 되는 첫번째 결론이다.

## 2. 독특한 개성의 탐구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명무명의 참된 별들이 그려지고있다. 거기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별, 청백색으로 눈뜨는 별, 큰 별, 작은 별들도 있다. 이 무수한 별들가운데서 작품은 통일애국투사 김인서동지를 원형으로 하는 김진서의 형상에 력점을 두고있다. 그러면서도 그

와 밀접한 관계속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독특하게 그리고있어 김진서의 형상을 돋구고 나아가서 작품의 극성도 인상깊게 살리고있다.

그런 인물들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하정례이다.

초기의 그의 모습은 《망가진 축음기》한가지이다. 김진서가 삶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불타는 인간이라면 하정례는 한때 꿈도 많았지만 한순간 《벼락》(그는 놈들에게 온 식솔을 다 학살당하는 참변을 겪었다)을 맞아 《미쳐버린》녀자, 끝없는 증오와 멸시, 무자비한 복수열에 불타는 《특이한》녀자이다.

《망가진 축음기》처럼 깨어진 소리만 울리는 괴벽한 처녀, 것처럼 결연히 싸움터에 나섰고 남몰치 않게 몸바쳐싸워왔지만 어찌선지 마주서면 불편해지고 추워지기만 하여서 처음 만나는 순간 진서에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처녀였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내닫는 정열적인 처녀 하정례는 증오도 남달리 무섭게 했고 복수의 불길도 세차게 활활 지펴올린다. 그런 녀자였기에 변절자에 대한 서리발 증오를 안고 기어이 하늘끝에라도 찾아가 죽여버리고야 말 복수심을 품고 가짜전향을 하여 출소한다. 변절자를 잡아죽이면 또 옥에 갇힐것이고 그러면 함께 싸우던 동지들도 리해해줄것이라고 자신을 위안하며... 하진만 야속하게도 10여년 세월 추적하기만 하고 끝내 배신자를 복수하지 못하는 하정례, 그래서 나중엔 본의아닌 《전향자》의 오명을 쓰고 숨어살지 않으면 안되는 녀인.

끝없는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달리 운명이 그려졌으면 하고 한가닥 희망도 품게 되는 인물이지만 작품은 그를 자기의 성격론리를 따라 자기 고유의 길을 걷는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그려놓고있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에서 하정례와 같은 류의 녀성 형상은 처음이라고 본다. 많은 경우 작가들은 자기의 녀주인공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별의 세계》의 하정례는 미모의 현숙한 녀성도 지성적으로 다듬어진 세련된 녀인도 생기발랄하고 명랑한 녀자도 아니다. 딱딱하고 독살스럽기까지 하며 누가 뭐라든 제멋대로 놀아대는 《특이한》녀자이다. 그 형상에서 울려나오는것은 고르롭지 못한 《망가진 축음기》소리뿐이다.

허나 그 소리를 들으며 독자들은 팔살을 찌프리고 하정례를 질시하는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고 한없이 동정한다. 보라빛공상속에 살던 처녀에게서 웃음과 꿈과 랑만을 깡그리 앗아간 원썬놈들을 독자들도 끝없이 증오하기에, 그의 이지러진 성격 깊은 곳에 보석처럼 묻혀있는 강한 정의감과 자유분방함, 용감성과 결단성 그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끌

어당기기에...

작품에서는 변절자 차일평의 운명 역시 김진서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도록 특색있게 처리하였다. 특징적인것은 작품에서 변절이전의 초기모습이라든가 변절하기까지의 사상적부패과정 등을 보여주는 도식화된 형상부분은 대담하게 생략하고 그대신 그의 마지막몰골을 보여주는데 주되는 붓끝을 돌리고 있는것이다.

수많은 동지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저 하나의 목숨을 건진 차일평, 그 대가로 이자에게 차례진 운명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원한품고 쓰러진 사람들의 저주와 규탄, 평생 변성명을 해가며 숨어살지 않으면 안되는 두더지생활, 어느 뉘의 한방울 눈물의 배웅도 없이 인생을 종말짓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죽음... 이것이 변절자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차일평의 마지막운명을 보다 비참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작품은 그의 형상을 딸 조아라와 밀접히 결부시키었다.

림종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허둥지둥 제 혈분이를 찾아헤매는 차일평, 이 짐승같은 늑에게도 자식을 그리워하는 몸부림치는 정이 있다. 그래서 평생 딸을 찾아 헤매지만 최후의 피신처인 혈육에게서마저도 버림을 받는다. 죽음의 계선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 정다운 혈육들이 손저어부르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찾아와 영원한 생의 노래를 부르지만 삶을 치욕과 바꾼 불쌍한 변절자는 악취만을 풍기며 파리페의 장송곡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처박히고 마는것이다.

차일평은 작품에서 최동환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차일평이 외견상 점잖고 잘 생긴 달변가라면 왼쪽볼에 칼자욱 비슷한 흉터가 나있어 협상국계 보이는 최동환은 물풍스러운 어조에 그나마도 말이 적은 《보충소제대》같은 성격이다. 이들은 가는 길도 서로 각각이다. 한쪽은 추악한 변절의 길, 다른쪽은 변함없는 투쟁의 길...

하지만 가슴아픈것은 최동환이 차일평과 같은 변절자로 동지들로부터 고향을 받고있는것이다. 속시원히 아니라고 항변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허나 그는 말이 없다. 안타깝게도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할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적탄이 그의 입을 뚫고 들어가 이들과 허를 갈라놓았던것이다.

가슴속엔 하고싶은 말이 억장으로 쌓였으되 한마디도 할수 없어 자신은 물론 자식 또한 남다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여기에 이 인물이 안고있는 처절한 극이 있다. 수십년세월 갇은 악형을 다 받으면서 혁명적지조를 지켜왔건만 동지들에

게서 너절한 변절자로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그래서 남보다 더 처참한 삶을 지탱해온 최동환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동지들의 품에 안겨 영생의 별로 빛을 뿌린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극적인 성격들이 김진서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통일애국투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참된 삶의 진리,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길만이 영생의 별로 빛나는 길이라는 진리가 강한 극성을 띠고 장엄하게 메아리치도록 하고있다.

이 우렁찬 메아리는 우리에게 새겨주고있다. 작품에서 극성을 보장하려면 작중인물들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가지고 극적으로 형상되어야 한다고, 독특한 개성으로 물들여진 극적인 성격창조야말로 형상전반의 극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라고...

### 3. 극적인 구성조직

극성은 결코 고립되고 정지된 생활에서는 나타나 오지 않는다. 인물들 호상간에 맺어지는 다양한 극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전개되며 독자들의 마음을 조였다 늦추었다 하는 줄거리의 긴장감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구성은 바로 형식의 측면에서 극성을 조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 총만된 강한 극성은 극적인 구성조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작품의 구성조직에서 매우 인상적인것은 조아라와 설정과 그 형상이 가지는 극적효과이다.

조아라는 작품의 주요인물들인 김진서와 하정례, 최동환과 피의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일곱살내기 어린 소녀를 바로 최동환이 지리산빨찌산에 데려왔으며 김진서가 그를 가르쳤고 하정례 역시 아라와 혈육이상의 깊은 애정으로 얹혀져있다.

작품에서 아라가 단지 김진서, 하정례, 최동환과만 연결된 인물이라면 그의 설정은 평범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변절자 차일평과도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어 설정 그자체가 심각한 극성을 띤다.

빨찌산의 딸이면서도 변절자의 딸인 아라, 여기에 그의 모순이 있고 고통이 있었으며 전반생을 변절자인 차일평에게서 멀리 달아나는데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쓰라린 고뇌와 괴로움이 있었다.

작품에서 아라는 이렇게 비전향장기수와 《전향자》, 변절자 등 다양한 유형의 주요인물들과 운명의 곡절속에서 뿔뿔히 떨어져 떨어져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은 극적인 인물로 설정되고있다.

아라의 형상은 줄거리발전에서 더욱더 극적효과를 가져온다.

소설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오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선과 김진서를 중심으로 하

는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선이 기본줄거리로 굽직하게 뻗어나가고있는데 장군님의 령도선은 주로 현재형으로, 김진서선은 많은 경우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과거형으로 형성되고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줄거리를 과거형으로 보여주는 경우 즉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회상의 수법으로 보여주는 경우 그 회상의 생활적타당성, 진실성, 극적견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적중한 계기를 바로 찾는것이다. 계기가 적중해야 회상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며 계기에 극적흥미가 실려야 줄거리가 긴장성을 띠고 굴곡있게 흐를수 있는것이다.

작품은 그 계기점, 그 지탱점을 바로 아래에게서 찾고있다.

출소후 채석장에서 고역을 치르는 김진서에게 날아온 한장의 쪽지편지. 거기에는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상한 늙은이의 간절한 부탁이 씌여있다. 아라의 행처를 묻는, 알고있으면 꼭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 김진서의 뇌리에서 40여년전의 과거를 거슬러 추억의 갈피가 한장한장 번져진다. 소년시절 아라가 생활했던 지리산빨찌산에 대하여, 아라를 딸처럼 사랑해주던 하정례에 대하여...

수상한 늙은이의 끈질긴 부탁은 계속된다. 그럴수록 진서의 추억도 깊어진다. 변절자에 의한 빨찌산의 피멸, 그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아라와의 리별에 대하여, 자기의 체포경위에 대하여...

아라를 애타게 찾는 귀신같은 늙은이가 다름아닌 변절자 차일평이고 아라가 그의 딸이라는것이 밝혀진후에도 독자들에게서 가셔지지 않는 의문, 아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왜서 종적을 감추었는가? 더없이 천진만만하고 총명한 그 소녀가 과연 변절자의 딸이 옳긴 옳단 말인가?

아라에 대해서는 그가 김진서의 딸 화순에게 자기의 인생행로를 고백하는 마감부분에 가서야 명백히 밝혀진다.

작품은 이와 같이 지리산빨찌산의 산 증견자인 아라가 줄거리발전에 적극 작용하여 김진서에게서 회억의 쪽문이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하면서도 안개속에 싸인 그의 전모를 서둘러 드러내지 않고 독자들의 극적 흥미를 돋우며 근기있게 숨겨오다가 나중에 가서야 로출시킴으로써 줄거리가 극적긴장감이 나게 뻗어나가도록 하였다.

추악한 변절자의 딸인탓에 오래동안 이국땅에서 숨어살아야만 했던 아라, 그러나 종당에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새롭게 태어나는 지리산의 딸 아라는 비록 작품에서 불과 몇대목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내용을 진실하게 거슬러 보여주는데서 그리고 줄거리의 극성을 조성하는데서 윤풀유와도 같은 큰 기여를 하였다.

형상전반에 기름기가 돌게 하고 탄력이 보장되게 한 아라와 같은 인물의 설정과 그 형상은 구성을 극적으로 짜나가는데서 하나의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의 구성조직에서 볼 때 최수진의 형상 역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는 변절자로 오해를 받는 최동환의 유복자요 어제날 지리산빨찌산 정치위원이었던 리재명과 전쟁로병 서산옥의 양아들이다.

어느덧 중년나이에 이른 수진은 금속공업부의 국장으로까지 되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철도사고를 일으켜 사고심의가 진행되던중 두텁게 먼지오른 문건철에서 불쑥 튀어나온 변절자의 망령.

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자기에게 친아버지가 있다는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더러운 변절자의 아들이라니?!

해명하려고 뛰어다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막을 잘 알듯 싶은 양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리산빨찌산출신이거나 당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최동환이라면 이를 갈며 저주하는 판국이다. 끝내 그는 변절자의 아들이라는 치욕의 루명을 쓴채 로동단련현장에 내려가 번민속에 허덕인다.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단 한명의 연고자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변절자의 아들로 지탄받는 수진, 이제 과연 그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렇게 작품은 수진의 운명을 암담하게 벼랑끝에 몰아붙임으로써 독자들에게서 극적기대감과 호기심이 부쩍 동하게 한 다음 퍼렇게 웅어리진 그 운명의 어혈이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비로소 풀려지는것으로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실사 친아버지가 변절자라고 한들 그를 누가 키웠는가, 조국을 위해 피흘려싸운 훌륭한 두 로병이 키우지 않았는가,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파오까지 책임져야 하겠는가고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들 모자의 가슴속 괴로움을 깡그리 가셔주시기 위해 최동환이 정말 변절자인가 하는것을 재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다.

그이께서는 이미 사망한 리재명에게 지리산빨찌산에 대하여 쓴 수기가 있었다는것을 아시고는 파지속에 묻힌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진 그 수기장을 기어이 찾아내도록 하시며 거기에서 최동환과 관련되는 그 어떤 실머리라도 찾으시려 밤새도록 회미해진 글줄들을 애써 뜯어보신다. 그리고 남쪽에서 병환에 시달리는 김진서에게 사랑의 선물보약을 보내주시는 기회에 그것을 전해주는 일군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 최동환의 진짜 내막을 끝끝내 알아오도록하신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망막속에 변절자로 락인찍혀졌던 최동환을 신념과 의

리의 참된 별로 온 세상에 빛뿌리게 하시며 죄의식과 고민속에 영원히 시들면 했던 그 아들의 운명에도 재생의 활력을 부여하신다.

최수진의 설정은 이렇게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 동지애의 세계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장군님의 형상선과 비전향장기수들의 형상선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고 융합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다른 총서작품들과 달리 북과 남 두 지역을 기본생활무대로 펼치고있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두 생활선이 시종 합치되지 못하고 제각끔 흐를수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평행선을 그을번 한 두선이 자연스럽게 교차와 융합을 이루고있는바 두 선의 교차점, 두선을 접근시킨 점점이 다름아닌 최수진 인것이다. 《변절자》 아버지때문에 고민하는 최수진이라는 인물이 있음으로 하여 한 혁명전사의 모태감을 덜어주시려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장군님의 형상선과 몸서리쳐지는 감옥생활을 더듬으며 그의 아버지를 추억하는 김진서의 형상선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줄기차게 마주 달려올수 있었다.

극성조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수진은 아라와 쌍벽을 이루고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진짜변절자와 거짓변절자의 자식들인 이들의 형상은 작품에서 류다른 이채를 띠면서 인간관계조작과 줄거리흐름에 부단한 극성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이 가져온 극적효과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작품에 몇장면 나오지 않는 아라에 비해서 수진은 시작부터 끝까지 많이 등장한다. 허나 묘하게도 극적효과는 많이 등장한 최수진보다 적게 등장한 아라쪽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있다. 생활화폭의 밑바닥에 깊이 묻어두면 둘수록 독자들은 아마도 거기에 더 큰 기대와 호기심을 품기때문이라.

하지만 작품에서 수진은 순수 극적효과만을 노리면서 무작정 묻어두어서는 안될 인물이였다. 그는 필연적으로 작품에 많이 등장해야 했다. 그래야 장군님선과 김진서선의 확고한 통일을 보장할수 있기에...

## 4. 빠른 묘사속도의 보장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는 묘사속도가 매우 빠른것이 특징적이다.

그 빠른 묘사속도는 우선 고도로 함축된 생략과 비약에서 오고있다.

흔히 작가들은 말한다. 장편소설은 잡담을 요구한다.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런데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는 잡담이 없다. 가능한것 꼭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인것들만을 선택

하여 고도로 집약화, 집중화하였다.

작품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면서도 《가차없이》 형상한 하정례, 그의 초상묘사를 보라. 류달리 팔이 길다든가, 해골갈이 여위였다는가 하는것이 전부다. 여기엔 번다스러운 라렬도 무의미하게 파고든 집요한 세부탐구도 없다.

하정례에 대한 심리묘사는 또 어떤가.

《원칠한 키에 목소리도 걸걸하다. 나는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한테 대뜸 빨려들어 가는듯 했다. ... 사실 박종하야말로 부리부리한 눈에서 웃음이 샘솟는것 같은 미남자였다. 그가 웃고있는데 그럴수록 나는 고드름처럼 얼어붙는것을 느꼈다.》

소설에서는 박종하에 대한 하정례의 야릇한 심리가 이처럼 단 두마디 《빨려들어》 간다, 《고드름처럼 얼어붙는》다로 간단히 묘사되였다.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 이 짙막한 표현에서 독자들은 하정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움트는 박종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선명히 감수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움트는 그 감정의 싹을 애써 짓밟아버리려는 처녀의 모순된 심리를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이렇게 형상창조에서 군말이 없고 잡담이 없으니 가장 특징적인것, 가장 인상깊고 본질적인것에만 눈길이 모아진다. 자연히 잡념이 없어지고 사색과 편상에 속도가 실린다.

작품의 빠른 묘사속도는 또한 다양한 변화와 굴곡에 의해서도 담보되고있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현재에서 과거어로, 과거에서 다시 현재으로 자유분방하게 형상의 노를 저어갔는가 하면 회상장면을 펼친 가운데 또 다른 회상을 겹놓기도 하였다. 아라를 찾는 수상한 쪽지편지를 받고 김진서가 40여년전의 생활을 더듬어 보는 대목에서 회상속에 나오는 인물인 하정례가 진서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일장토설하는 부분이 그 전형적인 레이다.

뿐만아니라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던 하정례가 《전향》했다는 뜻밖의 소식, 변절자인줄 알았던 최동환이 비렬한 음모의 희생물이였음을 알게 되는 눈물겨운 장면, 리재명이나 최동환의 딸일것으로 짐작되던 아라가 차일평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등 전도법이 리용된 여러 형상화폭들도 작중인물들과 독자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정서적 파동과 굴곡을 재치있게 조성하였다.

형상에 충만된 이런 다양한 변화와 굴곡은 사품쳐 흐르는듯 한 전진감, 속도감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것이다.

작품의 빠른 묘사속도는 또한 소설에서 선택한 적중한 문장류형들에 의해서도 보장되고있다.

어떤 류형의 문장을 즐겨쓰는가에 따라서 작품은 속도있게 읽히울수도 있고 지루하게 흐를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복합문도 쓸수 있고 확대문도 구사할수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지면 독자들에게 피곤을 조성하고 하품만 자아내게 할뿐이다. 긴것보다는 될수록 짧은것을! 이것이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문장선택일것이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 문장들은 짧다. 간단 명료하다. 긴 복합문보다는 단일문을, 중압감을 주는 확대문보다는 단순문을, 완결된 문장보다는 중단문, 명명문을 활발히 리용하고있다.

《끌어구였다.

주절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가세요, 쉬고 가세요 하고 속삭여주는듯...

얼마나 많이 달려왔던가 잊고계시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물처럼 밀려드는것을 느끼신다.

그이께서는 자문을 열고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신다.

꿀짜기의 내물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온다. 크고 작은 바위들을 감돌아내리는 산촌의 물소리, 그 물우에도 별빛이 내릴것이다. 산기슭에 암팡지게 둘러앉아 고요히 잠든 개암나무며 짙레꽃덩굴엔 이슬이 돌을것이고 좋은 밤이다.

싱그러운 숲의 향기에 취하여 고요히 눈을 감으신다.

핑- 휘둘러지는 느낌... 달콤한 피로...》

보는바와 같이 우의 레문에서 거의 전부가 단순문, 단일문, 중단문, 명명문이다. 단순하고도 변화무쌍하며 명백하고도 여운이 짙은 이러한 문장형태

들은 생활화폭들에 동적인 탄력을, 빠른 속도감을 부여해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생략과 비약, 변화와 굴곡, 적중한 문장류형들의 선택등으로 준마와도 같이 내닫는 빠른 묘사속도를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처럼 논리에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흐르는 이러한 묘사속도는 독자들을 작품세계에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극성을 조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묘리라고 본다. 군더더기, 잡담이 없이 변화무쌍하게 탄력있게 흐르는 문장의 자자구구를 톹으며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의 형상 세계에 숨돌릴 틈없이 빠져들면서 바로 그속에서 형상에 쏙아박은 생활의 진리를 자기의것으로 심장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때문이다.

×

극성으로 충만된 작품의 세계, 별의 세계는 정녕 신비로웠다. 참신하고 독특했으며 모가 나고 격렬했다. 화폭마다에 소용돌이치는 이 극성의 회오리속에서 독자들은 태양과 별사이에 작용하는 위대한 동지애의 법칙을 뜨겁게 절감한다.

하거늘 우리의 궁지높은 총서문단에 또 하나의 영근 별로 빛을 뿌리는 《별의 세계》여, 그 유독한 채광으로 너는 만사람의 심장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주리라. 통일애국투사들처럼 신념과 의리로 살 억센 의지를 위대한 태양만을 믿고 따를 불타는 일념을!

## 가사

# 장군님과 병사들

김 충 기

전선길에 날 저물고 별이 솟을 때  
장군님마음속엔 병사들생각  
잠시잠간 만났어도 잊을수 없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그려보시네  
아 나의 병사들  
잘들 있는 지금도 잘들 있는지

전호가에 날이 밝고 해가 솟을 때  
병사들 마음속엔 장군님생각  
천리길도 멀다않고 찾아오시던

자애론 그 품을 못잊어 그리네  
아 우리의 장군님  
안녕하신지 오늘도 안녕하신지

장군님은 병사들의 친아버지  
병사들은 장군님의 친아들딸  
운명의 한피줄로 굳게 이어진  
장군님과 병사들을 가를수 없네  
아 장군님과 병사들  
정과 뜻으로 맺어진 한식술이라네

## 그 여인이 바라는것

장기성

내가 사는 고충살림집 4층의 다섯세대중 세집이 아들딸모두를 인민군대에 내보낸 총대가정들이다.

그중 5호집은 세 아들과 막내인 딸까지 군대에 내보내고 지금 50대 여인이 홀로 생활하고있다.

그는 처녀시절 녀성고사총수였다고 한다. 제대후 상업봉사망에서 일하다가 자원하여 도로관리공이 되어 근 20년간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50년대병사였던 그의 남편은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오래 기능공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시기 기대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 집 두 아들은 남편의 생존시에 군대에 내보내고 셋째아들은 강행군시기에 입대시켰다.

지난해 봄에 그 여인이 막내인 딸마저 군대에 내보내려고 학교와 구역으로 찾아다닐 때 이웃집녀인들은 그를 만류했었다.

이제 딸마저 군대에 내보내면 홀로 적적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더구나 병약한 몸이 아닌가, 아들이 조국보위초소에 모두 나섰으니 딸만은 일없이 앉겠는가, 집생활형편을 생각해서 잘 생각해보라.

했으나 여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의 딸도 한학급 녀학생들이 앞다투어 군대에 탄원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여 선뜻 나서지 못했었다.

그것을 알게 된 여인은 딸을 앞에 앉혀놓고 준절히 타일렀다.

지금은 선군시대이며 이 시대에 첫째가는 공민의 의무가 조국을 보위하는것이다, 조국이 있어야 어머니도 있고 너희들의 행복도 미래도 있는것이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어머니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응당한 도리이며 이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남자녀자 가림없이 누구나 다 나서야 하는 중대사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국보위초소에 섰던것이다,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보다 더 값높은 삶이 어디에 있겠니, 너는 이 어머니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5호집녀인은 딸마저 인민군대에 내보내며 네 남매군인의 후방가족, 총대가정이 되었다.

녀인은 평양앞에서 군복입고 떠나는 딸을 바래우며 이런 당부를 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내다오. 둘째, 셋째 오빠들처럼...》

술하에 애지중지 자라는 자식을 멀리 조국보위초소로 떠날보낼 때 어머니로서 해주고싶은 말이 그 얼마나 많으랴만 여인은 이 말만 하였다.

그는 말이, 둘째, 셋째 아들을 배웅할 때도 이런 당부를 했다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초소는 나라의 하많은 초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소이며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군민은 최고사령관동지께 누구보다 충성다하는 군인이다! 녀인의 인식은 이러했으며 따라서 군대로 나가는 자식들 모두가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청춘도 생명이 서슴없이 바칠것을 절절히 바라는 자기의 간절한 당부를 한것이였다.

녀인의 집에는 이미 영광의 기념사진이 세 상이나 걸려있다. 한 상은 녀인의 남편이 전연초소에서 복무할 때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며 두 상은 둘째, 셋째 아들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들이다.

녀인은 저녁 텔레비존방송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군부대시찰보도가 나오면 우리 아들부대가 아닐가 하여 눈을 밝히고 귀들구어가면서 시청하며 방영시간이 너무 짧아 안타까와하곤 했다.

그런 보도를 들으면 다음날 아침 옆집인 우리 집문을 두드려 신문을 빌려가곤 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기를 그 몇번...

드디어 어느날 신문에 실린 영광의 기념사진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순간 그가 어찌나 높이 탄성을 터쳤는지 우리 집에까지 들려왔었다. 녀인은 가슴벅찬 그 기쁨을 혼자만 느낄수 없었던지 신문을 들고 우리 집으로 달려와 《우리 둘째가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여기예요!》하고 자랑했다. 그럴 때면 50대후반기 여인이 라기보다 흥분하기 잘하는 사춘기처녀의 기분상태가 되는듯 했다.

지난해 그 집 셋째 아들이 그런 영광을 지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녀인은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군부대시찰보도만 들으면 그렇게 흥분하고 기대를 앞세우곤 했다. 막아들과 지난해 입대한 딸도 그런 최상의 영광을 지닐 시각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것이다.

5호집녀인의 그 심정은 두 아들, 딸모두를 군대에 내보낸 우리 집이나 다른 총대가정들에서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감정이라고 할수 있다.

녀인의 마음은 항상 아들딸들이 서있는 초소에도 향해있다. 그는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하지만 직장에서도나 인민반에서 진행되는 군대원호사업에 언제나 적극적이다. 위문편지와 함께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털깡창, 솜장갑, 목달개 등이 수백개에 달한다. 그 하나하나를 초소에 선 제 집 아들딸들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정성들여 만들곤 한다.

나는 너인의 심정, 너인의 소행을 두고 뜨거운 감동을 금할수 없다.

겉보기에는 체소하고 수수하여 별로 눈띄우는데가 없어도 자그마한 너인의 가슴에 그 얼마나 뜨겁고 숭고한 녀이 깃들어있는가.

세 아들에 딸 하나, 네 자식을 낳아키웠어도 가정적인 효도는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하기에 조국을 위해 모두를 인민군대에 내보냈을뿐아니라 그들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초소에서 장군님을 만나뵙는 병사가 될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너인의 마음!

그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효도는 위대한 장군님

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인것이다.

그의 심정이자 곧 이 나라 하많은 총대가정의 어머니들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애국적인 녀성들이 낳아키운 아들딸들이 신성한 공민적의무와 자각을 안고 총대로 나라를 지키기에 우리의 군력, 공화국의 국력은 막강하고 무적필승인것이다.

두 자식을 다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나로서도 너인의 고결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끌린다.

우리 나라에는 이런 총대가정이 많고도 많다.

앞으로 나라의 모든 가정이 총대가정으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 병사시절이여

김 준 호

이제는 멀리  
그 시절을 떠나왔다고  
내 때로 너를 잊은적 없었더니  
수호의 군복 땀으로 적시며  
정보로 수놓아온 나의 병사시절이여

하루밤에 몇백리를 달리고도  
지칠줄 모르던 그 시절의 열정  
온몸이 눈사태에 묻히면서도  
초소를 뜰줄 모르던 그 시절의 자세  
내 정녕 잊고 신적 없었더니

참으로 그렇다면 병사시절이여  
내 얼마나 부끄러울것이나  
아직도 할 일 많은 옛 병사의 자옥우에  
그 시절의 정신 내려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뼈속깊이 배였던  
그 시절의 땀내 총기름내  
나도 모르게 이 몸에서 빠져버리고  
명령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병사의 기개마저 잃게 된다면  
오호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나

한생에서 가장 값높은 시절  
그 시절의 군공의 빛을 흐리우는  
그런 때가 순간이나마 내게 있었다면  
그것은 스스로  
나의 그 시절을 욕되게 하는것

그렇더라 병사시절이여 너는  
나도 한때는 병사였다는  
위안만을 주는 시절이 아니다  
그 시절 참으로 보람찼다고

추억속에만 간직할 시절도 아니다

그 시절을 거친것도 영예이지만  
한생토록 그 시절에 사는 마음이  
더더욱 자람이며 영예이거니  
돌격선을 내닫던 그 시절의 용맹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위훈속에만  
참으로 빛날 병사시절이여

안고 살리 내 언제나  
그 시절을 안고 살리  
힘에 부치는 일감이 나서도  
그 시절 담력으로 다 말아나서고  
시련의 령이 또 앞을 막아도  
그 시절 기백으로 다 뚫고 가리

내 자옥마다에서 언제나  
병사의 군화소리가 쟁쟁 울리게  
내 숨결마다에서 언제나  
병사의 정신이 높이 내려치게

심장의 불길로 그 시절 안고 살리  
위훈의 기발로 그 시절 안고 살리  
장군님 선군의 뜻 받들어가는  
내 인생의 주로에 전진만이 있게  
내 한생의 결승선에 우승만이 있게

하여 병사시절이여  
나에게도 그 시절이 있었음을  
자서전의 글줄에서가 아니라  
내 걸음새에서 조국이 알게 하리  
내 모습속에서 시대가 알게 하리  
아 병사시절이여  
영원히 가지 않을 내 삶의 길동무여!

## 민족의 향취, 참신한 맛

김 덕 선

민족의 향취는 민족고유의 기호와 정서, 풍습과 관련되는 민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민족적특성은 그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다 있는것이지만 단일민족으로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민족의 이채로운 정서로 하여 가지가지 아름다운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있다.

그 간단한 실례를 보더라도 사계절마다에 있는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조선옷의 특색과 음식맛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자랑이라 할수 있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민족의 우수성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 애족, 애민사상으로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분야에서나 우리 민족이 지닌 민족성이 민족자주정신으로 전면적으로 개화되어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우리 식대로 펼쳐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본래 민족적인것이다. 매개 나라의 문학예술은 그 나라 민족이 창조하고 향유하는것만큼 그 나라의 고유한 민족언어와 예술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삼는다.》**

시문학부문에서 민족적인 정서를 취급한 서정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인민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서정시 《보름달이 왔소》,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김정철작)은 좋은 싹을 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자아낸다.

그것은 민족의 정서를 취급한 시들이 적게 씌여지고있는데로부터 새롭게 맛보게 되는 기쁨과 함께 그 참신한것에 이끌리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의 향취란 무엇이며 참신한 맛이란 어떤것인가?

시 《보름달이 왔소》는 우리 인민이 조상전래의 민족적전통을 살려 즐기는 정월 대보름날 달을 맞이하는 풍습에 대한 시라고 말할수 있다.

달에 대한 노래는 옛 시인들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씌여졌으며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시작품으로서는 우리의 기억속에 인차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구전가요 《정읍사》를 비롯하여 《달을 바라보며》(박인로), 《달맞이》(김소월) 《금야만에 달이 뜬다》(김철), 최근에 발표된 《6. 15는 밝은 달》(오영재), 《밝은 달아》(김희종)등 많은 작품을 들수 있다.

그러나 시 《보름달이 왔소》는 이와는 달리 달과 관련되는 우리 민족의 풍속적감정을 오늘의 선군시대와 결부시켜 달에 대한 미감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형상하고있다.

...

보름날에 일찍 자면 눈섭이 센다고  
들판에 얼음판에 오구작작 저 사람들  
천하를 비치는 너의 그 거울속에  
이 밤도 고조선의 쥐불이 타고있다  
이 밤도 고구려의 그 뽕이가 돌고있다

달같은 님을 보자 님같은 달을 보자  
울넘어 담넘어 널뛰던 너인네들  
너는 오늘도 그네들의 정을 담아  
저 하늘에 휘영청 밝은 초롱불을 켜들었는가

이 시는 정월 대보름날의 달을 우리 민족풍속이 담긴 이야기와 련관시킴으로써 보름달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고유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있다. 그러나 시는 그 풍속적인 전통만을 전하거나 그 풍속적인 정서를 답습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의 풍속적인 정서를 오늘의 시대적감각과 결부시켜 시의 정서를 시대정신으로 더 높이 승화시켜나가고있다.

...

어찌 보면 이해의 정월보름달은  
우리 군대 그 걸음에 발맞추자 등둥  
온 나라를 부르는 선군의 쇄북인가  
발자의 푸른 등이 그앞에 커진  
통일의 렬차의 등그런 쇄바편가

아 어버이장군님 그 품속에서  
만월로 가득찬 우리의 행복  
둥근달은 우리의것  
이리봐도 저리봐도 다시 봐도  
밝은 달 보름달은 조선의 달

보는바와 같이 이 시에서 달에 대한 정서는 어제 날 고조선인민들이 쥐불놀이를 하고 고구려사람들이 팽이를 치며 맞이하던 달, 그리운 사람을 그리며 쳐다 보던 그러한 달만이 아니다.

이 시에서 설정된 정월보름달은 어제날의 민족풍속적인 정서를 그대로 안고 오면서도 오늘은 그 달이 군대의 걸음에 발을 맞추자고 뚝뚝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적환상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시인에게서 그것은 마치도 선군의 쇄북소리로 들려오며 통일렬차의 둥그런 쇄바퀴로 보여오기도 한다.

여기에 민족의 정서를 오늘의 선군시대의 미감에 맞게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킨 시의 형상적특징이 있고 오늘의 보름달을 느끼는 시인의 정서가 가지는 민족의 향취와 참신한 맛이 있다.

옛 사람들은 달을 제일 먼저 보면 그해에 행운이 차례진다고 하였고 총각이 솟아오르는 달을 먼저 보면 올해에 장가를 들수 있다 하고 새색시가 달을 먼저 보면 새해에는 아들을 본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다.

이것은 행복을 소원하던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민속적인 념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달이 그런 행복을 가져다주었던가.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그 달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고 인민이 바라는 그 모든 꿈과 소원이 꽃피나고있다.

하기에 시는 오늘의 보름달은 장군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안고 오는 보름달이 되어 우리를 안겨 맞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이렇게 결구를 맺고있다.

해마다 커만 가는 우리의 만복을  
싹누런 쟁반에 가득히 쟁겨들고  
너는 오리라 정월도 보름이면  
싱글벙글 웃으며 멀리서부터  
《내가 왔소, 보름달이 왔소》

소박하면서도 꾸밈새없는 이 한편의 자그마한 시에는 보름달이 솟아오르는 생동한 생활표상과 함께 그 달이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싣고 오는 달이라는 데 대하여 감명깊게 노래되었다.

하여 이 시에는 아득한 고조선시기부터 즐거운 때 묻지 않은 민족의 소박하고도 깨끗한 정서가 그대로 안겨오고있을뿐만아니라 달에 깃들여있는 우리 인민의 그윽한 정서가 시대의 행복한 모습으로 더 부각되어 달이 가지는 의미와 뜻을 더 깊게 해주고있다.

여기에 이 시가 가지는 민족적정서가 있으며 달

에 대한 정서를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형상한 시인의 재능이 있다.

시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은 우리 인민이 전통적으로 즐기는 봄명절에 분홍저고리를 펼쳐입고 나선 녀인들에 대한 노래이다.

분홍저고리-이는 우리 조선의 녀성들이 조상전래로 즐겨입는 민족의 이채로운 의상이며 여기에 우리 민족정서의 전통적인것이 비껴있다.

그것은 색깔에 있어서 울긋불긋하거나 진한것보다도 밝고도 선명하면서도 연하고 부드러운 색깔을 즐기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도 관련된다.

이 분홍저고리의 색깔이 시로 되자면 분홍색갈의 의미를 느끼는 시대적감각이 있어야 하며 이 감성적감각이 시대의 사상을 안고있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의미와 사상이 시적소재에 맞게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게, 지극히 생활적이면서도 감칠맛이 있게 형상됨으로써 시의 정서를 새맛이 나게 하고있다.

분홍저고리를 펼쳐입고 그네터로, 옷놀이터로, 씨름터로 가는 녀인들에 대해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소백수의 진달래에 물들여지고  
철령의 진달래에 붉게 물들여져  
폭풍속을 헤쳐어도 눈비속을 거쳐어도  
흐려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은  
분홍저고리 분홍저고리

이 시적표현으로 하여 분홍저고리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그 색깔이 가지는 뜻이 심화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 하는 심원한 사상을 낳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아름다운 그 모든것의 우수한 민족성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그 원천을 두고있으며 오늘은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우리의 민족성이 주체성과 더불어 전면적으로 꽃피나고있다.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한 백두밀영의 소백수흐르는 고향집이 없고 장군님께서 오늘에 헤쳐가시는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이 없다면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도 그 우수성도 빛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가까운 실례로 조선이 일제에 의하여 강점당하였을 때 일제놈들은 우리 인민이 입고 다니던 흰옷에 먹물을 뿌려 어지럽히며 민족의 뉘, 조선의 뉘를 빼앗기 위해 얼마나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던가. 그러한 야만적인 폭행속에서도 조선의 뉘를 빼앗을 수 없었던것은 그 뉘를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서 제시였기때문이다.

민족의 전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 전통을 고수하고 지켜주는 위대한 정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정도자에 의하여 민족성은 더 빛나게 된다.

시는 바로 이러한 심오한 사상을 분홍저고리색갈이 소백수의 진달래에 물들여지고 철령의 진달래에 물들여 지고있다는것으로 표현하였다. 하기에 그러한 분홍저고리는 그 어떤 폭풍에도 눈비에도 덮여 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것으로 보고있다.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진 시적표현인가.

오늘 세계가 정치적인 혼란속에 부대끼며 자기 민족의 전통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동화되어 자기 민족의것이 아닌 이색적인것이 범람하는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그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고 지켜주는 정도자가 없기때문이다.

시는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성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자량과 슬기를 평범한 봄명절에 너인들이 펼쳐입고 나선 분홍저고리에서 짓고 그 눈부신 빛발로 누리를 물들여 갈 래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량을 소박하고 친절하면서도 정이 흘러넘치게 잘 노래하였다.

그 누구의 시야에나 흔히 보여오는 평범한 분홍저고리의 색깔, 여기에 민족의 전통이 있고 민족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볼줄 아는 시인, 그는 확실히 민족적정서를 자기 시의 정서로 구현하기 위하여 남다른 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창작적재능에 앞서 그가 생활을 대하는 자세와 립장, 창작에 립하는 사색이 무엇에 원천을 두고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이 지니고있는 민족의 우수성은 곧 자기 정도자의 위대성에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심장에 체현한 시인만이 이러한 시를 쓸수 있는것이다.

두편의 시에 대한 정서를 분석해보면서 스칠수 없는것은 민족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인것만큼 시에서 민족적정서를 살리기 위한 시적운물조성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이다.

시에 운물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되는데 우의 시들은 시적정서를 살리기 위한 운물조성에서도 일정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대 자유시 운물조성이 가지는 일련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사를 주고있다.

두편의 시를 놓고 공통점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은 시의 운물조성에서 7. 5조와 4. 4조운물형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있는것이다.

시 《보름달이 왔소》를 보자.

반갑다/반가워라/성실한/벗아/  
강성하는/조국의/흥하는/집집들이/  
즐거운/좌석에/너를 맞아/들이나니/  
둥근달이/없이야/밝은 달이/없이야/  
그 어찌/보름이교/그 어찌 명절일가/

시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 경우에도 그러하다.

복술강아지/달랑달랑/앞서는/  
느티나무/저 아래/휘늘어진/그네줄/  
하얀/버선발로/사뿐히/밀어차면/  
모내기/끝낸 벌이/밭밀에/오락가락/  
구름너머/전선길도/마주울듯/가물가물

다음은 레중한 시련에서 찾아볼수 있는바와 같이 시적운물조성을 위한 4. 3음절군과 3.4음절군을 운각으로 하여 반복, 교차를 줌으로써 시의 박자와 흐름새를 잘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시의 운물을 살린다고 하여 글자수에 매달려 정형 시의 운물을 답습하는 형식적인 구애를 벗어나 현대적미감과 정서에 맞는 자유시의 운물을 고전적 형식미가 가지는 우월성을 혁신적으로 갱신하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시의 절제미와 함께 정서의 기복을 호흡물에 맞게 시의 음악적인 물동을 보장함으로써 시는 운물에서 과격적인 요란한 웨침이 아니라 안정된 운물의 조화로 하여 소박하면서도 친근하며 다정한 정이 흐르게 하였다.

우의 시는 민족적정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소재의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시적종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의 운물을 통한 서정을 탐구하기 위한 열정의 산물이다.

이와 함께 이 시들이 민족적정서를 살리는데서 거둔 성과의 하나는 시어에 바쳐진 시인의 탐구적인 노력이다.

두편의 시들에는 유순하고도 부드러운 우리 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생활적인 어휘들을 고유조선어에서 찾고 그 어휘들을 민족적정서를 돋구는데 적중하게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시 《보름달이 왔소》에서 《하늘나라 예수나무》, 《달같은 님》, 《님같은 달》, 《하늘에 휘영청 밝은 초롱불을 켜들었는가》, 《선군의 쇄복인가》, 《통일열차의 둥그런 쇄바퀴가》, 《둥근 달은 우리의것》, 《보름달은 조선의 달》, 《씻누런 쟁반에 가득히 쟁겨들고》와 같이 시문장에 구

사된 어휘와 문장들은 보다 생활적이고 친근하며 정답다. 이로하여 시의 어휘와 문장들은 민족적 정서를 돌구어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시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꽃뽕이, 향단이, 옥별이/아릿다운 모습처럼 이름도 고운/누님네들은 어디로 가나/

-복술강아지 달랑달랑 앞서는/느리나무 저아래 휘늘어진 그네줄/

-하얀 버선발로 사뿐히 밀어차면/

-꽃잎같이 떠올라 달님처럼 웃는 누님네들아/

-소백수의 진달래에 물들여지고/철령의 진달래에 붉게 물들여져/

-래일의 내 민족의 어머니들/분홍저고리 누님네는 간다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얼마나 소박하고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주옥같은 어휘들과 문장들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시적어휘와 표현들은 그저 문득 쉽게 떠오른것이 아닐것이다. 민족의 정서에 심취되고 그 정서를 심중으로 깊이 체험하는데서 온 정열적탐구의 귀결일것이다.

특히 제목과 함께 시의 여러 군데에서 반복하여 쓰고있는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이라는 표현은 정서적으로 다정다감하고 참신하다. 《님》이라는 어휘는 존경하는 인물이나 말하는 사람이 말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유조선어에 분홍저고리라는 대

명사를 붙িয়ে 상징적으로 《분홍저고리 내 누님네들》이라고 하니 《님》에 대한 어휘는 보다 사랑스럽고 정답게 울려온다.

봄명절을 즐기는 녀성들의 모습이 한쪽의 선명한 조선화를 대하는것처럼 더 밝고 정다와진다.

문학작품이란 원래 민족적인것만큼 민족고유어를 표현수단으로 하는것은 우리 민족문학을 창조하는 창작원리에도 맞고 조선사람의 비위와 감정에도 맞는다.

시어탐구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진지한 노력은 평범한 어휘도 작품전반에서 적중하게 쓰이고 또 그 평범한 어휘를 상징적으로 작품에 활용할 때에는 그 어휘의 어원이 가지고있는 본래의 뜻이 보다 형상화되어 보다 깊고 넓은 의미의 색채를 부여할 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어휘창조에서도 자기의 개성적 면모를 더욱 뚜렷이 살려야 하며 특히 민족적정서를 구현하기 위한 시작품창작에서는 우리 민족고유어가 가지고있는 의미와 색채를 더욱 살려 우리말의 사용에서도 민족적향취가 풍기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6. 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을 성취해야 할 력사적시기에 놓여있다.

우리 시인들은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노래하는 민족의 정서가 짙은 다양한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 시조 3수

## 우리 군대

### 진 동 화

존대는 뉘발던가 나이아닌 총의여라  
병사야 아들또래 손자또래들이건만  
마을의 로인네들도 군대어른 군대어른 한다오

×

비온다 그어가고 바람인다 움츠리랴  
훈련의 총창꼬나 검은 구름 휘저으니

쏟던 비 걸어안고서 부랴부랴 흠어지네

×

철갑모에 흐른 이슬 천만꽃이 머금고  
총창에 빛난 별빛 창가마다 비껴웃건만  
병사는 모르는듯 솟는 태양만 우러르네

## 첫걸음

지인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니 갑자기 평양역으로 나갈 일이 생겼다. 중학교를 졸업한 조카애가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난다는 연락이 왔던것이다.

외아들이라고 누이가 늘상 애지중지하던 충성이, 일생 군복을 입고 외삼촌의 뒤통까지 군사복무를 다 하겠노라고 으시대던 조카애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서둘렀다. 초소로 떠나는 병사를 축하해주는것만큼 급하고 기꺼운 일이 어데 있겠는가.

이미 환송모임이 시작된 역전광장은 어디라 할것 없이 온통 꽃천지였다. 배웅나온 가족들과 모교의 교원 학생들, 길가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더욱 열기를 띤 한가운데 끝끝나게 군복을 차려입고 렬을 지은 입대생들이 첫눈에 안겨왔다. 얼굴이 안보일 정도로 꽃목걸이를 두개세개씩 걸고 가슴가득 꽃다발을 받아안은 그들의 얼굴에는 선군시대의 병사가 된 긍지가 한껏 어려 있었다.

조카애는 환송모임이 끝나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키는 그닥 크지 않아도 무척 다부진 체격에 영민하게 반짝이는 두눈... 군복을 입은 그 애는 곱절이나 커보였다. 제법 거수경례를 붙이더니 벌써 웃었다.

《정말 장한 결심을 했구나. 우리 장군님의 병사가 된 너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외삼촌, 너무 올려주지 마십시오. 조국보위야 공민의 신성한 의무가 아닙니까.》

그애의 튼튼 대답을 모두가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녀동생이 입술을 비죽거리며 시까슬렀다.

《피- 이제 겨우 <한살짜리 공민>?...》

《뭘라구?!》

조카애는 말문이 막혔다. 어느새 내 등뒤로 몸을 숨긴 동생애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에, 고결 그저...》

조카애는 동생쪽에 주먹을 흔들어보이고는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갔다. 그 바람에 온 가족이 유쾌하게 웃었다.

하긴 동생의 말이 옳았다.

조카애는 지금 공민으로서의 첫 걸음을 떼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병사로...

너무나 천진스럽고 아기자기한 오누이의 다툼이였지만 내가 받은 충격은 컸다.

공민의 첫 걸음, 첫 걸음과 병사!

문득 이번 취재길에 만났던 한 로병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조국해방전쟁시기였지요.》

로병은 이렇게 허두를 뺐었다.

...전쟁-삶이나 죽음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하는 운명의 선택이 칼끝처럼 곤두선 엄혹한 시기였다.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 물음앞에 공화국의 주인된 삶을 걸고 반드시 승리로 대답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이 나라 사나이들과 녀인들-공민들의 어깨 위에 무겁게 실렸다.

로병이 복무하던 중대에 신대원이 배치되어왔다.

코밑에 숨털이 보시시하고 아직 뼈도 굳지 않은 꼬마였지만 자기는 열일곱이 넘었노라고 무작정 우겨댔다. 그러지 않아도 익살이 걸죽한 구대원들이 이런저런 물음으로 놀리려 들자 꼬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곤두세웠다.

《놀리지 말아요. 잘난체 하면서... 나에게도 조국을 지켜싸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허, 그거 대단한데.》

포연내가 폭 배인 구대원들속에서 폭소가 터져올랐다.

꼬마는 중대장의 연락병으로 임명되었다.

어디 보자! 꼬마는 저만 저라고 배를 내미는 구대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싶었다. 하나 욕망과는 달리 다음날 전투에서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총탄이 비발치듯 하고 폭음에 하늘이 무너지듯 하는 그속에서 무작정 덩벼치던 꼬마는 그만에야 폭풍에 휘날려 전호구석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전투가 끝난 뒤였다. 꼬마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싱거운》 첫 전투였다.

꼬마는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영낙없이 놀림가마리에 들었구나 하고 입술을 깨무는데 구대원들의 말은 영 판판이었다.

《꼬마가 괜찮아. 첫 전투를 잘 치렀어.》

《걱정말라구, 우리도 처음엔 그랬다네.》

꼬마는 이런 전우들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성장했다. 연락임무수행과 전호파기는 물론 중대오락회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 어느때부터인가는 손에 직접 총을 들고 적들을 쏘아눕히기 시작했다. 육박전에도 여러번 달려나갔다.

중대의 량만이고 사랑동이었던 꼬마-어린 병사는 어느 무명고지탈환전투에서 쓰러졌다. 중대장에게 날아드는 적탄을 자기의 어린 가슴으로 막아나섰던것이다.

꼬마는 중대장의 무릎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군복안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고급중학교 묘표와 보풀이 인 수학공식집이 나왔다.

전우들은 땅을 치며 울었다.

중대장은 웅근 사흘이나 밥술을 들지 못했다...

《후에 알고보니 꼬마의 나이는 겨우 열여섯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우리에게 큰 힘을 준



병사였지요.

작가선생,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 나이를 앞질러 병사로 싸운 그 꼬마야말로 가장 떳떳한 공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로병의 말에 완전히 공감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이와 몸무게를 속이고 용약전선으로 달려나가 자기의 귀중한 생명과 청춘시절을 바친 수많은 꼬마병사들과 적후에서 소년빨찌산, 소년군위대를 못하고 용감히 싸운 유명무명의 어린 복수자들.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시고 조국이 없으면 배움의 교정도 자기들의 희망과 이상도 없다는 삶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수호의 성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새긴 그들은 진정 참된 조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며 충포성없는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전화의 그 나날에 화선병사들의 심장을 후덥게 달구어주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의 자각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지금 이 시각도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 계신것이 아닌가!...

드디어 입대생들의 대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색꽃보라가 날리고 취주악에 맞추어 우렁찬 노

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

나가자 군대로 조국을 위하여

나가자 나를 키운 당을 위하여

그렇다! 저들은 꿈많은 청춘이다. 온 우주를 다 안아도 성차지 않을 리상과 포부로 충만된 새 세기의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것을 뒤로 미루고 초소로 떠나는 열차에 먼저 몸을 싣는다. 공민의 첫 생활을 조국보위초소에서 시작하게 될것이다.

정녕 장군님을 결사보위하고 조국을 지키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공화국공민의 최고 자각으로 심장 깊이 새긴 이 나라 병사들이야말로 선군시대의 가장 떳떳하고 참된 공민, 선군공민들이 아니겠는가!

《아저씨!》

자그마한 소녀애가 내 손에 무엇인가 쥐여주며 방긋 웃는다. 꽃보라 한줄이었다. 모두가 환송열기에 들떠있는데 혼자생각에 잠겨있는 내가 아마도 별스럽게 보인 모양이다.

나는 소녀애의 불을 다독여주고 그 꽃보라 한줄을 입대생들의 군모와 령장우에 힘껏 뿌려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병사들, 선군시대의 제1공민들이여!

축복을 받으시라!

## 상식

# 지능건축물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맞게 새형의 건축물인 지능건축물들이 건설되고있다.

지능건축물이란 건축물의 4대 기본요소인 구조, 체계, 봉사, 관리와 그것들사이의 호상연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공간을 형성한 건축물이다.

지능건축물은 전자공학분야의 고도기술과 전통적인 건축형식이 집대성되어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지능건축물에는 건축안전자동화체계, 통신자동화체계, 사무자동화체계가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건축안전자동화체계에는 전력조종체계, 조명조종체계, 동력조종체계, 공기조화체계, 승강기조종체계, 보안감시조종체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컴퓨터를 리용하여 모든 상태를 감시하고 조종한다.

통신자동화체계에는 프로그램조종전화교환기를 핵심으로 하여 다기능전화, 사진전송. 각종 유형의 말단설비들로 구성된 내부망과 고속통신망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체계는 기본건축물내부와 외부에서의 모든 대화와 자료통신을 보장한다.

사무자동화체계는 주컴퓨터, 고성능사진전송기, 고성능전화기, 각이한 유형의 말단장치, 음

성 및 화상처리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이 체계는 자료처리, 문건보관관리, 전자우편, 전자신문, 텔레비존회의, 동시번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능건축물은 여러모로 좋다.

우선 건축물내부의 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자동감시를 진행하며 에네르기절약과 환경보호요구에 맞게 체계를 조종할수 있다. 다음으로 설비에 대한 자동감시와 조종을 실현하므로 건축물의 수명을 늘이고 여러가지 사고를 막을수 있다.

앞으로 지능건축물은 점차 구역화, 도시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것이라고 한다.

# 바다를 푸르게 하라

최 련

《아버지, 이것봐요. 바다는 저렇게 파란데 왜 여  
기 파란 물이 들지 않을까요?》

원양어로에서 돌아온지 하루밖에 안되는 젊은 선  
장은 딸애가 모래불에 쪼그리고 앉아 바다물에 잠  
그었다 불쑥 내미는 하얀 천뎡기를 보자 어리둥절  
해졌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여섯살난 소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걸 좀 보란 말이에요. 저기 저건 새파  
란데 여기 물은 파랑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제야 딸의 말 뜻을 알아차린 아버지는 바다를  
향해 크게 웃었다.

《하하- 저기는 파랑구 여기는 맑단 말이지. 하하  
...》

결결거리던 아버지는 원망에 찬 딸의 눈길을 보  
자 얼른 웃음을 거두었다.

《오. 그건 말이지 바다물이 맑기때문에 파랑계  
보이는거란다. 햇빛이 바다물에 비치면...》

하마터면 《빛의 흡수》요 《반사》요 하는 말이  
튀어나갈뻔 했으나 제때에 말을 끊은 선장은 보다  
알기 쉬운 말귀를 더듬어보았다. 그러다가 끝내 찾  
지 못한듯 한손을 책 내젓고는 귀여운 딸을 움쭉  
안아일으켰다.

《해송아, 그러지 말구 우리 이제 아버지 배를 타  
구 저기 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가보자꾸나. 물이  
정말 파란가.》

《아, 좋네.》

이제껏 꿈만으로 달려가던 바다 한가운데로 아  
버지와 함께 나간다는 말에 손뼉을 치며 환성을 올리  
던 딸은 문득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간절  
한 눈빛으로 물었다.

《근데 언제요?》

《이제 해송이가 요만큼 더 큰 다음에.》 하고 아  
버지는 딸의 머리우에서 한뼘도 안되는 위치에 넓  
적한 손바닥을 펴보였다. 소녀의 눈에는 그쯤한 높  
이는 이제 열흘밤만 자고나면, 아니 한 일주일만 지  
나면 자랄것 같아보였다.

《응 좋아. 난 꼭 저기까지 나가볼래요 거긴 물이  
새파랄거야.》

소녀는 확신에 넘쳐 수평선 한끝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자기의 비밀을 숨겨둔 바다가 이 꿈 많고 호  
기심 넘친 소녀의 눈동자속에서 온통 푸른 빛으로  
만 반짝인다.

이제는 20년전의 일이 되버린 추억이 왜 이 순

간에 문득 떠올랐는지 해송은 딱히 짐작할수 없었  
다. 혹시 나약한 마음이 불러낸 추억은 아닐까... 아  
무리 짚어봐도 지금의 이 불안한 심리와 유년기의  
그 추억사이에 어떤 련관이 있는지는 도무지 짚이  
지 않았다.

어느덧 자기가 찾는 사무실의 방번호가 눈에 띄  
우자 해송은 호- 하고 한숨을 내시고는 조심하 문  
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다소곳이 인사하고 머리를 들던 해송은 한순간  
굳어졌다.

이 방의 주인인듯 책상을 마주한채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은 이목구비가 단정한 청년이었다. 이제  
서른살쯤 되었을가. 혹시 방을 삭갈린게 아닌가 하  
여 돌아서려는데 청년은 송수화기를 든채 한손으로  
잠깐 기다리라는 시늉을 해보였다. 여유있고 틀이  
잡힌 동작이다.

《그렇습니다. 1년나마 가정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주십시오. 집에 들어서서 단란한 식  
사를 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 아마, 못미더워서  
가 아니라 믿기때문에 부탁하는거지요... 그건 좋  
을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청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책상 한구석을  
바라보았다. 해송은 청년의 눈가에서 한순간 따듯  
한 빛이 흘러지나는것을 놓치지 않았다.

문득 그는 시선을 들고 처녀를 바라보았다.

《전 현지답사조를 책임지고 국에서 내려온 박신  
철 책임부원동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청년은 이곳 바다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자주빛  
여름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처녀를 한순간 일별하  
고나서 풀색의 등반이걸상을 가리켰다.

《접니다. 거기 앉으시지요.》

해송은 한순간 머뭇거렸다. 그는 자기가 만나려  
는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라고는 미처 예견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인지 이제 해야 할 말들이 애  
초의 계획대로 되지 못할것 같은 불안이 갈마들었  
다.

해송은 호기심에 찬 청년의 눈길을 느끼자 마음  
을 가다듬었다.

《전 해양식물학연구사 윤해송입니다. 한가지 문  
의할것이 있습니다.》

처녀의 다음 말을 기다린듯 청년의 눈빛은 진지  
했다. 해송은 땀배인 손으로 무릎우에 놓인 손가방  
끈을 잡아쥐었다.

《전 日광산에서 이곳 편포앞바다에 침광시약시험 분공장을 꾸리는 문제로 국에서 현지답사조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전 그 시약을 생산하자면 이 바다 주변의 바다물을 연간 수백수천톤씩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

청년의 얼굴에 떠오른 의혹의 표정을 보자 해송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석연히 떠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렇게 되면... 바다가 수십년후에는 황폐해집니다.》

《바다가 황폐해진다?!》

분명 이 젊은 부원은 첫 순간에 말뜻을 채 깨닫지 못한듯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바다물 그자체와 그 물에 모여사는 미생물들은 물고기들의 먹이로 리용될뿐아니라 은신처로도 되고 특히는 알쓸이터로 됩니다. 그 바다물이 없어지면 물고기들은 자기 서식터를 잃게 되고 결국 바다생물계의 생태학적사슬고리는 파괴됩니다.》

약간 두드러진 이마밑에서 반짝이는 처녀의 도고하면서도 긴장된 눈빛을 바라보며 신철은 호기심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래서요?》

해송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에 그 시약분공장을 세우면 안됩니다.》

신철은 한쪽벽에 걸린 《편포앞바다 해조류분포도》를 한번 훑길 바라보고나서 물었다.

《그러니 동문 해조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군요.》

신철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동무의 심정은 리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약은 최유금속의 선팅실수율을 높임으로써 나라에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주게 되는것입니다. 사실 지금 외화가 어느만큼 귀중하다는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약생산에 쓸 해조류의 량은 현재 바다에 잠재해있는 량에 비해볼 때 그리 많은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것을 바다자원의 합리적인 리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해송의 얼굴에서 흥조가 사라졌다.

《그것이 어떻게 바다자원의 합리적인 리용으로 됩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면 생산을 늘이기 위해 바다 물을 거두어들이고도 모자랄 형편이예요. 모두가 이런 식으로 바다자원을 건어만 들인다면 바다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의 얼굴에는 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표정에는 뜻밖에 나타나 폭탄같은 말을 던지는 이 아름다운 처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선통 결심

할수 없는듯 한 당혹감이 비껴있었다.

《전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수 없다면 자연보호련맹에 제기하겠습니다. 래일아침까지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송은 자기의 어조가 차디찬 선고처럼 울리기 바라며 마지막말에 그루를 박았다. 그러나 자기를 흘깃 바라보는 신철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의 기대가 너무도 빗나갔다는것을 한순간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분명 당돌하고 기특한 소녀를 바라보는것 같은 눈빛이었다.

《결심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보다 행정할것을 요구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국가에 큰 리익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린 이미 성에 비준을 제기했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울렸다.

×

바다는 조용히 뒤설레고있었다. 먼 수평선 한끝은 부드러운 안개발속에 푸른 하늘과 맞붙어 어디서부터 바다인지 알수 없다 파도는 그 수평선 한끝에서 달려와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래불에 얹어진다. 저들 만이 아는 안타까움과 진정을 호소하러 달려왔다가 힘이 진하여 이 기술에 뿌려던지는것 같다. 백사장은 그들의 설분을 다 새긴다는듯 파도를 부드럽게 품어주고...

해송은 울고픈 심정이였다. 물론 이러한 랭대를 예상못한것은 아니지만 천진한 소녀를 바라보듯 하던 눈빛은 분명 참기 어려운 모욕이였다. 차라리 격렬한 반대보다 그 눈빛은 몇배나 강한 수치감을 자아내는것이 었다.

아니. 물려서서는 안돼.

해송은 강잉히 자기 마음의 매듭을 조여맸다. 그는 천천히 도래굽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데선가 난데없이 청청한 목소리가 바람결을 타고날아왔다.

《이건 안돼요. 내거예요.》

도래굽이를 돌아서자 예닐곱살쯤 되여보이는 사내애와 녀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구면친구인듯 하얀 모래불우에 다정하게 마주 앉아있었다.

《그건 왜 안되니?》

녀인이 자못 불만스러운듯 묻는 말이다. 땀뺀바지를 입은 소년은 해변에 감실감실 탄 팔을 내뻗쳐 무엇인가를 꼭 감싸친다.

《이건 제일 멋있는건데 뭐.》

녀인도 물려서려고 하지 않았다.

《내게도 고운걸 주렴. 너만한 애한테 선물하려고 그래. 이제 그 앤 인차 일곱살이 된단다.》

간절한 표정을 한 녀인의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던 사내애는 몹시도 아까운듯 품에 싸안았던 조가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밀었다. 녀인은 즐겁게 웃었다.

《고맙다. 그러니 내겐 모두 일곱개가 되는구

나.》

녀인은 일어섰다. 해송은 저도모르게 옷차림에 눈길이 갔다. 진곤색바탕에 여러가지 이름모를 들꽃문양이 빨갛게 혹은 재빛, 혹은 밤빛으로 피어있는 나뉜웃인데 마치 개개의 꽃들이 다 살아있는것 같이 생동하고 발랄한 감을 주었다. 그러나 해송은 그 녀인에게서 엿보이는 세련되고 우아한 미가 결코 그 옷자체가 자아내는것이 아님을 대번에 알아 보았다. 해송은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녀인도 얼핏 처녀를 보았다. 그 녀인의 눈가에 빛나는 기쁨은 처녀의 얼어든 가슴에 은반우의 해빛처럼 반짝거렸다.

녀인은 해송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스스럼없이 말했다.

《애가 글썄 자기가 얻은 조가비를 주었어요. 어쩔 이렇게 고운것들만 얻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나도 얻어보려고 했는데 글썄 눈에 띄우지 않는군요. 아마 아이들의 눈에만 그런 조가비가 보이는가 봐요.》

녀인은 자랑하듯 손에 쥐었던 조가비들을 내보였다. 칠색무지개빛이 아롱이는 조가비들인데 하나같이 기기묘묘한 모양을 갖추고있었다. 그 조가비들을 바라보는 녀인의 얼굴에는 천진하고 맑은 기쁨이 찰랑거린다.

《아지미, 난 갈래요.》

나는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버리는 사내애의 뒤를 바라보던 녀인은 다시 한번 즐겁게 웃었다.

《난 바다를 침 봐요. 그래서인지 막 아이들처럼 즐거워요.》

해송은 조가비를 손수건에 정히 싸고있는 녀인을 다소간 의혹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30대쯤 되었을가. 특별히 미인형이라고 할수는 없었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독특한 미가 엿보였다. 날이 곧게 선 코날과 휘우듯한 눈썹이 이채로운것은 아니고 바로 눈빛이, 시내물우에 잔줄거리는 해빛과 같이 빛뿌리는 그 눈빛이 아름답다. 이곳 바다가 휴양소에 왔을가.

해송은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다. 이 녀인의 기쁨과 자기의 고독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있는것이다.

《이 기술에선 누구나 바다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져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리라하는것을 예감하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녀인은 처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는 호기심이 빛나고있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해송은 한동안 허공만 바라보았다.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공중에 멈춰서 날개를 퍼덕거리던 갈매기가 무엇을 발견한듯 물우에 살같이 내려쫓힌다. 하얀 물보라가 일었으나 언제 그랬던가싶게 수면은

다시 태연히 설레인다.

《여기에 이제 공장이 일떠선답니다. 바다풀을 원료로 시약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시약?》

《그래요. 무슨 버력을 침광하는 시약이라나요. 그때문에 이제 몇십년후이면 이 기술의 바다풀도 부족해서 점점 더 자리를 넓혀야 할거예요. 바다풀은 자라는 주기가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그걸 보금자리로 삼았던 물고기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려야 하고... 갈매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체 이 바다에 무엇이 남을 가요. 물고기도 바다풀도 갈매기도 없는 바다가 무슨 바다겠어요.》

안타깝게 부르짖던 해송은 문득 자기자신이 가엾게 여겨져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히 만난 녀인에게, 무한한 즐거움에 휩싸인 녀인에게 자기의 설분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그는 녀인을 외면했다.

녀인은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흘러 내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뭇기고있었다.

홀깃 뒤를 돌아본 해송은 자기의 말이 이 녀인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을 느꼈다.

《동문 여기서 사는가요?》

불에 걸린 머리카락을 걷어내며 녀인이 조용히 물었다.

《전 평양에서 왔어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 이 바다가마을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조가비도 줏고 양식공언니들과 함께 미역을 따면서 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노래도 불렀어요.》

우리 마을사람들은 바다를 무척 사랑해요. <고난의 행군> 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바다를 가꾸었어요. 그런데...》

해송은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에 눈길을 주었다.

《나도 알아요. 그 공장이 필요한 공장이고 또 해조류의 량도 조절할수는 있다는걸... 하지만 50년, 100년후의 바다를 생각하는것이 과연 어리석고 천진한 일일가요?》

한순간 말을 멈추었던 해송은 녀인의 눈길을 외면하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전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그 공장건설문제를 보류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대로의 논리가 있군요.》

《그럼... 포기했는가요?》

《아니요. 그들에게 맞서볼 결심이예요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녀인의 얼굴에 한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물결처럼 스치고지나갔다.

《동문 꼭 해낼거예요.》

해송은 놀랍게 녀인을 바라보았다. 이 녀인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확신한다는것일가...

다음날 아침, 파릿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서던 해송은 저으기 놀랐다. 어제 바다가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 박신철과 마주 앉아있었던것이다. 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서 들어오세요.》

왜서인지 눈에 띄게 침울한 표정을 한 신철은 홀끔 해송을 바라보더니 창문쪽으로 사선을 돌려버린다.

《미처 소개를 못했군요. 전 연경이라구해요.》

녀인은 해송을 이끌어 긴 결상에 앉히고 자기도 나란히 앉았다.

《해송동무라고 했지요.》

녀인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눈길이 해송을 감싸안듯 바라보았다.

《해송동무, 제가 바로 그 침광시약을 연구한 연구사예요.》

《예?》

해송은 한순간 자리에서 일어섰다.

녀인은 이미 웃고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진중하고 침착했다. 그 눈빛에서 해송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해송은 여지없이 당황해버렸다. 녀인은 해송을 결상에 다시 앉혔다.

《동무가 아니었다면 내가 큰 일을 저지를뻔 했군요. 난 사실 내가 찾고있는 물질이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보았지 바다의 래일은 보지 못했어요. 고마워요.》

해송은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다. 단지 연경이 진정에 겨워 말하고있다는것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체온으로 감촉할수 있을뿐이었다.

《연구사동무.》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있던 신철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다시한번 말하건대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경은 책상우에 놓였던 수첩을 거두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제 결심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약공장건설을 우리가 왜 중지해야 하는가를 인차 깨닫는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철은 연경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가 지금 울분을 가까스로 억누르고있다는것이 결에서도 험동하게 알렸다.

《전 연구소와 전화약속을 한게 있어서 먼저 가보겠어요.》

자리에서 일어선 연경은 해송의 손을 다시한번 잡아주었다.

《난 해안려관 204호실에 있어요. 저녁에 놀러오겠어요?》

해송은 연경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다리겠어요.》

녀인이 나가자 방안에는 침묵이 찾아들었다.

신철은 그냥 창문쪽을 향해 서있을뿐이었다. 바늘 방석이라도 앉은듯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해송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몇걸음 출입문쪽으로 다가서던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시오.》 신철이 돌아섰다.

《명백히 알아들건 시약분공장건설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거요.》

해송은 차거운 눈빛으로 신철을 바라보았다.

《전 동지가 국 책임부원으로서 국가적립장에 서서 문제를 보기 바라요.》

《그렇소. 나는 국가적립장에서 이야기하는거요 한 인간의 귀중한 창조를 빛내여주는것이 바로 국가적립장이라고 난 생각하요.》

신철은 처녀의 앞을 힘하니 지나 제 먼저 밖으로 나갔다. 《광》 하고 문닫기는 소리에 해송은 흠칫 몸을 떨었다....

해송이 려관방에 들어섰을 때 연경은 무엇인가 읽고있었다.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는 해송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어서 들어와요. 그러지 않아도 난 왜 안올가 하고 궁금했는데.》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러진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 크지 않은 앉은뱅이책상이 있는데 그우에 어제 바다가에서 보았던 7개의 조가비가 동그란 원모양으로 놓여있었다.

연경은 미리 준비해두었던듯 빨간 도마도가 담긴 다반을 내밀어주었다.

《좀 들어요. 난 사실 여기로 오면서 현지확인이나 설계문건수표쯤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는데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오길 참 잘했군요. 바다를 보고 또 그 바다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문득 연경은 해송을 바라보며 물었다.

《참 신철동무와 다투었어요?》

《예?》

해송은 다소 뜻밖의 물음이여서 얼마간 당황해버렸다. 연경은 즐거운듯 웃었다.

《신철동무 고깝게 생각진 말아요. 사실은 좋은 동무예요. 우리 세대주와 대학동창이여서 나도 잘 알아요. 날 돕겠다고 자진해서 이 일을 맡아나섰어요. 웅이아버지보다 나이는 아래지만 국에서는 손꼽히는 실력가예요. 물론 고집은 좀 세요. 흠이라면 흠이구 또 사나이의 주견이라고 보면 장점일수도 있지요 뭐.》

창가로 흘러드는 석양빛을 받아 발그레 물든 녀인의 얼굴은 매혹적이랄만치 아름다웠다. 이 다정하고 아름다운 녀인이 《바다를 황폐하게 하는 시약의 발명가》라는 사실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언니처럼 속을 터놓고 녀성들의 세계를 말할수 있는 다감하고 생활을 사랑하는 평범한 녀인인것이다. 해송은 연경이가 집어준 도마도를 다시 다반우에

놓았다.

《언니, 난 하나 묻고싶어요. 자기의 창조를 포기하는것이 그렇게 레사로울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줘요. 언니 지금 피로워하고있지요? 난... 좀 알아봤어요. 이 연구성과가 거의 1년이나 남편과 귀여운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서 한치한치 피땀으로 거둔 열매라는걸... 그런데...》

자기 목소리가 떨려나는것을 느끼며 해송은 시선을 떨구었다. 그 다음말은 거의 속삭이듯 울렸다.

《난 언니에 대해서, 언니의 모든것을 알고싶어요.》

연경은 조용히 해송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해송이, 피롭구나...》

그는 해송의 손을 놓고 책상우에 놓인 조가비들을 하나하나 만지작거렸다. 그것들이 서로 부딪치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해송의 가슴을 아프게 허벼내렸다.

《내가 피로운건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그 때문은 아니야. 난 나 하나의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애아버지와 웅이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할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연경은 점점 떨어지던 고개를 들어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광산에서 떠나기 며칠전에 애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었는데 우리 웅이가 달력예다 5월 3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다는거야. 그건 우리 웅이 생일날이야 그러면서 글썽 <아버지, 이번엔 엄마랑 아버지랑 다같이 이 동그라미안에 모이지요?> 했다고 말했어.》

연경은 아들을 그려보는듯 가느스름하게 실눈을 지었다.

《사실 이번에 웅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어. 삼사년째 언제한번 그 애 생일을 제대로 쇠주지 못했으니까. 이상하지? 아마 뭔가 꼭 계획하고 간절히 기다리면 오히려 뜻대로 안되나봐. 글썽 웅이생일이 돼오면 어마어마하게 작전을 세우고 그날만은 어떻게 하나 꼭 시간을 내자고 별러도 그렇게 되지 않더구나. 이런걸 보고 희롱이라고 하는지? 지난해에도 난 그애 생일날에야 겨우 출장지를 떠날수 있었어. 차가 지연돼서 밤이 깊어 집에 들어서니 애아버진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고 웅이는 장난감기관총을 뿌려던진채 잠이 들어있겠지. 난 대번에 모든걸 알아차렸어. 웅인 엄마를 기다리며 울고, 아버진 장난감선물로 그 앨 달래고... 그래도 아이의 눈에서 쓸쓸한 빛은 가실수 없었는지 잠든 얼굴에 그 마음이 비껴있더구나. 아버진 엄마홍내를 내느라 지쳤고... 난 가슴이 터지는것 같아 애를 부둥켜안고 울었어. 그래, 내가 무슨 안해고 어머니겠어 난...》

연경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넘칠듯 고였다.

해송이 역시 눈가에 평하니 고이는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책상우에 놓인 7개의 조가비는 질어가는 석양빛에 더욱 아름답게 반짝인다.

잠시후 연경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아픔엔 정말 습관될수가 없구나... 웅이 아버지가 하는 계획사업이 얼마나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돕지는 못할망정 아이까지 떠맡기고... 그인 나같은 너잘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해.》

《언니.》

지금껏 눈물에 젖은 얼굴을 떨구고있던 해송이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날 용서해줘요.

내가 괜히 언넬 괴롭혔는가봐요. 언니, 시약공장을 포기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난... 해조류연구사가 아니예요.》

연경의 손에 쥐여졌던 조가비가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응?》

해송은 자신도 놀랄만큼 또렷한 어조로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난 사실 기계공학연구사예요. 이번에 여기 기계공장에 유압기계도입때문에 내려왔다가 마을사람들을 만났댔어요...》

연경은 숨을 들이그었다. 몹시 힘겨운 순간인듯 얼굴빛이 한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일어서서 창가에 다가섰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의 얼굴에 다시 금홍조가 돌아왔다.

《고마워. 난 오히려 해송이의 그 용기가 부럽구나. 일없어. 해송이가 해조류연구사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건 없어. 그래 해송인 내가 웅이에게 어떤 바다를 보여주길 바래?》

《그럼 언니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연경은 물끄러미 조가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그 조가비에 해송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씌여있는듯싶었다. 그 7개의 조가비가 녀인에게는 어떤 신비의 지혜와 힘을 주는것인지.

《난 이틀후에 떠나야 해.》

힘든 고비를 넘어섰을 때 느끼게 되는 안도의 빛이 연경의 얼굴에 나타났다.

《어디로 말인가요? 평양으로?》

《삼흥으로 가야 해. 오늘 연구소에 결심을 말했어. 새 시약합성안에 대한.》

그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아래층의 접수구에 있던 녀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채연경연구사가 있지요? 평양에서 전화왔어요.》

《평양에서요?》

연경은 얼핏 해송을 돌아보았다. 한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해송은 무엇인가 레사롭지 않은 일이 닥쳐왔다는것을 직감했다. 해송은 불안한 심정으로 연경이 나간 출입문쪽을 주시했다.

연경은 예상외로 인차 돌아왔다. 그러나 해송은

마치도 판 사람의 얼굴을 보는듯싶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창백해진 얼굴에서 슬픔에 잠긴 순간에조차 어떤 확신으로 빛나던 그 눈빛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허둥거리고있는것이다.

《그이가... 웅이 아버지한테서 온 전화야... 언제 떠나오겠는가 묻더구나.》

《그래서요?》

《난 대답을 못했어. 그인... 노한것 같애.》

온몸의 맥이 강그리 빠져버린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식은땀이 내똥은 이마에 손을 얹으며 방바닥에 무너지듯 앉았다.

《해송이, 날 혼자 있게 해줘. 이틀후에 다시 만나. 그전에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송은 연경의 방을 나섰다. 밤하늘에 조각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며 외로이 떠있었다. 진해가는 힘을 가까스로 모아 마지막 빛을 뿌리는것 같은 그 모양에 어쩐지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2층의 집...) 해송은 속으로 뇌이였다.

(왜 그 훌륭한 녀인은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짐을 더 져야 할가.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연경언니는 연구사업의 실패와 고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래, 그것은 그가 겪는 마음속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도 하찮은것이야.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뭐야? 그런 녀인이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받을진대 대체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

해송은 가슴이 답답하여 길턱에 휘늘어진 버드나무의 가지를 부여잡았다.

×

약속대로 이틀후에 찾아가니 연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합숙관리원의 말이 새벽차로 떠나겠으니 도중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는 한시간전에 나갔다고 했다. 사무실에도 문이 걸려있었다. 맥이 풀려 일어나오던 해송은 청사현관으로 들어서서 신철을 보았다.

《저...》 해송은 저으기 반가운 생각이 앞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신철은 그를 못본척 지나쳐 버렸다. 해송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청년은 자기를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했으나 해송은 다시 몇걸음 따라서며 물었다.

《연경언니가 지금 어데 있어요?》

그 말에 신철은 피곳 고개를 돌렸다.

《언니? 난 모르오.》

통명스럽게 뇌이고나서 그는 사무실쪽으로 걸어갔다. 해송은 모욕을 느꼈으나 잠자코 돌아서버렸다.

《잠깐만!》

신철이가 다가왔다.

《왜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지요? 내 한마디 충고하는데 이젠 더 그를 찾아다니지 마시오. 모든게 다 동무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해송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절 무슨 무리한으로 보시는가요? 전 제가 그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행위라는지요?》

신철의 눈에서 무엇인가가 이글거렸다.

《자기는 리치에 맞게 행동했다는거겠지. 둘에다 셋을 합하면 다섯이 된다는 그 랭담한 논리로 말이요. 바다가 피해를 입기때문에 그 녀자는 자기 성과를 포기해야 한다, 눈물은 어느만큼 흘렸든 고심은 어느만큼 했든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에서 생명이 위협에 처해도 나에겐 아무런 상관도 없다, 옳소. 전적으로 옳은 논리요. 그래서 그는 연구소에서도 위험하다고 중지시킨 폐유에서의 시약추출안을 다시 말아나셨소.》

해송은 모욕감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으나 반박할 수는 없었다. 그대신 새로운 불안감이 갈마들었다.

《언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신철은 마지못해 해안공원 바다가로 나가보라는 말을 던지고는 돌아서 버렸다.

연경은 며칠전의 그 도래굽이바위우에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칠 때마다 물보라가 흩날리는데도 까딱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에 몰렸는지 해송이가 나타난것도 첫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언니, 무슨 생각을 해요?》

연경은 해송을 힐끗 바라보더니 다시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파도치는 모양을 내려다보았다. 해송이가 옆에와 앉자 그는 품속에서 손수건으로 쓴 자그마한 꾸레미를 꺼내들고 매듭을 풀었다. 조가비들이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줄맞춰놓았다.

《웅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 와있어.》

《여기라니요. 련포에요?》

《응, 신철동무말이 오늘 도착했대. 그런데 그이가 날 만나지 않으려고 해. 왜 그럴가. 응, 해송이?》

《만나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해송은 너무 뜻밖이어서 되물었다. 연경은 눈길을 피하며 조가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난 알아. 그인 내가 노여운거야. 그건 응당해.》

그는 조가비들을 조심히 손에 집어들었다.

《이런걸로 그엘 달랠수는 없어.》

해송은 부르짖었다.

《아니, 그럴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거예요. 이제 오겠지요. 예?》

연경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해송의 웃짓을 바로 잡아주었다.

《정말 그럴가?》

《그러문요.》

한순간 밝아지는듯 싶던 연경의 얼굴이 무엇을

상기 했는지 다시금 어두워졌다.

《그런데 난 웅이 아버지가 온줄도 모르고 영평화 학공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 시약을 가지러 거기 사장이 우리 동창이거든.》

《가더라도 후에 가면 안되나요?》

《차가 올 시간이 됐어.》

해송은 자기가 연경의 걸음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아프고 쓰린것이다. 해송의 마음을 엿본 연경은 얼굴에 미소를 그렸다.

《일없어. 사람은 다 자기나름의 길이 있지 않아. 이건 내가 택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때문에 가는 거야.》

《언니!》

해송은 연경의 어깨에 살퐁이 얼굴을 묻었다.

《너무 늦진 마세요. 기다리겠어요.》

《해송이, 고마워. 저녁에 돌아오겠어.》

그들은 팔을 깎채 너럭바위를 내려섰다.

×

기다린다는것이 이렇게도 힘겨운 일이라는것을 해송은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는듯 싶었다. 한시간... 두시간... 이제는 돌아올 시간이 됐다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아예 합숙앞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길상에 나와 앉았다. 군데군데에 불길처럼 빨간 해당화꽃이 피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언니는 지금 어디쯤 왔을가...

문득 그는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찾는 약간 석씩한 소리를 들었다.

《운해송동무가 아십니까?》

첫 인상이 어지간히 날카로와보이는 사나이가 등 뒤에 서있었다.

《그렇습니다. 저 누구신데...》

해송은 자기 이름까지 알고있는 사나이를 전혀 본 기억이 없어 되물었다.

《난 림형준이라고 합니다. 림웅이 엄마일로 왔습니다. 신철동무한테서 동무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웅이 아버지란 말인가.

해송은 놀랐다. 왜서인지 연경의 남편이 너그럽고 마음어진 사람일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는 눈앞에서있는 사나이의 뿔뿔하고 날카로운 모습에 기가 눌렸다.

《저... 언니가 인차 올겁니다. 영평에 갔는데 이젠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글썄 호실엔 없더군요.》

문득 그는 해송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따가운 눈빛에 해송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외면했다.

《해조류연구사라고 했지요? 만만짐에 이곳 바다가에서 자라고있는 해조류들에 대한 설명이나 좀 해주십시오. 자료에는 이곳 바다가에 굴치, 구월풀이 많다고 되어있던데 여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

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해송은 눈길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예, 사실 굴치, 구월풀은 주로 찬데서 많이 사는 해조류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흘러드는 바다물흐름이 따뜻해지면서 뜸부기, 푸른지같은 해조류들도 많이 살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뜸부기. 청각, 푸른지 같은 해조류들에 포함되어있는 고-물질로 버럭침광시약을 만들수 있다는 우리 집 사람의 타산은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그 물질이 인체에서도 앙금화되는 카드미움, 연, 아연같은 중금속을 몸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나 해조류는 그래서 귀중한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바다정화제이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탄산가스를 록지보다 수십배 흡수하는데 바로 그 작용을 대부분 해조류가 하지요 그런 귀중한 해조류를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사막화, 다시 말해서 한번 파괴된 바다마를 발은 수십년이 걸려야 다시 소생할수 있으니까.》

해송은 점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지식에 놀란것은 아니었다. 해송은 지금 자기에게 해조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 사나이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서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말이 끊기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처녀의 예민한 감각으로 그것을 느낄수록 해송은 형준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저때문에 연경언니가...》

《날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위로하려는건 아닙니다. 연경언니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한 그 연구성과를 그대로 실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말하고싶을뿐이에요.》

형준은 다소 뜻밖인듯 해송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금 입을 열었다.

《어쨌든 행복한 상상은 깨여졌지요. 하지만 이제 그걸 깨진 사기조박 모아붙이듯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나도 집사람도 그런 위선은 바라지 않습니다.》

해송의 눈에 반짝하고 불꽃이 일었다. 점차 처녀의 얼굴에 불그레한 홍조가 피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언니가 얼마나 피로운 마음으로 떠났는지 압니까. 그에겐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형준은 처녀의 단도직입적인 어조에서 큰 충격을 느낀듯 흠칫 눈길을 들었다. 그는 처녀의 집요한 시선을 피하듯 한옆으로 돌아섰다.

《난 지금 그럴 자신이 없소. 어쨌든 고맙소...》

《아니, 언니가 인차 올겁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해송은 자기도 모르게 완강한 어조로 말했다. 형준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것이 그에게나 나에게나 필요할것 같소.》

갑자기 해송의 가슴속에서 세찬 격랑이 일었다.

《그러니 사실이었군요.》 그는 도전적으로 머리를 들었다.

《왜 피하는가요? 그것이 지금 언니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줄 정말 모르시는가요? 왜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해줄수 없어요? 그게 응당한 권리인가요? 한 사람의 훌륭한 인간은 인정할지라도 가정의 주부로서는 용납할수 없다는거지요?》

해송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웨칠수 있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속에 서서서리 얹혔던 그 모든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간듯 싶은 순간이었다.

형준의 진한 눈섭이 꿈틀거렸다. 해송을 보는 그의 눈에서 한순간 푸른 불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이제 불덩이같은 말들이 튀어나오리라 생각했으나 그는 갑자기 어깨를 떨어뜨리더니 돌아서 걸어갔다. 해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허둥거리는 걸음으로 몇자국 내짚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조금전의 그 순간이 자기의 일생에서 무엇인가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순간일수도 있으며 그 순간에 우던 그르던 자기가 확신성있게 행동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푸른 어둠이 깃을 내리운 공원길을 걸어가던 해송은 누군가가 급히 다가오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거친 숨소리가 가까와오자 해송은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신철이었다. 억제할수 없는 분기가 서린 그의 눈길을 마주보는 순간 그 어떤 불안한 예감에 한줄기 차거운 경련이 등골을 지나갔다.

《동문 뭐요? 형준동무에게 무슨 말을 했소? 뭐라고 했나 말ियो?》 그 목소리는 거칠고 조폭했다. 해송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울하다고 했어요. 모든 남편들이 다 웅이 아버지 같아야 한다면 난 과학자가 되길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뭐라구?》

신철의 눈길이 해송을 태워버리기라도 할것 같이 이글거렸다.

《우울하다구? 동무가 뭘 안다구. 그가 왜 피하는지 알기나 하오? 그는 웅이를 데리고 왔단말ियो. 그래 동문 아들을 다시 엄마 품에서 떼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픈 심정의 단 한끝이라도 가져보았소? 가정을 또다시 떠나야 하는 안해를 바래주기로 결심할 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넘어서야 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말ियो? 뭐, 과학자라구? 그런 좁은 심장을 가지구 과학을 어떻게 하오?》

신철은 코웃음치더니 획 돌아서 가버렸다.

해송은 날카로운 창끝에 찔린 때처럼 비칠거렸다.

신철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냥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거치른 목소리에 어쩔수 없는 진실이 비껴있다는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쉽사리 인정해 버릴수는 없다. 해송은 단호히 걸음을 옮겼다....

형준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긴결상에 앉아있었다. 바다는 푸릿한 어둠속에 잠겼다. 멀리 바다한가운데 떠있는 배에서 불빛이 반짝이고있었다.

형준은 옆에 서있는 해송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뇌이였다.

《내가 왜 웅이를 데리고 왔는지 나자신도 잘 모르겠소. 웅이는 여기에 엄마가 있다는걸 모르오. 웅이가 왔다는걸 알면... 연경인 건디지 못하오. 그저 무너지고 말지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는 녀자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던 그는 정겨운 눈길로 해송을 바라보았다.

《아까 따뜻한 가정의 주부라고 했지요. 그래 녀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의무가 있지요. 나 역시 그런 가정의 의무앞에 연경이가 자기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그가 연구과제를 밀어놓고있을 때도 있었지요.》

형준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그려졌다. 한동안 멀리 바다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을 이윽히 바라보던 그는 다시 말일 이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난 내가 지금껏 사랑해온 연경의 모습이 집에서 동자질이나 잘하는 그런 녀인이 아니었다는걸 깨달았소. 그가 자기를 잊고 몰두하곤 하는 창조와 기쁨과 희열과 궁지, 그 모든것이 합쳐져서 연경이의 모습을 이루고있었소. 실패앞에 번민하는 모태김과 눈물까지도 포함해서 말ियो. 그것을 빼고나니 그저 평범한 아녀자의 모습이 되여버리더군요. 그 순간 난 무서웠소. 내가 연경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엔 이상하겠지만 난 연경이의 처녀때의 모습이 언제인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상상에 좀처럼 익숙될수 없었소. 영원히 처녀때처럼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싶었지요. 그래서 연경이를 다시 그 길에 세웠던거요.》

형준은 얼핏 해송을 돌아보았다.

《그때 연경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타번지는 불길은 나자신도 놀랄만큼 강한것이였소. 솔직히 말해서 그 열과 빛은 내게서 남편의 권위보다 몇배로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이였소. 난 연경이가 불덩이같은 녀자라는걸 알지요. 자기를 깡그리 태우는 불이지요. 난 그 불을 언제까지나 황홀하게 바라보고싶소. 행복이란것이 안해의 따뜻한 보살핌이고 단란한 가정에 있다고 보면 그 불이 연경이뿐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태우는것일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불이 꺼지면 난 슬플거요.》

사위는 이미 어둠속에 잠겼다. 해송의 눈앞에 보

이는것은 불그레하게 물든 수정선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푸르고 환희에 찬 바다의 설레임을 보고있었다. 그것은 지금껏 자기가 알고있던 그 바다가 아닌, 무엇인가 그가 채 알고있지 못했던 숨엄한 사연들을 속삭이는 바다였다...

땅에 흠뻑 젖은 연경은 9시가 넘어서야 러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등에는 어지간히 무거워 보이는 배낭이 메워져 있었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젠 뭐예요?》 배낭을 받아들며 해송이 물었다.

《응, 시약연구에 필요한것들이야.》

그러니 이 열정적인 녀인은 벌써 새 연구사업의 시작을 뻔것이다. 해송은 밥상앞으로 연경을 이끌었다.

《식사하세요. 어서요.》

《먹구 왔어.》

연경은 다정한 웃음을 지으며 정겹게 해송을 바라 보았다.

《그리구말이야. 난 휴가를 받기루 걱정했어. 삼흥엔 집에 들렀다 가겠어.》

어지간히 활기를 되찾은듯 그는 툄동적인 걸음새로 옷장앞에 다가갔다.

《언니... 웅이 아버지가 왔됐어요.》

스치듯 흘러가는 그 말에 옷을 갈아입던 연경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돌아섰다.

《언제?》

연경의 얼굴에는 초조와 긴장, 불안의 빛이 서로 엉키여있었다. 그는 해송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어찌된거야. 웅? 어서 말해. 난 그일 만나야겠어 이제 당장.》

해송은 그의 불붙는듯 한 시선을 피하며 허아래 소리로 말했다.

《웅이 아버지인 이제 어딘가 가야 할데가 있다더군요. 래일 새벽차로 떠나는걸 바래워주겠다고 했어요. 자긴 모든것을 리해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연경은 천천히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다. 그는 혼자소리로 열에 떠서 부르짖었다.

《무엇을... 무엇을 리해한다는거야. 아니, 그래선 안돼요. 당신은 왜 날 멈춰세우려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연경은 아예 기진해버린듯 배낭에 맥없이 기대었다.

《언니, 그만 진정해요. 눈을 좀 붙여요. 어서요.》

해송은 연경을 부축하여 침대로 다가갔다. 해썩해진 얼굴빛을 한 연경은 마치 어린애마냥 해송이가 이끄는대로 자리에 누웠다.

밤은 깊었으나 해송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옆에 나란히 누운 연경이 역시 잠들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언니, 잠들었어요?》

《아니, 왜 그래?》

역시 잠기가 하나도 없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렸다.

해송은 연경의 손을 더듬어 찾아쥐었다.

《언니, 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 편질 썼어요. 웅이를 데려다 돌봐달라고...》

연경이가 놀라는듯 머리를 조금 들며 일어나려고 했다.

《언니, 누워요. 내 말을 마저 들어줘요. 웅이아버지도 중요한 일을 하는분인데 웅이때문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거 아니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들어오기전까지 한 20년 유치원원장을 했으니깐 웅일 잘돌봐 줄거예요. 그러니 이젠 웅이걱정은 아예 하지않아도돼요.》

연경은 해송의 손을 꼭 덩싸쥐었다.

《고맙구나. 해송이》

《그리구 말이에요. 난 언니와 함께 삼흥까지 가서 언니를 돕고싶어요. 거기서 평양에 올라가면 되니까요. 찬성하지요?》

《해송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만 뒤.》

《아니 그렇게 해줘요. 언니, 나도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또 난 언닐 따라가고싶어서 그래요.》

연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은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어둠속에 잠겼던 모든것이 점점 형체를 드러내었다.

연경은 역흠에 초조한 마음으로 서있었다. 그옆에 선 해송이 역시 나들이문쪽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흠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아직 잠기를 채 털어버리지 못한 얼굴로 새벽기운에 웅송그리고 서있던 사람들이 불현듯 술렁거렸다. 먼발치로 보이는 철길우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기적소리가 날아왔다. 렬차가 들어오는것이였다.

당황한 해송은 연경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파랗게 된 그는 형준이 나타나리라고 믿어지는 곳만 뚫어지게 응시하고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쪽에서 사람들을 밀치다 싶이하며 나타난것은 박신철이였다. 그는 개찰구를 빠져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연경이네를 발견한듯 곧장 달려왔다.

《연경동무!》

신철은 가쁜 숨을 내쉬며 들고 온 보통이를 그대로 연경에게 덥석 안겨주었다.

《이건 웅이 아버지가 보내는겁니다.》

《뭘라구요?》

연경은 갑전된 사람처럼 놀래며 보통이를 보았다. 낯익은 진홍빛보자기였다.

《웅이 아버지?》

신철은 그의 의혹어린 눈길을 외면했다. 이때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어서 오르십시오.》

그러나 연경은 나들이문쪽을 향하고있었다.

《난 그일 만나야 해요.》

신철은 어름어름 대답했다.

《사실은 아까 한시간전에 나에게 왔됐습니다. 내가 알려려니까 한사코 막더군요. 발목을 붙잡을바엔 만나지 않겠다면서... 바다가에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연경은 보통이를 움켜안았다. 기적소리가 울렸다. 결심을 내린듯 그는 돌아서 승강대로 올랐다. 뒤따라 해송이도 올랐다. 신철의 눈길이 해송에게 멎었다.

《해송동무.》

해송은 별안간 균형을 잃고 허둥거리는 신철을 태연한 눈길로 바라볼뿐이었다. 그 눈길앞에서 더욱 자신을 잃어버린듯 신철은 손을 뻗 내리그었다.

《어쨌든 다시 만납시다.》

해송은 신철의 불같은 시선을 못본척 돌아서버렸다. 창황중에도 연경의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가 비껴다. 신철은 누구에게라 없이 인사를 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렬차는 떠났다. 손을 저어주는 신철의 모습마저 새벽은무속에 사라져버리자 해송은 부드러운 아픔이 엄습해오는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아직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설혹 깨어나다 해도 지금 자기의 함께 가는 이 녀성연구사의 마음속고충을 아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이제 가야 할 길이 또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아는 사람도 적다 영원히 모를수도 있다 또 그것을 모른다고 탓할수도 없다. 그러나... 그러나...

연경은 차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앓고 그냥 승강대에 서있었다.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이 녀인의 머리를 날리었다. 그는 문득 보자기를 풀었다. 그안에는 옷과 약품들을 싣은 꾸레미가 있고 그우에 자그마하게 접은 종이가 끼워있었다. 연경은 다급히 종이를 펼쳤다. 뜻밖에도 소학교학습장의 네모줄칸을 친 종이였다. 그 우에 연필로 또박또박 박아쓴 얼핏 보기에도 엇나가는 획을 바로잡으려고 무던히도 애쓴 글자들이 나타났다.

《엄마, 아버지진 말했어요. 내 생일에 엄마는 나에게 바다를 선물한다고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주 넓고 새파란 바다래요.》

웅이었다. 그가 항상 꿈속에서도 안아보곤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인것이다. 연경은 그 편지

를 모두어 가슴에 꼭 안았다. 귀여운 아들의 살갓냄새, 그 따뜻한 체온을 한장의 종지에서 마음껏 들이켜보는것인지 그의 얼굴에는 무한한 행복감이 일렁이고있었다.

《웅이야!》

연경은 자기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듣고있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다함없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것을 그는 이미 확신하고있었던것이다.

시야가 확 열리며 불그레한 빛이 렬차를 감쌌다. 바다였다. 바다는 해뜨는 순간을 앞두고 장엄하게 뒤설레고있었다. 해는 아직 수평선너머에 있는데 그 붉은 빛이 온통 바다를 물들였다. 새날의 환희를 안고 금빛의 파도들이 서로 어깨를 흥떡이며 기슭을 찾아 렬차를 향해 밀려온다.

연경의 얼굴에 환희가 빛났다. 노을빛보다 더 붉게타오른 녀인의 얼굴은 그 어느때보다 아름다웠다.

《웅이 아버지!》

속삭임처럼 울리는 연경의 목소리를 해송은 들었다기보다 온몸으로 느꼈다. 그렇다. 바다가 백사장 에 그린듯이 서있는것은 형준이었다. 새벽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그는 렬차를 향해 손저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표정은 보이지 않았으나 붉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있는 모습은 청동으로 부어낸 군상마냥 번뜩인다. 그 옆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모래불에 엎드려 모래장난을 하는지 옆으로 앞으로 움직인다.

《웅이야!》

녀인은 울고있었다.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새벽노을에 아름답게 반짝인다. 하염없는 눈물, 행복에 겨워 흘리는 눈물이었다. 행복, 그것없이는 살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 어떤 고뇌와 아픔마저도 창조와 전진의 희열로 휘젓어올리는 크나큰 심장들은 다함없는 사랑을 에네르기로 행복을 찾아가는것이다. 해송은 자기 역시 울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소박하고 다감한 녀인이 이제 넘어야 할 골짜기와 계곡은 깊다. 하지만 그 렬마루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서있는데야 녀인이 어찌 중도반단할수 있겠는가. 그래 그것은 어둠과 고뇌가 아니라 빛이고 열정이고 환희야.

해송은 형준이 말한 그 《빛》을 보는것 같았다.

소리치고 환호하며 열정에 겨워 설레는 바다가 녀인들을 바래워주고있었다.